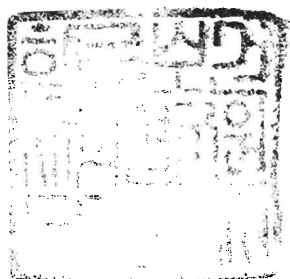


92-23

1991 全國出產力調查特別分析

1992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 리 말

本 報告書는 1991년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 資料를 기초로 研究者의 관심에 의한 特別分析結果를 수록한 것이다. 물론 出産力調査는 자녀를 얼마만큼 出産하느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原因이나 過程 그리고 結果에 의한 영향 등의 力學關係는 간단치 않다. 이러한 出産現象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려 하였던 전반적인 調査概況 즉, 調査의 標本抽出, 調査內容, 調査方法 그리고 1次 分析結果는 “韓國에서의 家族形成과 出産行態”에서 제시한 바 있다.

韓國에서 出産力에 관한 研究는 이제까지 出産調節政策과 함께 이러한 調査가 週期的으로 이루어졌던 만큼 비교적 多角的인 側面에서 접근되었다. 그러나 出産力에 관한 研究는 量的으로 많이 이루어 졌다고 해서 모든 측면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出産力은 研究者에 따라서 얼마든지 觀點을 달리할 수 있고, 또 廣範圍한 調査資料를 이용한 分析도 계속 이어질 價値가 있음은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本 報告書에서는 制限된 期間內에서 分析한 婚前出産과 관련된 ‘未婚男女의 性行態’, 出産力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女性の 結婚行態와 子女選好’, 妊娠過程에서의 현상을 다룬 ‘妊娠結果 및 人工妊娠中絶實態’, 그리고 産業化 및 低出産으로 인한 영향인 ‘老人家口의 構造的 特性’ 등 7편의 分析結果만을 수록한다.

물론 本 調査資料를 이용한 特別分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計劃이고, 아울러 이 分析結果에서 제시된 모든 내용은 各 研究者의 個人的 意見이며 當 研究院의 公式的 意見이 아님을 밝혀둔다.

1992. 12.

韓國保健社會研究院長 池 達 顯

目 次

韓國 未婚男女의 性行態 / 金勝權 -----	1
最近 韓國女性의 結婚行態 / 曹愛姐·孔世權 -----	40
婦人의 子女觀 決定要因에 관한 研究 / 徐文姬 -----	63
妊娠終結에 관한 研究 / 張英植 -----	95
出產間隔別 人工妊娠中絶率의 變化 / 孔世權·金勝權·金初江 -----	120
人工妊娠中絶의 變動 推移 / 洪文植·吳英姬 -----	146
人口의 老齡化와 老人家口의 特性 / 孔世權·曹愛姐·金應錫 -----	174

韓國 未婚男女의 性行態

金勝權 *

1. 緒論

韓國은 儒敎思想에 기초한 傳統的 價値觀으로 性에 관하여 거론하는 것을 不道德한 行爲로 여겨 禁忌視하여 왔다. 그러나 1960년대 초부터 進행된 産業化, 近代化는 우리 社會의 諸般 分野에 급격한 變化를 초래하여 傳統的인 價値觀과 慣習의 變化가 발생되었으며, 또한 이 過程에서 유입된 西歐文明으로 인하여 종래의 性道德觀은 크게 變化하여 性開放(free sex)이 자리를 잡으면서 靑少年 등 未婚男女의 性問題는 社會問題를 惹起시키고 있다.

性問題란 性에 대한 認識과 價値, 態度 및 行動 등이 일정한 社會機能에 背馳되는 점을 문제시 하는 것(孔世權 外, 1992)으로 世界保健機構(WHO)는 전 세계 靑少年의 當面 性問題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靑少年의 性經驗 時期가 빨라지고 있으며, 둘째, 靑少年의 性病이 증가하고 있는 趨勢이고, 셋째, 원치않는 妊娠이 증가하고 있으며, 넷째, 人工妊娠中絶이 증가하고 있고, 다섯째, 靑少年 出産 및 私生兒 出産이 증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靑少年層은 避妊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들이다(WHO, 1986). 이처럼 靑少年을 포함한 未婚男女의 性問題는 그들 個人次元에서 뿐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主任研究員

만 아니라 그 결과가 社會에 미치는 영향이 至大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性과 관련된 問題에 대하여는 消極的인 態度를 보여왔으며, 그 解決策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未備한 실정이었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西歐化와 都市化 그리고 범람하고 있는 性關聯 書籍 및 비디오와 같은 매스미디어 普及 등으로 社會全體가 性에 露出되어 未婚男女가 性에 쉽게 接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身體的 成熟이 빨리 이루어 짐으로 인해 그들이 性에 눈을 뜨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結婚年齡은 높아지고 있어 未婚男女의 性問題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점에서 未婚男女의 性에 관한 意識과 行動을 살펴보는 것은 社會問題로서의 性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기초적 작업이 될 것이며, 性教育을 위한 중요한 資料가 될 것이다.

2. 研究資料의 特性

本 研究資料는 「1991年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를 위해 標本抽出된 178개 調査口의 全體 家口(11,540 가구)에 居住하는 만 18-34세 未婚男女를 對象으로 한 '結婚 및 家族에 관한 調査' 資料로써, 調査方法은 먼저 家口調査를 통해 對象者 把握을 하고 調査員이 이들 對象者에게 조사표와 반송봉투를 배부하여 응답자가 自己記載式으로 직접 작성토록 하였으며, 작

表 1. 調査對象者の 應答率

(단위:명,%)

조사대상			조사완료			응답율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3,255	2,630	5,885	1,783	1,514	3,297	54.8	57.6	56.0

성완료된 調査票는 應答者가 郵便으로 當 研究院에 送付토록 하거나 調査員이 직접 收去하여 個人的 秘密을 최대한 保障토록 하였다. 전체 대상자 5,885명중 3,297명이 응답완료되어 56.0퍼센트의 응답율을 보였으며, 性別로는 남성 54.8퍼센트, 여성 57.6퍼센트의 응답율을 나타냈다(表 1 参照). 이들 應答者의 主要特性을 요약하면 <表 2>와 같다. 먼저 教育水準別로 구분하면, 남성의 48.6퍼센트가 高等學校 水準이었으며, 40.4퍼센트가 大學 以上の 水準이었고, 여성은 절반이 넘는 56.9퍼센트가 高等學校 水準이었으며, 大學 以上の 學歷을 가진 여성도 39.1퍼센트나 되어 應答者 대부분이

表 2. 應答者의 性別, 年齡別 特性

(단위:%)

특 성	남성				여성			
	18-22	23-27	28-34	전체	18-22	23-27	28-34	전체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5.8	9.6	34.3	11.0	3.5	3.9	12.5	4.0
고등학교	53.7	45.8	36.8	48.6	57.5	54.3	61.1	56.9
대학이상	40.5	44.6	28.9	40.4	39.0	41.8	26.4	39.1
직업:								
무직, 무급가사	25.6	15.1	13.0	20.1	14.2	23.1	24.6	17.0
취업중	31.8	63.7	84.4	50.4	49.0	72.4	72.5	56.1
학생	42.6	21.2	2.6	29.5	36.8	4.5	2.9	26.9
부모생존:								
양친	80.8	72.9	50.4	73.8	84.3	73.4	57.1	80.3
편친	18.0	25.2	40.8	23.7	14.8	25.6	38.6	18.7
안계심	1.2	1.9	8.8	2.5	0.9	1.0	4.3	1.0
부모동거:								
동거	80.6	65.7	63.4	72.8	75.5	72.5	55.1	73.8
비동거 ¹⁾	19.4	34.3	36.6	27.2	24.5	27.5	44.9	26.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94)	(649)	(240)	(1,783)	(1,054)	(388)	(72)	(1,514)

1) 부모가 안계신 경우와 기타를 포함.

高等學校 以上の學歷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職業別로는 職業이 없거나 無給家事從事者인 경우가 남성 20.1퍼센트, 여성 17.0퍼센트였고, 남성의 50.4퍼센트, 여성의 56.1퍼센트가 就業中 이었으며, 學生인 경우도 남성 29.5퍼센트, 여성 26.9퍼센트 였다. 兩親이 모두 살아 계시는 경우는 남성 73.8퍼센트, 여성 80.3퍼센트로 대부분이었으며, 父母가 한 분도 안계신 경우는 남성 2.5퍼센트, 여성 1.0퍼센트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父母와 같이 同居하고 있는 경우는 남성의 72.8퍼센트, 여성의 73.8퍼센트였으며, 父母가 안계시거나 계신다 하더라도 同居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남성 27.2퍼센트, 여성 26.2퍼센트였다.

이들을 年齡別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男女 모두 年齡이 23-27세에서 教育水準이 높았으며, 年齡이 높을 수록 職業을 갖고 있었고, 職業이 없거나 無給家事從事者는 남성의 경우 年齡이 높을수록 줄어들었으나 여성은 年齡이 높아질 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였다. 父母와 같이 同居하지 않는 비율은 남녀 공히 年齡이 높아질 수록 증가하였으며, 특히 28-34세 여성의 44.9퍼센트가 父母가 안계시거나 계신다 해도 같이 살고 있지 않았는데, 이 年齡層 女性들의 4.3퍼센트만이 父母가 한분도 안계신 것을 감안하면 28-34세 여성의 약 41퍼센트가 父母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職場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研究內容 및 方法

未婚男女를 對象으로 한 전체 調査內容, 즉 結婚, 家族價値 및 性行態에 관한 내용중 本 分析에서는 性行態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異性交際에 대한 態度 및 異性親舊有無, 純潔意識, 避妊知識 및 使用經驗, 婚前妊娠에 대한 態度 및 經驗, 人工妊娠中絶

및 出産經驗, 그리고 異性과의 同居經驗 등이다.

이러한 調査內容을 性別, 個人特性別로 살펴보고, 또한 態도와 經驗과의 관계를 증점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未婚男女의 性에 관한 意識과 行動樣相을 分析하고자 하였다. 특히 避妊方法 認知率과 避妊經驗率을 分析하여 未婚男女의 避妊知識 및 經驗을 파악하였고, 또한 妊娠과 그 결과인 出産 및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未婚女性의 經驗을 면밀히 分析함으로써 향후 이를 豫防하기 위한 對策을 講究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코자 하였다.

4. 性에 대한 價値觀 및 行動

가. 異性交際

未婚男女의 異性交際は 自己自身을 發見케 하고, 人生에 대한 視野를 넓혀주는 동시에 異性間的 社會化 作業을 통한 結婚 및 社會 適應能力을 상승시키고 좋은 配偶者 選擇에 도움을 주는 등 順機能的 役割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側面이 있는 반면 相對와의 葛藤으로 인해 異性關係에 混亂을 주거나 結婚前 性問題가 惹起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一面도 있다고 보겠다.

分析結果에 의하면 우리나라 未婚男女의 異性交際에 대한 態度가 비교적 肯定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異性交際를 贊成하는 경우가 남성 64.4퍼센트, 여성 69.4퍼센트였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異性交際를 더 원하였다. 特性別로는 대체로 年齡이 낮을수록,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異性交際를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職業이 없거나 無給家事從事者는 찬성율이 낮은 반면, 젊은 年齡層의 學生이 가장 높은 찬성율을 나타냈다(表 3 參照).

그러면 실제 異性交際가 얼마나 이루어 지고 있을까? 물론 서로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깊이를 異性親舊라 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그 結果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나 여기서의 異性親舊는 結婚을 할 相對者, 戀愛中인 경우, 즉 愛人關係는 물론, 단순한 社會團體의 一員 또는 學校親舊이지만 個人的인 關係로 자주 만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分析結果 남성의 49.8퍼센트가, 여성의 55.5퍼센트가 현재 異性親舊가 있어 未婚男女의 절반 이상이 異性交際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異性交際率이 약간 높았는데 이는 異性交際에 대한 態度에서 여성이 더 肯定的이었다는 점에 緣由하는 것으로 보인다. 異性親舊가 있는 경우 역시 年齡이 낮을

表 3. 應答者の 特性別 異性交際 態度, 異性親舊 有無 및 結婚相對率

(단위:%)

특 성	이성교제 찬성		이성친구 있음		결혼상대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64.4	69.4	49.8	55.5	36.9	37.2
연령:						
18-22	64.3	72.2	54.8	56.1	23.6	28.9
23-27	67.5	65.2	47.1	57.8	50.3	57.3
28-34	56.0	47.8	38.1	35.7	63.6	50.0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50.3	61.4	34.8	35.0	55.6	38.1
고등학교	63.0	67.1	45.0	51.1	36.4	40.9
대학이상	69.9	73.6	59.4	64.2	34.7	33.1
직업:						
무직, 무급가사	61.4	62.0	43.4	52.6	27.6	45.7
취업중	62.0	69.0	45.3	54.4	52.4	44.2
학생	70.5	74.6	62.8	59.7	23.0	19.4
부모동거:						
동거	62.4	70.3	49.1	53.3	33.7	34.8
비동거 ¹⁾	64.1	66.8	52.1	62.1	45.6	42.2

1) 부모가 안계신 경우와 기타를 포함.

* 結婚相對率은 異性親舊가 있는 경우 그 異性親舊가 結婚相對者인 率, 즉 '結婚相對/異性親舊있는 경우'를 나타냄.

수록, 敎育水準이 높을수록, 職業이 學生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父母와의 同居與否에 따른 異性交際를 하고 있는 程度는, 남성은 父母와 同居하고 있는 경우 49.1퍼센트, 父母가 안계시거나 同居하고 있지 않은 경우 52.1퍼센트로 약 3「퍼센트」포인트의 차이를 보였으나, 여성은 同居하는 경우 53.3퍼센트, 同居하고 있지 않은 경우 62.1퍼센트로 약 9「퍼센트」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여성의 입장에서는 父母와의 同居가 異性交際의 制約條件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父母와 同居하는 여성의 경우 70.3퍼센트가 異性交際를 찬성하였으나, 53.3퍼센트만이 현재 異性交際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態度和 行動間에 약 17「퍼센트」포인트의 큰 차이가 있었던 반면, 父母가 안계시거나 父母와 同居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66.8퍼센트가 異性交際를 찬성하였고, 62.1퍼센트가 실제 異性交際를 하고 있어 그 差異가 약 5「퍼센트」포인트 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다음은 異性親舊가 있는 未婚男女중 結婚을 전제로 한 交際는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면, 異性交際中인 남성의 36.9퍼센트, 여성의 37.2퍼센트가 結婚을 전제로 한 交際였고, 이를 特性別로 보면, 남성의 경우 年齡이 높을수록, 敎育水準이 낮을수록, 就業中인 경우, 그리고 父母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가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는 23-27세 年齡層의 高等學校 水準의 無給家事從事者 또는 就業中인, 父母와 同居하지 않는 階層에서 結婚을 前提로 한 異性交際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就業中인 경우의 52.4퍼센트가 結婚相對者로서의 異性親舊였으나 非就業(학생, 무직·무급가사종사자)인 경우는 극히 낮았다. 또한 男子大學生의 23.0퍼센트, 女子大學生의 19.4퍼센트가 結婚相對者로서의 異性親舊가 있었다.

異性交際에 대한 態度別 실제 行動을 보면 異性交際를 肯定的으로 생각하는 남성의 56.1퍼센트, 여성의 60.2퍼센트가 현재 異性交際를 하고 있었으며, 異性交際를 반대하지만 異性交際를 하고 있는 비율도 남성의 28.4퍼센

表 4. 應答者의 異性交際 態度別, 性別 異性親舊가 있는 率

(단위: %)

이성교제 태도	이성친구 있음 (결혼상대울)	
	남 성	여 성
찬 성	56.1 (37.8)	60.2 (37.0)
반 대	28.4 (50.0)	34.3 (50.0)

트, 여성의 34.3퍼센트나 되었다(表 4 參照). 따라서 異性交際는 態度에 따라 實際 行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현재 異性交際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異性交際를 反對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이것은 현재의 異性交際에 否定的인 側面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異性交際를 반대하는 남녀의 절반이 結婚相對者가 아닌 단순한 親舊로서의 異性交際를 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아무튼 異性交際를 贊成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약 2/3에 이르렀으나 현재 異性親舊가 있는 應答者가 약 1/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未婚男女의 異性交際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젊은 未婚男女의 異性交際가 점차 普遍化되어가는 현실을 감안하여 健全한 異性交際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父母 등 既成世代의 與件造成이 있어야 하겠다.

나. 婚前키스

키스는 異性間에 나타나는 사랑의 한 表現이며, 身體的 接觸의 발전된 한 段階이다. 未婚男女의 婚前키스에 대한 態度는 남성의 95.4퍼센트, 여성의 90.0퍼센트가 긍정적이었으며, 年齡, 教育水準, 職業 및 父母와의 同居與否 등 諸 特性에 따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의 經驗은 價值觀과 큰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性別 隔差는 심하였다. 즉 婚前키스의 經驗은

남성 51.5퍼센트, 여성 32.9퍼센트로 態도와 經驗의 差異가 남성은 약 44「퍼센트」포인트였으나, 여성은 약 57「퍼센트」포인트나 되었다(表 5 參照).

키스經驗者의 特性을 보면, 年齡이 높을수록, 學歷이 대체로 낮을수록, 父母가 안계시거나 父母와 同居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社會生活을 하며 對人關係가 많은 就業中인 階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經驗率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婚前키스에 대해 肯定的 立場을 보이는 반면 실제로 키스經驗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高學歷層인 大學生들은 20代 前後로 社會生活의 經驗이 많지 않았던데 그 이유가 있거나 또는 高等教育을 받은 階層은 觀念이나 態度面에서 매우 許容的이고 開放의 이지만 行動面에서는 教育水準이 낮은 階層보다 保守的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崔信德, 1968). 또한 1984년에 調査된 바에 의하면 未婚勤勞女性의 키스經驗率이 약 57퍼센트(洪文植 外, 1984)에 이르렀으나, 本 調査에서는 就業中인 女性의 키스經驗率이 38.5퍼센트로 나타나 7년전 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調査對象의 學歷差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結果는, 學歷水準에서는 高學歷層보다 低學歷層이, 그리고 社會階層으로는 上流層 보다 下流層이 性에 대해 더 許容的이라고 한 Kinsey의 見解와 일치하는 結果이다(Kinsey et al., 1948).

현재 異性親舊 有無에 따른 키스經驗率은 그것에 대한 態도와는 달리 큰 차이를 보였다. 즉 異性親舊가 있는 경우의 經驗率은 남성 65.5퍼센트, 여성 48.6퍼센트였던 반면, 異性親舊가 없는 경우에는 남성의 37.3퍼센트, 여성의 13.6퍼센트가 키스經驗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經驗率은 異性親舊 有無에 따라 相異하였으며, 특히 異性交際中인 사람이 結婚相對者인 경우에는 남성의 86.3퍼센트, 여성의 73.5퍼센트가 키스經驗을 가지고 있었다(表 5 參照).

婚前키스에 대한 態度別 키스經驗을 살펴보면, 婚前키스를 찬성하는 경

우, 남성의 56.0퍼센트, 여성의 40.5퍼센트가 키스經驗을 가지고 있었으며, 반대하는 경우는 남성 16.2퍼센트, 여성 3.1퍼센트가 키스經驗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態度가 經驗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態度 즉 價値觀과 行動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婚前키스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16.2퍼센트나 키스經驗이 있는 반면, 여성은

表 5. 婚前키스에 대한 態度 및 經驗

(단위:%)

특 성	혼전키스 찬성율		혼전키스 경험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95.4	90.0	51.5	32.9
연령:				
18-22	95.7	90.0	39.0	26.2
23-27	95.0	89.9	63.8	47.6
28-34	95.3	90.9	65.1	52.9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92.8	79.1	55.2	30.5
고등학교	95.8	89.0	52.0	34.3
대학이상	95.6	92.4	49.6	31.0
직업:				
무직, 무급가사	94.3	86.9	44.1	33.5
취업중	95.2	91.0	60.7	38.5
학생	96.3	90.2	41.4	21.1
부모동거:				
동거	95.0	89.5	46.7	28.5
비동거 ¹⁾	96.2	91.9	63.9	45.2
이성친구:				
있음	97.6	94.6	65.5	48.6
(결혼상대)	(97.1)	(97.2)	(86.3)	(73.5)
(결혼상대아님)	(97.8)	(92.1)	(52.2)	(29.9)
(모르겠다)	(98.2)	(96.0)	(59.2)	(48.2)
없음	93.1	83.9	37.3	13.6

1) 부모가 안계신 경우와 기타를 포함.

表 6. 應答者の 婚前키스 態度別, 性別 키스經驗率

(단위:%)

혼전키스 태도	키스경험 있음	
	남성	여성
찬성	56.0	40.5
반대	16.2	3.1

3.1퍼센트만이 經驗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은 키스를 經驗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婚前키스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여 자기의 行動이 바람직하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表 6 參照).

다. 婚前純潔

異性交際는 未婚男女로 하여금 自己自身을 發見케 하고, 社會生活에 많은 도움을 줌과 아울러 配偶者의 選擇에 넓은 眼目を 주며, 異性を 알게 됨으로써 원만한 結婚生活을 對備한 事前訓練을 할 수 있는 등의 利點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異性과의 身體的 接觸이 쉽게 이루어지는 기회가 됨으로써 이로 인한 폐해도 있을 수 있다. 異性과의 身體的 接觸(愛撫行爲)은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와 질수록 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身體的 接觸의 程度는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身體的 接觸은 婚前 性經驗에 까지 이르게 될 所持도 있으며, 여기서 婚前純潔 問題가 따르게 된다. 특히 매스미디어 발달의 영향에 의해 聽覺的, 視覺的으로 性的 衝動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價值觀의 變化로 종전의 社會的 規準과 道德的 慣習이 무너지고 있고, 女性의 社會活動이 증가하고 있어 男性에게 뿐만 아니라 女性에게도 異性交際의 機會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비추어 볼 때 이 過程에서의 純潔問題는 초점이 되지 않을 수 없다.

未婚男女의 婚前純潔에 대한 態度중 男子의 純潔에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남성은 21.9퍼센트였으며, 女子의 純潔에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여성은 46.1퍼센트였다. 따라서 婚前純潔의 중요성은 많이 줄어 들었으며, 性別로는 남성보다 여성의 貞操觀이 2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女子의 純潔에 대해서는 남성의 40.7퍼센트와, 여성의 46.1퍼센트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였으며, 男子의 純潔에 대해서는 남성의 21.9퍼센트, 여성의 40.4퍼센트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함으로써 純潔에 대한 性別 隔差가 컸으나, 女子의 純潔은 남녀 모두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表 7 參照).

純潔에 대한 意見에서 ‘가급적 지켜야 한다’는 意見은, 女子의 純潔에 대해선 남성의 46.5퍼센트, 여성의 37.9퍼센트였으며, 男子의 純潔에 대해선 남성의 50.8퍼센트, 여성의 40.3퍼센트였다. 그리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女子의 純潔에 대해서는 남성의 6.6퍼센트, 여성의 8.1퍼센트였으며, 男子의 純潔에 대해서는 남성의 10.8퍼센트, 여성의 8.6퍼센트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다수의 未婚男女는 婚前純潔을 중요시 하고 있으나, 약 6-10퍼센트 정도는 婚前純潔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本人의 性을 중심으로(남성은 남자의 순결, 여성은 여자의 순결) 하여 婚前純潔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남녀를 특성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年齡이 낮을수록 純潔意識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教育水準別 純潔意識은 남성은 高等學校 水準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나, 여성은 高等學校 水準에서 가장 약하였다. 그리고 남성은 職業이 없거나 無給家事從事者인 경우가 가장 純潔意識이 강하였으나, 여성은 學生이 가장 높은 純潔意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父母와 同居하고 있는 未婚男女의 純潔意識은 同居하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純潔意識이 한층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7. 婚前純潔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意見

(단위: %)

특 성	남자순결		여자순결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21.9(50.8)	40.4(40.3)	40.7(46.5)	46.1(37.9)
연령:				
18-22	24.1(50.5)	42.3(39.6)	42.1(45.9)	47.6(36.8)
23-27	20.5(50.8)	35.7(43.0)	37.8(48.4)	43.3(40.9)
28-34	17.8(52.1)	35.7(32.1)	42.9(43.5)	38.8(37.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0.2(45.2)	31.8(59.1)	40.9(46.5)	46.3(35.2)
고등학교	22.8(51.2)	37.1(37.9)	43.5(45.7)	44.7(36.8)
대학 이상	21.5(51.8)	43.8(42.9)	37.7(47.2)	47.6(39.6)
직업:				
무직, 무급가사	24.8(49.8)	41.1(41.8)	49.8(37.8)	47.1(37.8)
취업중	20.1(52.3)	33.7(43.7)	38.3(49.6)	44.5(38.9)
학생	22.7(49.7)	49.2(34.2)	38.1(47.7)	46.0(35.8)
부모동거:				
동거	23.7(51.9)	42.4(40.9)	43.9(45.2)	49.2(36.9)
비동거 ¹⁾	16.0(50.0)	33.3(38.1)	32.3(50.7)	35.8(41.5)

1) 부모가 안계신 경우와 기타를 포함.

註: ()은 가급적 지켜야 한다는 올임.

婚前純潔에 대한 態度를 既存 調査資料와 비교하면, 1975년 自動車 女性 勤勞者를 대상으로 한 調査에서는 婚前純潔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56.8퍼센트였으며, 1984년 未婚勤勞女性을 대상으로 한 調査에서는 57.6퍼센트였다. 女子高等學生에 대한 調査에서는 婚前純潔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1976년 약 95퍼센트에서, 1981년에는 81.3퍼센트로, 그리고 1988년에는 63.1퍼센트로 감소하여 純潔에 대한 態度가 크게 變化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女子高等學生에 비해 男子高等學生의 純潔意識이 취약하였다(表 8 參照). 따라서 비록 調査對象과 調査方法에서의 差異 때문에 단편적으로 비교

하여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婚前純潔의 重要性이 날로 退色되고 있는 경향임은 틀림없다.

婚前 性經驗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本 調査에서는 그 부분이 看過되어 있어 아쉬움이 많으며, 따라서 國內外 既存文獻에서 그 變化와 程度를 살펴보았다. 美國 10대 女大生の 데이트중 性經驗은 1940년대 약 19퍼센트에서 1960년대는 약 29퍼센트로, 1980년대는 약 64퍼센트로 급증하였으며, 그리고 美國 女大生중 19세 이하에서는 약 56퍼센트, 20-21세 에서는 약 69퍼센트, 그리고 22세 이상에서는 약 83퍼센트가 婚前

表 8. 既存文獻에 나타난 婚前純潔에 대한 態度

(단위:%)

조사년도	조사대상	반드시 지켜야 함	
		남 성	여 성
1975	자동차 여성근로자(7,288명)	-	56.8
1976	지방 여고생(300명)	-	95
1981	서울지방 여고3년생(290명)	-	81.3
1984	미혼근로여성(918명)	-	57.6
1988	고등학생(173,947명)	21.6	63.1
1991	미혼남녀(3,297명):본 조사*	21.9	46.1

* 남성의 경우 男子純潔에 대한 의견이며, 여성의 경우는 女子純潔에 대한 의견임.

資料: 이병태, 자동차 여성근로자 연구-안내원의 실태조사와 분석-, 전국자동차 노동조합, 1975.

오옥자,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정성채, 여고생들의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조사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홍문식 외, 미혼근로여성의 인구 및 성에 대한 지식·태도 조사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4.

김한경 외, 한국 청소년들의 생식보건에 관한 연구(I),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性經驗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Saxton, 1990). 그리고 韓國에서 실시된 調查結果는 美國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나긴 하였으나 최근의 급속한 經濟·社會發展과 同伴上昇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크게 憂慮된다. 즉 1984년 15-26세 未婚勤勞女性에 대한 調查에서는 37.8퍼센트가 性經驗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女子高等學生에 대한 調查에서는 1965년 3.6퍼센트가 1975년 6.2퍼센트로, 1981년 14.5퍼센트로 계속 증가하였으나, 1988년 調查에서는 2.8퍼센트로 크게 낮은 양상을 보였는데, 1965년, 1975년, 1981년 調查와 1988년 調查의 隔差가 큰 것은 調查規模와 調查方法의 差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71년 男子中·高等學生에 대한 調查에서는 18.5퍼센트가 性經驗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男子高等學生 調查에서는 1981년 27.7퍼센트, 1988년 11.7퍼센트로 나타나 調查에 따라 一貫性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

表 9. 既存文獻에 나타난 婚前 性經驗率

(단위:%)

조사년도	조사대상	성경험 있음	
		남 성	여 성
1965	여고생(4,604명)	-	3.6
1971	남자 중고생(2,154명)	18.5	-
1975	여고생(603명)	-	6.2
1981	고등학생(1,210명)	27.7	14.5
1984	미혼근로여성(918명)	-	37.8
1988	고등학생(173,947명)	11.7	2.8

資料: 서봉연 외, “순결교육을 위한 기초조사”, 중앙의학연구소 조사연구, 제38집, 1965.

강준상, “중·고교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 가족계획, 대한가족계획협회, 1971.

其他 資料('75, '81, '84, '88년 자료)는 <表 8>과 동일.

만 상당한 經驗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女子高等學生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表 9 參照).

이들 資料에 의하면 學歷水準이 상대적으로 낮은 勤勞女性의 性經驗率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學歷水準이 같다 하더라도 여성보다 남성의 性經驗이 많았는데, Kinsey와 Tavris and Sadd는 信仰心이 婚前 性關係에 가장 逆相關關係를 가지며, 그 다음은 教育水準이라고 한(Saxton, 1990) 주장과 相通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라. 避妊知識 및 經驗

우리의 學校教育은 性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禁忌視할 정도로 무관심해 왔으며, 靑少年의 非行問題가 擡頭되기 시작한 후부터 겨우 性教育을 시작했으나 그 수준은 여전히 미미한 정도이다. 이것은 다음의 分析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즉 '人工妊娠中絶은 避妊方法이 아니다'라고 한 경우가 남성 61.4퍼센트, 여성 64.0퍼센트로 전체 未婚男女중 精確한 知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3 수준에 달하지 못하였다.

이를 특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성의 경우, 23-27세 年齡層에서는 66.2 퍼센트가 精確한 知識을 가지고 있었으며, 28세 이상에서는 가장 낮은 58.0 퍼센트 만이 精確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精確한 知識을 갖고 있었는데, 中學校 以下 水準에서는 불과 41.9퍼센트 만이 알고 있었으며, 大學 以上の 學歷에서는 74.0퍼센트로 비교적 精確히 알고 있었다. 職業別로는 社會生活이 積極적이지 않은 無職 또는 無給家事從事者가 가장 낮았으며, 男子大學生이 가장 높았다. 人工妊娠中絶이 避妊方法이 아니라는 精確한 知識을 갖고 있는 여성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年齡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체로 年齡이 높을수록 精確한 知識을 갖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教育水準에 따라서는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큰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中學校 以下 學歷에서는 불과 42.1퍼센트만이 精確히 알

고 있었으나 大學 以上の 學歷 所持者는 73.8퍼센트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女子大學生이 職場女性 보다 더 정확한 知識을 가지고 있었다 (表 10 參照).

避妊知識 水準을 알기 위해 避妊方法에 대한 認知度를 질문한 결과, 남성의 50.9퍼센트, 여성의 38.6퍼센트만이 避妊方法을 1가지 이상 認知하고 있어 우리나라 未婚男女에 대한 性教育이 不足함을 엿볼 수 있다.

避妊方法 認知率은, 남성은 23-27세 年齡層에서 가장 높았으며, 學歷水準에 따른 認知率의 차이는 대단히 컸고, 學生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父母와 同居하고 있는 경우보다 同居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높았다. 여성

表 10. 人工妊娠中絶이 避妊方法인지 與否

(단위:%)

특 성	남 성			여 성		
	피임이다	아니다	모르겠다	피임이다	아니다	모르겠다
전체:	8.4	61.4	30.2	7.4	64.0	28.6
연령:						
18-22	8.9	58.8	32.3	8.0	61.7	30.3
23-27	7.9	66.2	25.9	6.1	69.6	24.3
28-34	8.2	58.0	33.8	5.8	68.1	26.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8	41.9	48.3	3.5	42.1	54.4
고등학교	9.8	54.6	35.6	7.5	58.7	33.8
대학 이상	6.5	74.0	19.5	7.5	73.8	18.7
직업:						
무직, 무급가사	12.2	53.5	34.3	6.6	61.0	32.4
취업중	8.4	57.4	34.3	6.8	64.5	28.7
학생	6.1	74.3	19.6	9.3	66.5	24.2
부모동거:						
동거	8.0	61.2	30.8	7.4	62.7	29.9
비동거 ¹⁾	9.2	62.9	27.9	7.3	67.4	25.3

1) 부모가 안계신 경우와 기타를 포함.

의 경우는 23-27세 年齡層에서 避妊方法 認知率이 가장 높았고, 大學 以上の 學歷水準에서, 就業중인 경우, 그리고 父母와 同居하고 있는 階層보다 同居하고 있지 않은 階層에서 높았다.

避妊經驗率은 남성 8.2퍼센트, 여성 3.0퍼센트로 남성이 많은 避妊經驗을 하고 있었다. 특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年齡이 높을수록, 中學校 以下 學歷

表 11. 避妊知識 및 使用經驗

(단위: %)

특 성	피임방법 인지율		피임 경험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50.9	38.6	8.2	3.0
연령:				
18-22	45.8	34.7	5.3	1.6
23-27	57.6	48.2	10.4	4.9
28-34	53.3	47.7	14.8	14.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1.8	38.0	9.5	8.0
고등학교	46.9	36.0	7.4	3.1
대학 이상	60.0	42.3	8.8	2.5
직업:				
무직, 무급가사	45.1	37.3	5.4	3.1
취업중	51.4	40.2	10.0	3.9
학생	54.8	36.8	7.7	1.3
부모동거:				
동거	48.3	36.3	6.6	1.2
비동거 ¹⁾	58.4	44.3	12.7	8.0
이성친구:				
있음	61.1	45.9	11.9	4.6
(결혼상대)	(66.0)	(55.7)	(20.6)	(8.4)
(비결혼상대)	(59.1)	(38.5)	(7.5)	(2.4)
(모르겠음)	(57.7)	(45.3)	(6.9)	(2.9)
없음	41.5	29.8	4.7	1.1

1) 부모가 안계신 경우와 기타를 포함

에서, 就業中인 경우, 그리고 父母가 안계시거나 同居하고 있지 않은 階層에서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는 年齡이 높을수록 經驗率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中學校 以下 學歷을 가진, 就業中이며, 父母가 안계시거나 父母와 同居하고 있지 않은 階層에서 높았다.

避妊方法 認知率과 避妊經驗率은 相關關係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남성의 경우, 中學校 以下の 學歷에서의 認知率은 가장 낮은 31.8퍼센트였으나, 經驗率은 가장 높은 9.5퍼센트로 그 差異가 22.3「퍼센트」포인트였으나, 大學 以上の 學歷을 가진 階層에서의 認知率은 60.0퍼센트, 經驗率은 8.8퍼센트로 그 차이가 51.2「퍼센트」포인트로 매우 컸다. 그리고 職業이 없거나 無給家事從事者の 認知率과 經驗率의 差異는 39.7「퍼센트」포인트였으나, 男子大學生의 차이는 47.1「퍼센트」포인트였다. 이러한 이유는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避妊知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避妊方法 認知率이 높으나, 避妊經驗率은 실제 性經驗과 聯關되어지기 때문에 낮은 것이다. 여성의 경우는, 避妊方法 認知率이 22세 이하에서는 약 35퍼센트, 23세 이상에서는 약 48퍼센트 였으며, 經驗率은 年齡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었다(18-22세 1.6%, 23-27세 4.9%, 28-34세 14.3%). 教育水準別로는 避妊方法 認知率과 避妊經驗率이 대체로 反比例하였으며, 특히 大學 以上 水準에서의 認知率과 經驗率의 차이는 약 40.0「퍼센트」포인트나 되었다. 職業別로는 學生인 경우의 認知率은 36.8퍼센트였으나, 經驗率은 1.3퍼센트로 가장 낮았으며, 就業을 하고 있는 여성의 認知率은 40.2퍼센트, 經驗率은 3.9퍼센트로 認知率과 經驗率이 모두 높았다. 여성의 避妊方法 認知率은 父母와 同居하고 있는 경우 36.3퍼센트, 同居하고 있지 않은 경우 44.3퍼센트였으며, 經驗率은 同居하고 있는 경우 1.2퍼센트, 父母가 안계시거나 계신다 해도 실제 同居하고 있지 않은 경우 8.0퍼센트로 나타나 父母와 同居하고 있지 않은 여성의 避妊經驗率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父母와 同居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性接觸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未婚男女가 經驗한 첫번째 避妊方法의 方法別 分布는 <表 12>와 같으며, 콘돔이 58.9퍼센트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다음은 먹는피임약으로 20.3퍼센트였다. 또한 非科學的 避妊方法으로 避妊失敗率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月經週期法과 其他 方法이 14.1퍼센트나 되어 失敗妊娠의 憂慮가 있으며, 이는 避妊을 受容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性關係와 함께 解決하여야 할 當面課題로 思料된다.

表 12. 未婚男女의 特性別 첫번째 사용 避妊方法

(단위:%)

특 성	자궁내 장 치	먹는 피임약	콘돔	살(질) 정제	월 경 주기법	기타 방법	계 (수)
전체:	1.8	20.3	58.9	4.9	8.0	6.1	100.0(163)
연령:							
18-22	1.8	17.5	61.4	7.0	8.8	3.5	100.0(57)
23-27	2.8	15.5	59.2	5.6	7.0	9.9	100.0(71)
28-34	-	34.3	54.3	-	8.6	2.8	100.0(3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22.2	72.2	5.6	-	-	100.0(18)
고등학교	4.0	32.9	52.6	2.6	5.3	2.6	100.0(76)
대학 이상	-	5.8	62.3	7.3	13.0	11.6	100.0(69)
직업:*							
무직, 무급가사	4.4	30.4	47.8	-	13.0	4.4	100.0(23)
취업중	2.0	22.7	58.8	6.2	4.1	6.2	100.0(97)
학생	-	5.0	67.5	5.0	15.0	7.5	100.0(40)
부모동거:**							
동거	2.5	8.6	70.4	8.6	6.2	3.7	100.0(81)
비동거 ¹⁾	1.3	31.2	48.0	1.3	10.4	7.8	100.0(77)

1) 부모가 안계신 경우와 기타를 포함.

* 무응답 3건 제외, ** 무응답 5건 제외

마. 婚前妊娠

婚前的 性關係는 대부분 理性的이고 計劃的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衝動에 의해 感情的, 無計劃的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避妊方法이 많이 開發되어 있고 避妊器具의 購入이 비교적 용이해졌으며, 避妊知識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未婚男女의 性關係에서는 원치 않는 妊娠의 可能性이 많으며, 婚前性交는 1:5의 比率로 妊娠한다고 한 學者(Kinsey, et al., 1948)도 있다. 특히 婚前 性經驗은 크게 문제삼지 않아 性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西歐에서도 妊娠은 非難의 對象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社會에서도 未婚男女의 妊娠과 出産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實態를 정확히 把握하고 對策을 講究하여, 또 다른 社會問題인 未婚女性の 人工妊娠中絶과 出産을 防止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금번 실시된 調査의 分析結果에 의하면 18-34세 未婚女性の 妊娠經驗은 3.4퍼센트였다. 妊娠經驗女性을 特性別로 보면, 年齡이 높을 수록 급격한 증가를 보여준다. 즉 18-22세 年齡層에서는 불과 1.7퍼센트이던 것이 23-27세의 結婚適齡期에서는 5.8퍼센트로 증가하며, 結婚適齡期를 넘어서 28-34세 年齡層에서는 15.9퍼센트를 보였다. 教育水準別로도 큰 隔差를 보였는데, 中學校 水準 以下 에서는 10.5퍼센트, 高等學校 水準에서는 4.4퍼센트, 大學 以上에서는 1.0퍼센트였다. 따라서 中學校 水準 以下の 28-34세 年齡層에서 妊娠經驗이 많음을 알 수 있다. 職業別로는 현재 職業을 갖고 있는 여성의 4.7퍼센트, 職業이 없거나 無給家事從事者の 3.3퍼센트, 學生의 0.8퍼센트가 妊娠經驗이 있었다. 그리고 父母와의 同居與否別로 妊娠經驗은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데, 父母와 同居하고 있는 女性은 1.7퍼센트의 妊娠經驗이 있었으며, 반면 父母가 없거나 職場 등의 이유로 同居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8.0퍼센트의 妊娠經驗을 보여 약 5배나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異性交際中인 여성의 4.8퍼센트, 異性交際를 하고 있지 않은 여성의 1.7퍼센

表 13. 未婚女性の 特性別 妊娠経験

(단위:%)

특 성	임신경험		
	과거경험	임신중	계
전체:	3.3	0.1	3.4
연령:			
18-22	1.6	0.1	1.7
23-27	5.8	-	5.8
28-34	15.9	-	15.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5	-	10.5
고등학교	4.3	0.1	4.4
대학 이상	1.0	-	1.0
직업:			
무직, 무급가사	3.3	-	3.3
취업중	4.6	0.1	4.7
학생	0.8	-	0.8
부모동거:			
동거	1.6	0.1	1.7
비동거 ¹⁾	8.0	-	8.0
이성친구:			
있음	4.7	0.1	4.8
(결혼상대)	(6.8)	(0.3)	(7.1)
(비결혼상대)	(2.5)	(-)	(2.5)
(모르겠음)	(4.4)	(-)	(4.4)
없음	1.7	-	1.7

1) 부모가 안계신 경우와 기타를 포함.

트가 妊娠經驗이 있었다. 특히 異性交際 相對方이 結婚相對者인 경우의 7.1 퍼센트가 妊娠을 經驗한 것으로 나타나 이 階層의 避妊經驗率(8.4%)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妊娠經驗이 높은 것은 避妊方法의 使用이 적절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性關係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表 13 參照).

<表 14>는 避妊經驗 與否에 따른 未婚女性의 特性別 妊娠經驗率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도 避妊敎育의 必要性이 絶실히 擡頭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避妊經驗이 없는 여성의 妊娠經驗은 1.3퍼센트 였으나, 避妊經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妊娠을 經驗한 여성은 61.9퍼센트나 되었다. 이것은 妊娠을 한번 經驗한 후 그 다음의 性關係에서는 避妊을 하기 때문에 妊娠經驗率과 避妊經驗率이 높을 수 있고, 또한 避妊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避妊知識의 不足 또는 非科學的인 避妊方法의 使用 등으로 避妊失敗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靑少年 등 未婚男女를 對象으로 한 避妊에 관한 敎育과 弘報啓蒙이 絶실히 要求된다.

表 14. 未婚女性의 特性別, 避妊經驗與否別 妊娠經驗率

(단위:%)

특 성	피임경험	
	있 음	없 음
전체:	61.9	1.3
연령:		
18-22	50.0	0.6
23-27	70.6	2.5
28-34	66.7	5.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5.0	4.4
고등학교	70.8	1.9
대학 이상	42.9	-
직업:		
무직, 무급가사	28.6	1.9
취업중	72.4	1.7
학생	40.0	0.3
부모동거:		
동거	58.3	0.9
비동거 ¹⁾	64.3	2.5

1) 부모가 안계신 경우와 기타를 포함.

바. 婚前妊娠의 結果

婚前妊娠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未婚男女가 妊娠이 된 경우 그 妊娠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의 態度와 실제로 妊娠한 경우 그 妊娠의 結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妊娠이 되었을 경우 ‘반드시 出産하겠다’는 의견이 남성 20.6퍼센트, 여성 10.2퍼센트였으며, ‘養育이 可能할 경우 出産하겠다’는 의견이 남성 67.8퍼센트, 여성 70.7퍼센트, 그리고 ‘出産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남성 11.6퍼센트, 여성 19.1퍼센트로 出産에 대한 강한 態度를 보였으며, 또한 여성보다 남성이 出産을 더 원하고 있어 出産當事者인 여성은 出産後의 많은 制約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 ‘養育이 可能할 경우’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즉 妊娠하였을 경우 곧 結婚하여 出産하겠다는 의견, 즉시 結婚하지 않더라도 相對와 相議하여 키우겠다는 의견, 養育할 經濟的 能力만 있으면 女性 혼자 힘으로도 出産하겠다는 의견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어쨌든 條件이 허락하는 한 人工 妊娠中絶 보다는 出産을 희망하는 의견이다. ‘반드시 出産하겠다’는 의견을 特性別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는 23-27세 年齡層에서, 學歷이 낮을수록, 그리고 職業을 갖고 있는 경우가 높았으며, 父母와의 同居與否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이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高年齡層, 高等學校 學歷 水準, 그리고 職業을 갖고 있는 경우가 높았으며, 父母와의 同居與否는 態度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表 15 參照).

本 調査에서는 人工妊娠中絶 및 出産經驗 與否를 전체 未婚男女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런데 未婚男性은 人工妊娠中絶 및 出産의 當事者가 아니기 때문에 相對女性과 헤어졌거나, 그 여성이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一時的 衝動에 의한 性關係인 관계로 相對女性이 妊娠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結果가 어떠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

表 15. 未婚男女의 特性別 婚前妊娠의 結果에 대한 態度

(단위: %)

특 성	남 성			여 성		
	반드시 출산	양육가능시 출산	출산 불가	반드시 출산	양육가능시 출산	출산 불가
전체:	20.6	67.8	11.6	10.2	70.7	19.1
연령:						
18-22	19.2	68.8	12.0	10.2	70.9	18.9
23-27	22.9	66.3	10.8	9.7	71.7	18.6
28-34	19.1	68.4	12.5	13.5	61.5	25.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4.7	62.3	13.0	2.7	75.7	21.6
고등학교	20.2	68.0	11.8	11.4	68.1	20.5
대학 이상	20.1	69.1	10.8	9.3	73.9	16.8
직업:						
무직, 무급가사	15.8	70.2	14.0	7.6	66.7	25.7
취업중	22.1	67.1	17.8	11.2	71.5	17.3
학생	20.8	68.2	11.0	9.4	71.2	19.4
부모동거:						
동거	20.8	66.9	12.3	10.3	70.5	19.2
비동거 ¹⁾	19.4	71.0	9.6	10.7	71.3	18.0

1) 부모가 안계신 경우와 기타를 포함.

서 여기서는 分析의 正確을 기하기 위해 人工妊娠中絶 및 出産의 當事者인 女性만의 의견을 다루었다.

모든 妊娠의 結果는 出産(正常出生 및 死産), 自然流産, 그리고 人工妊娠中絶로 終結되는데, 本 研究에서는 妊娠을 經驗한 여성중 人工妊娠中絶 및 出産經驗이 얼마나 되는지를 分析하였다.

1) 婚前人工妊娠中絶

胎兒를 人爲的으로 除去하는 人工妊娠中絶이 전 세계적으로 社會의 焦點이 되고 있는 것은 胎兒의 生命을 重視하는나, 아니면 出産의 選擇權利가

여성인 妊産婦에게 있느냐 하는, 즉 生命優先과 選擇優先중 어느 점을 중요시 하느냐에 그 첫 이유가 있다. 두번째 이유는, 本 論文에서 論議하고자 하는 점으로 未婚女性の 人工妊娠中絶은 既婚婦人の 그것과 受容目的에서 전혀 相異하며, 더군다나 妊娠의 過程도 또한 問題가 되기 때문이다.

人工妊娠中絶은 刑法에 禁止되어 있으며, 母子保健法에서는 극히 制限的으로 이를 許容하고 있다.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調査에 의하면 ‘落胎規制法の 改正方向’에 대한 의견에서 落胎의 完全許容은 1.6퍼센트, 完全禁止는 1.3퍼센트, 特定事由에 따른 制限的 許容 38.3퍼센트였으며, 그리고 妊娠期間에 따른 制限的 許容이 58.8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심영희 외, 1991). 특히 妊娠期間이 약 2-3개월 이내에서는 人工妊娠中絶을 許容할 것을 주장하는 의견이 전체 應答者の 절반(50.2%)에 이르고 있어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우리나라 여성의 意識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人工妊娠中絶은 원치 않는 妊娠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出産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 즉 家族計劃 次元의 한 方法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많은 既婚婦人들이 지금도 그러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家族計劃事業의 質的인 推進에 問題點으로 擡頭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¹⁾. 더군다나 未婚女性の 人工妊娠中絶은 원치 않는 妊娠에 앞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衝動的인 性關係의 結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최근 韓國社會가 급격히 西歐化, 性開放化 되어 가고 있고, 특히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실제로 未婚男女의 性行態는 최근에 이를 수록 더

1) “1991年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資料에 의하면 15-49세 既婚婦人이 經驗한 전체 妊娠의 30.5퍼센트가 人工妊娠中絶로 終結되었으며, 특히 避妊失敗로 인한 妊娠의 79.4퍼센트가 人工妊娠中絶로 終結되었다(金勝權, 1992).

욱 과감한 면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의 實態를 파악함은 중요하다.

分析結果에 의하면 未婚女性의 人工妊娠中絶經驗은 2.8퍼센트였는데, 이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18-22세 年齡層에서는 1.3퍼센트에 불과하던 것이 結婚適齡期(23-27세)에서는 5.0퍼센트로 증가하고, 그 이후의 年齡層에서는 13.0퍼센트로 급격히 증가하여 年齡이 상승함에 따라 人工妊娠中絶의 經驗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妊娠經驗이 年齡의 상승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起因하는 것이다. 學歷水準에 따른 人工妊娠中絶 역시 妊娠經驗에서와 동일하게 낮은 學歷을 가진 여성일수록 높은 經驗率을 나타냈으며, 그리고 職業別 및 父母와의 同居與否別로도 妊娠經驗率과 人工妊娠中絶經驗率은 同伴上昇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表 16 參照).

妊娠經驗을 한 女性중 人工妊娠中絶 經驗女性이 얼마나 되는지를 본 結果, 妊娠經驗이 있는 未婚女性의 84.8퍼센트가 人工妊娠中絶經驗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年齡別로는 18-22세 年齡層에서 81.3퍼센트, 23-27세에서는 86.2퍼센트, 28-34세에서는 81.8퍼센트로 結婚適齡期 女性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教育水準別로는 中學校 以下에서 66.7퍼센트, 高等學校 水準에서 83.7퍼센트였으며, 大學 以上 學歷에서는 거의 모든 妊娠經驗 女性이 人工妊娠中絶經驗이 있었다. 職業別로는 學生은 妊娠經驗者 모두가 人工妊娠中絶經驗이 있어 女子大學生은 대부분의 妊娠을 人工妊娠中絶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就業中인 경우가 82.6퍼센트의 人工妊娠中絶經驗率로 가장 낮아 養育 가능한 경우에는 出産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父母와 同居하고 있는 未婚女性의 妊娠經驗 對比 人工妊娠中絶經驗率은 75.0퍼센트이었으며, 父母가 안계시거나 同居하고 있지 않은 여성은 87.5퍼센트로 父母와 同居中인 여성보다 약 13「퍼센트」포인트 높았다. <表 16>의 妊娠經驗者의 妊娠中絶經驗率과 <表 17>의 妊娠經驗者의 出産經驗率을 합하면 100퍼센트 또는 그 이하(자연유산 감안)가 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그 이상이

表 16. 未婚女性の 人工妊娠中絶 経験率 및 妊娠経験者の 中絶経験率

(단위: %)

특 성	임신 경험율	인공임신중절 경험율	임신험험자의 중절경험율*
전체:	3.4	2.8	84.8
연령:			
18-22	1.7	1.3	81.3
23-27	5.8	5.0	86.2
28-34	15.9	13.0	81.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5	7.0	66.7
고등학교	4.4	3.6	83.7
대학 이상	1.0	1.0	100.0
직업:			
무직, 무급가사	3.3	2.9	87.9
취업중	4.7	3.8	82.6
학생	0.8	0.8	100.0
부모동거:			
동거	1.7	1.2	75.0
비동거 ¹⁾	8.0	7.0	87.5
이성친구:			
있음	4.8	4.2	89.4
(결혼상대)	(7.1)	(6.4)	(94.1)
(비결혼상대)	(2.5)	(1.8)	(72.0)
(모르겠음)	(4.4)	(4.4)	(100.0)
없음	1.7	1.1	64.7

1) 부모가 안계신 경우와 기타를 포함.

* 임신중인 경우 제외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妊娠數 對比 出産數 또는 人工妊娠中絶數가 아니고, 妊娠經驗女性 對比 出産 또는 人工妊娠中絶 經驗女性이기 때문으로 重複하여 妊娠한 경우도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상 우리나라 未婚女性の 人工妊娠中絶 實態를 알아 보았는데, 특히 이러한 未婚女性の 人工妊娠中絶이 既婚婦人の 妊娠中絶 보다 더욱 심각하게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은, 未婚女性은 대부분 出産이 없는 상태에서 첫 妊娠을 人工妊娠中絶하고 있어 醫學的으로 그들에게 더욱 큰 身體的, 精神的 弊害를 주기 때문이다.

2) 婚前出産

未婚女性의 出産은 그 즉시 結婚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結婚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出産을 하게 되었을 때는 심각한 個人的, 社會的 問題인 未婚母 問題가 惹起된다.

전체 調査對象者중 出産經驗者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特性別 分析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경향을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分析結果에서 나타난 18-34세 未婚女性의 出産經驗은 0.5퍼센트였다. 年齡이 높을수록 많은 經驗을 보여 28-34세 年齡層에서는 3.0퍼센트로 높았으며, 教育水準 역시 낮을수록 出産經驗率이 가장 높았고(1.8%), 職業이 있는 경우가 높았다(0.8%). 出産經驗은 妊娠經驗이 많은 階層에서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父母와 同居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出産經驗은 妊娠經驗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동거:임신경험 1.7%, 출산경험 0.1%; 비동거:임신경험 8.0%, 출산경험 1.4%). 또한 異性親舊가 있는 階層(0.6%)이 없는 階層(0.3%) 보다 훨씬 높아 個人特性別로 현저한 差異를 보였다. 여기서 특히 問題되는 것은 현재 異性親舊가 없는 여성의 0.3퍼센트, 結婚相對가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서 0.5퍼센트의 出産經驗이 있었다는 점으로, 이들은 出産後 즉시 結婚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未婚母이며, 더군다나 相對男性과의 관계가 斷絶되었거나, 結婚을 전제로 하지 않은 出産이어서 未來가 不透明한데 그 심각성이 더 하다. 또한 앞서의 특성에서 나타났듯이 未婚母의 대부분이 高年齡層, 低學歷層, 就業中이거나 無職인, 그리고 父母와 同居하고 있지 않은 階層의 여성들이기

때문에 아기를 養育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婚前 妊娠의 出産으로의 終結은 未婚母의 出現, 그리고 국제적으로 韓國의 威信을 失墜시키고 있는 많은 國際入養兒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실제 妊娠經驗이 있는 女性의 15.2퍼센트가 出産經驗이 있었는데, 妊娠經驗者의 出産經驗率을 特性別로 간략히 살펴보면, 18-22세 年齡層과 28-34세 年齡層에서 각각 18.8퍼센트, 18.9퍼센트로 높았는데 低年齡層, 또는 低學

表 17. 未婚女性의 出産經驗率 및 妊娠經驗者의 中絶經驗率

(단위 : %)

특 성	임신경험율	출산경험율	임신경험자의 출산경험율*
계 :	3.4	0.5	15.2
연령:			
18-22	1.7	0.3	18.8
23-27	5.8	0.5	8.6
28-34	15.9	3.0	18.9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10.5	1.8	17.1
고등학교	4.4	0.7	16.3
대학이상	1.0	-	-
직업:			
무직, 무급가사	3.3	0.4	12.1
취업중	4.7	0.8	17.4
학생	0.8	-	-
부모동거:			
동거	1.7	0.1	6.3
비동거 ¹⁾	8.0	1.4	17.5
이성친구:			
있음	4.8	0.6	12.8
(결혼상대)	(7.1)	(0.7)	(10.3)
(비결혼상대)	(2.5)	(0.5)	(20.0)
(모르겠음)	(4.4)	(-)	(-)
없음	1.7	0.3	17.6

* 임신중인 경우 제외.

歷의 高年齡層인 것으로 보아 性에 대한 無知가 出産에 이르게 하는 側面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高等學校 水準 以下에서는 약 17퍼센트로 높았다. 大學 以上 水準에서는 出産經驗이 없었는데, 이는 이 學歷層의 妊娠經驗 對比 人工妊娠中絶 經驗率(100.0%)이 높았던 점에서도 알 수 있으며, 또한 未婚母의 學歷水準이 비교적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職業別로는 就業中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父母와 同居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妊娠經驗 女性의 出産經驗率은 異性親舊가 있는 경우 12.8 퍼센트, 異性親舊가 없는 경우 17.6퍼센트였는데, 현재 異性親舊가 없는 여성이 높았던 점과 異性親舊가 있다 하더라도 結婚相對가 아닌 여성층이 20.0퍼센트인 점은 극히 憂慮된다.

오늘날과 같이 性的 刺激이 蔓延되어 있는 社會에서는 婚前 性行爲를 經驗할 機會는 누구에게나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未婚母 問題를 個人의 道德的 次元에서 판단하고 個人, 즉 當事者인 未婚男女의 責任으로만 돌려버린다면 문제의 핵심을 놓치게 될 위험을 가진다. 婚前 性行爲가 妊娠 및 出産에 이르는 데에는 일련의 過程을 거치게 되며, 避妊이나 人工妊娠中絶 및 結婚 등에 의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妊娠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出産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일정수준의 敎育, 醫療受惠, 避妊知識과 서비스, 그리고 結婚 등의 機會를 이용할 能力과 與件이 缺如되어 있는데서 발생된다(安順德 外, 1984). 따라서 이러한 婚前妊娠 및 出産은 個人次元 보다는 社會構造的 次元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 婚前同居

未婚男女중 과거 同居經驗이 있거나 현재 同居하고 있는 경우는 남성의 8.1퍼센트, 여성의 2.9퍼센트로 남성의 同居經驗이 매우 높았다. 남성의 경

우, 年齡이 높을수록 同居經驗率이 높았는데 28-34세 年齡層에서 16.1퍼센트나 되었으며, 中學校 以下の 學歷層에서는 17.9퍼센트였고, 현재 職業을 갖고 있는 경우가 11.5퍼센트, 父母가 안계시거나 계시더라도 같이 살지 않고 있는 경우 12.3퍼센트로 他 階層 보다 높은 同居經驗率을 보였다. 그리고 異性親舊가 結婚相對인 남성의 20.8퍼센트가 과거 同居經驗이 있거나 현재 同居中이었으며, 異性親舊가 없는 경우도 약 5퍼센트가 同居經驗이 있었다.

未婚女性の 경우도 비슷한 양상이었으나 남성보다는 특성에 따른 격차가 크지 않았다. 同居經驗率은 28-34세 年齡層에서 7.0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中學校 以下 學歷水準에서 5.0퍼센트, 현재 職業이 있는 階層에서 3.7퍼센트, 그리고 父母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階層이 7.4퍼센트로 높게 나타났다 (表 18 參照). 職業이 學生인 男子大學生의 3.0퍼센트, 女子大學生의 1.0퍼센트가 同居經驗이 있었는데, 최근 生活費 節約을 이유로 異性과 同居하는 大學生도 있다는 傳言이 맞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本 調査에서는 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경우를 모두 '既婚'으로 처리하여 제외하였기 때문에 여기서의 同居는 '一時的인 同居'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一時的 感情에서 同居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장차 結婚相對者로서 同居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임은 분명하다. 특히 結婚適齡期를 넘어서 28세 이상의 父母가 안계시거나 떨어져 사는 中學校 以下 學歷의 就業中인 男女가 同居率이 높은 것은 經濟的으로 結婚할 與件이 되지 못하거나, 마땅한 結婚相對가 없기 때문에 또는 性的 滿足을 위해 一時的 同居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의 責任을 전적으로 그들 自身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社會가 도와 주어야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表 18. 性別, 特性別 異性과의 同居經驗

(단위: %)

특 성	남 성			여 성		
	계	과거동거	동거중	계	과거동거	동거중
전체:	8.1	7.6	0.5	2.9	2.7	0.2
연령:						
18-22	5.0	4.7	0.3	1.5	1.4	0.1
23-27	9.5	9.0	0.5	6.0	5.5	0.5
28-34	16.1	15.2	0.9	7.0	7.0	-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17.9	15.7	2.2	5.0	5.0	-
고등학교	9.6	9.2	0.4	3.9	3.5	0.4
대학이상	3.5	3.4	0.1	1.5	1.5	-
직업:						
무직, 무급가사	7.4	7.4	-	3.2	2.8	0.4
취업중	11.5	10.8	0.7	3.7	3.5	0.2
학생	3.0	2.6	0.4	1.0	1.0	-
부모동거:						
동거	6.4	6.2	0.2	1.3	1.3	-
비동거 ¹⁾	12.0	11.3	0.7	7.4	6.6	0.8
이성친구:						
있음	11.0	10.2	0.8	4.1	3.7	0.4
(결혼상대)	(20.8)	(18.8)	(2.0)	(6.4)	(5.4)	(1.0)
(비결혼상대)	(5.1)	(5.1)	(-)	(2.0)	(2.0)	(-)
(모르겠음)	(5.9)	(5.1)	(0.8)	(3.5)	(3.5)	(-)
없음	5.0	4.9	0.1	1.7	1.7	-

1) 부모가 안계신 경우와 기타를 포함.

5. 要約 및 結論

오늘날 未婚男女의 性問題는 西歐社會에서 뿐만 아니라 韓國社會에서도 그 심각성을 띠고 있다. 특히 그 동안 儒敎思想을 根幹으로 하여 온 우리의

傳統的 價値觀은 1960년대 이후부터 추진되어 온 近代化에 동반된 西歐化, 都市化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變化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젊은 世代들의 性行態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靑少年 등 未婚男女의 性에 대한 行動은 既成世代가 憂慮할 만큼 社會問題化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本 分析에서 나타난 韓國 未婚男女의 性行態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異性交際를 찬성하는 의견은 약 2/3 수준에 이르렀고, 약 1/2이 현재 交際하고 있는 異性親舊가 있었으며, 남성 보다 여성이 異性에 대해 態度나 行動面에서 더 開放的이었다. 또한 異性交際를 하고 있는 남녀중 異性親舊가 結婚相對者인 경우는 약 37퍼센트였다. 이러한 異性交際は 未婚男女의 性行態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異性親舊 有無別 性關聯 行爲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表 19>와 같이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젊은 未婚男女의 異性交際를 健全하게 만드는 것은 既成世代의 宿題임에 틀림없다.

異性交際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身體的 接觸의 하나인 키스에 대한 態度와 經驗을 살펴보면, 절대다수가 婚前키스를 찬성하였으며, 실제 키스를 經驗한 경우도 남성의 51.5퍼센트, 여성의 32.9퍼센트나 되었다. 그리고 態度와 行動間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婚前키스를 찬성하는 階層이 經驗率

表 19. 未婚男女의 異性親舊 有無에 따른 性關聯 行爲의 經驗

(단위 : %)

이성친구 유무여부	남 성			여 성					
	키스 경험	피임 경험	동거 경험	키스 경험	피임 경험	임신 경험	중절 경험	출산 경험	동거 경험
있음	65.5	11.9	11.0	48.6	4.6	4.8	4.2	0.6	4.1
없음	27.3	4.7	5.0	13.6	1.1	1.7	1.1	0.3	1.7

도 높았다. 또한 키스經驗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婚前키스를 반대한다고 응답한 階層은(남성 16.2%, 여성 3.1%) 身體的 接觸을 後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本人의 婚前純潔에 대한 態度는, 남성의 21.9퍼센트, 여성의 46.1퍼센트가 純潔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여, 남성에 비해 여성의 純潔意識이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男子의 純潔에 대해서는 남성의 21.9퍼센트, 여성의 40.4퍼센트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女子의 純潔에 대해서는 남성의 40.7퍼센트, 여성의 46.1퍼센트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응답하여 여성 스스로도 男子의 純潔보다 女子의 純潔을 더욱 중요시 하였다. 아뭏든 純潔에 대한 態度를 既存資料와 비교하여 보면 婚前純潔의 중요성은 점차 退色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避妊方法의 認知率은 남성 50.9퍼센트, 여성 38.6퍼센트로 여성보다 남성이 避妊方法에 대한 知識이 더 높았으며, 避妊經驗率은 남성이 8.2퍼센트, 여성이 3.0퍼센트로 남성이 훨씬 높은 避妊經驗을 갖고 있었다. 避妊經驗率을 특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年齡이 많을수록 높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28세 이상에서의 避妊經驗率은 그 이하의 年齡 보다 급격히 증가하였다. 教育水準別로는 學歷이 낮을수록 대체로 避妊方法 認知率은 낮으나 避妊經驗率은 높았으며, 學歷이 높은 경우가 避妊方法 認知率은 가장 높았으나 避妊經驗率은 낮은 경향이였다. 父母와 同居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同居하고 있는 경우보다 避妊認知率도 높았고 避妊經驗率도 특히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異性親舊가 있는 경우의 避妊方法 認知率과 經驗率이 異性親舊가 없는 경우보다 훨씬 높았다.

未婚女性の 妊娠經驗을 보면, 3.4퍼센트가 妊娠을 한 經驗이 있거나 妊娠中이어서 純潔意識이 약해지고 있음에 영향을 받아 妊娠 經驗率이 增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未婚女性の 人工妊娠中絶 및 出産에 직결되는 것으

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妊娠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의견으로 남성의 20.6퍼센트가, 여성의 10.2퍼센트가 반드시 出産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妊娠은 거의 人工妊娠中絶과 出産으로 終結된다. 本 分析에서는 未婚女性の 2.8퍼센트가 人工妊娠中絶經驗이 있었으며, 0.5퍼센트가 出産經驗이 있었다. 최근 人工妊娠中絶은 結婚與否에 관계없이 全 年齡層에 擴散되고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既婚婦人 뿐만 아니라 未婚女性들도 많은 妊娠中絶 受容을 하고 있어 이는 性問題의 爭點, 그리고 社會問題로 提起되고 있는 실정이다. 妊娠을 經驗한 未婚女性の 84.8퍼센트가 人工妊娠中絶을 經驗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特性別로는 23-27세 年齡層, 大學校 水準 以上の 學歷에서, 현재 學生인 경우, 그리고 父母가 안계시거나 계시더라도 同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많은 人工妊娠中絶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다른 階層에 비하여 出産으로의 終結이 여의치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妊娠經驗 女性の 出産經驗率은 15.2퍼센트나 되었는데, 이들이 出産後 곧 相對男性과 結婚으로 연결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렇지 못하면 未婚母로서 계속 존속하여야 되므로 크게 憂慮된다.

全體 未婚男女중 同居經驗이 있거나 현재 同居하고 있는 경우는 남성의 8.1퍼센트, 여성의 2.9퍼센트나 되었으며, 대체로 年齡이 높고, 敎育水準이 낮은, 職場을 가지고 있는, 父母가 안계시거나 同居하고 있지 않은 階層에서 많은 同居經驗이 있거나 同居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未婚男女의 性行態를 살펴 보았으나, 그 결과는 종전의 傳統的 價値觀과 行動을 이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도록 變質되어 가고 있는게 현실이었으며, 이를 直視하여야 할 段階에 있는것 같다. 그렇다고 이런 性開放의 물결, 더 나가 퇴폐풍조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으며, 이를 건전한 방향으로 誘導할 수 있는 對策을 조속히 강구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몇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異性交際를 충분히 할 수 있는 機會와 與件이 保障되어야 할 것이며, 異性交際를 건전하게 誘導하기 위한 社會團體의 적극적 활동이 있어야 겠다. 아울러 異性親舊와의 交際가 家族과 연결될 수 있도록 既成世代가 먼저 傳統的이고 固陋한 價値觀을 스스로 벗어나 新世代를 수용할 수 있는 兩世代間 '對話의 場'이 열려야 겠다. 둘째, 사랑의 屬性上 身體的 接觸은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Love is touch'라는 견해도 있음), 婚前 身體的 接觸의 限界를 명확히 하여 未婚男女가 최소한의 性道德을 定立할 수 있도록 學校 및 社會團體에서의 敎育이 적극 이루어져야 겠다. 세째, 妊娠, 避妊 등 性敎育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 性知識 不足으로 인한 妊娠 및 出産이 없어야 할 것이며, 또한 勤勞地域 中心의 性敎育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性知識의 習得이 용이토록 해야 할 것이다. 네째, 婚前純潔의 기본적 틀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비록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이를 排他視만 해서는 婚前妊娠의 問題가 더 크게 擴散될 憂慮가 있다. 따라서 未婚男女를 위한 民間次元의 避妊普及을 과감하게 실시하여 婚前妊娠의 防止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겠다. 다섯째, 未婚女性의 出産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防止하여야 하나 어쩔수 없이 出産하게 된 女性이 있는 경우, 未婚母를 위한 就業敎育 및 斡旋, 그리고 出産兒를 위한 託兒所 등 社會福祉施設의 擴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강준상, “중·고교생의 성에 대한 태도”, 가족계획, 대한가족계획협회, 1971.
- 孔世權, 曹愛姐, 金勝權, 孫聖姬, 韓國에서의 家族形成과 出産行態,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2.
- 金勝權, 우리나라 婦人의 避妊失敗妊娠과 人工妊娠中絶에 관한 研究, 保健社會論集, 제12권 제1호,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2.
- 金漢敬, 南貞子, 韓國靑少年 性問題에 관한 文獻研究,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5.
- 金漢敬, 南貞子, 朴寅緒, 靑少年 性相談 전화프로그램 開發 및 運營事例 報告書,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6.
- 김한경, 남정자, 한혜경, 한국청소년들의 생식보건에 관한 연구(I),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 서봉연, 전광문, “순결교육을 위한 기초조사”, 중앙의학연구소 조사연구, 제38집, 1965.
- 심영희, 박선미, 김혜선, 백월순,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安順德 외 6인, 未婚母 實態에 관한 研究, 韓國女性開發院, 1984.
- 오육자,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이병태, 자동차 여성근로자 연구-안내원의 실태조사와 분석-, 전국자동차노동조합, 1975.
- 정성채, 여고생들의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조사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崔信德, 結婚과 家族,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68.
- 洪剛義 외 4인, 韓國靑少年의 保健問題와 對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 洪文植, 徐文姬, 未婚勤勞女性의 人口 및 性에 대한 知識·態度 調查研究,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4.
- Kinsey, Alfred C., Wardell B. Promeroy, and Clyde E. Martin,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 Philadelphia: W.B. Saunders, 1948.

Saxton, Lloyd, *The Individual, Marriage and the Family*,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0.

WHO, *Reproductive Health in Adolescence*, Position Paper, MCH, Division of Family Health, Geneva, Switzerland, 1986.

最近 韓國女性の 結婚行態

曹愛姐*, 孔世權**

1. 研究背景

結婚은 男女間の 結合을 뜻한다. 이러한 結合의 條件과 節次는 대개 社會制度 내지 規範의 틀을 따르고, 社會的 承認과 法的 保護를 받게 된다. 따라서 結婚은 異性間の 結合 그 자체로만 생각할 수 없다. 結婚으로 이루어지는 家族은 出産과 養育 및 敎育 등 再生産機能이 따르고, 成員間の 協力を 통한 共同生活과 삶의 價値를 創出하는 生活單位로 存續케 된다. 이러한 점에서 憲法은 婚姻과 이로 인한 家族生活이 個人的 尊嚴性和 兩性間の 平等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함을 基本理念으로 하고, 國家는 이를 保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李熙培, 1990).

그러나 家族生活에서 個人的 尊嚴性이나 平等이란 社會文化的 特性和 이에 관한 觀點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어 일종의 象徵的 理念에 불과할 수도 있다. 儒敎文化를 기초로 한 傳統婚은 個人的 尊嚴性 보다는 家門간의 結婚이라는 특징을 지녔으며 특히 女性은 制度나 規範의 틀에 의해서 家族이란 테두리안에 隸屬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은 近代婚에서도 그 結婚이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責任研究員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研究委員

아무리 당사자들 간의 合意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통관습이나 개인의 식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큰 차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家族生活은 成員特性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共同體가 存續하는데는 다양한 機能과 이에 따른 役割分擔, 그리고 秩序가 요구되는 가운데서 個人的 尊嚴性이나 平等만을 優先할 수 없기에 갈등의 소지가 되는 不平等 또는 不協化가 존재한다.

물론 家族葛藤은 어느 時代에서나, 어떤 家庭에서도 常存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韓國의 傳統家族은 이러한 葛藤의 表出을 대부분 制度나 規範의 틀로 規制해 왔다. 그러나 近代家族은 産業化와 함께 개인의 役割이 多樣化되고, 個人主義의 性向이 고취되면서 이러한 葛藤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敎育과 就業機會가 擴大되고 婚期가 늦춰지면서 相異한 成長過程에서 經驗과 意識을 달리하는 異性間의 結合은 서로의 理解와 協力이 없이는 和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近代婚은 外形的 晩婚이나 自律婚만으로 생각할 수 없고, 結婚制度의 絶對性도 相對性으로 변질되고 있어 個人들의 結婚行態는 또 다른 관심을 갖게되는 것이다.

이 論文은 韓國女性의 結婚에 대한 意識이나 樣態가 어떻게 변했고, 이것이 家族生活에 어떤 問題를 露呈할지에 關心을 두고 있다. 즉 敎育 및 就業機會가 擴大되고, 物質主義 및 個人主義가 澎湃되고 있는 가운데 家族形成에 기초가 되는 結婚行態가 어떻게 변했고, 그것이 어떤 意味를 지니는지를 論議하려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家族構造와 機能 및 役割이 변화되고, 이에 따른 價値觀마저 변하면서 離婚이나 別居 등 家族解體가 늘어나고(孔世權 外, 1990), 家族生活에 核心을 이루는 扶養機能 마저 瓦解되고 있음은 結婚에 대한 研究의 重要性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은 「韓國에서의 家族形成과 出產行態」(孔世權 外, 1992)에 관한 調查研究에서 “모든 남녀는 일정 연령에 달하면 반드시

結婚을 해야 한다”는 傳統觀念이 “개인사정에 따라서 選擇의 일 수 있다”는 意識으로 변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아직 많은 男女가 結婚을 肯定的으로 생각하고, 또 結婚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結婚에 대한 否定的인 意識의 증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結婚에 대한 否定的 意識이 結婚을 하느냐, 않느냐는 兩者擇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점은 結婚에 대한 否定的 意識이 離婚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따라서 近代婚은 특정의 制度나 規範의 側面만으로 생각하기 보다 個人들이 結婚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루며, 또 어떤 問題가 있는지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近代婚에서 강조되고 있는 自律性이 어떤 意味가 있고 또 무슨 問題가 뒤따르는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2. 研究資料 및 方法

本 研究은 1991年 韓國保健社會研究院에서 실시한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資料중 結婚行態에 관한 내용을 分析한 것이다. 同 調査는 全國을 대표할 수 있는 178개 調査區內의 모든 家口와 家口內의 15-49세 既婚婦人 및 18-34세 未婚者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중 11,540 家口와 7,462名の 既婚婦人 및 3,297名の 未婚者들에 대한 調査가 완료되었다. 調査內容은 家口調査의 경우는 家族의 構造的 特性和 生活實態를, 婦人調査의 경우는 婦人자신의 結婚과 出産行態 및 就業歷을, 그리고 未婚者調査의 경우는 結婚觀 및 性行態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이들 조사자료중 本 分析의 對象은 18-34세의 既婚婦人 3,681名과 未婚女性 1,514名으로 既婚婦人은 언제, 어떤 대상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結婚을 했고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으며, 또 結婚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未婚者에게는 結婚을 어떻게 생각하며, 언제 어떤 대상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結婚할 計劃인지를 검토하는데 기초를 둔 것이다.

3. 分析結果

가. 結婚與件의 變化

産業化는 社會·經濟構造의 變革 뿐만 아니라 個人的 役割과 價值觀, 그리고 生活樣式의 變化도 동반한다. 이러한 變化는 家族中心이었던 生産과 消費가 産業化에 따라 企業이 生産機能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家庭은 消費單位로 남게 된데서 시작된다. 따라서 家族成員중 經濟活動이 가능하면 就業을 하고, 就業으로 인한 經濟的 自立은 生活의 獨立으로 연결되어 이는 個人主義的 價值觀을 형성케 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는 다시 家族을 分化시키는데 영향을 주어 왔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就業에는 일정한 教育과 技術이 요구되면서 教育機會의 擴大는 就學이 居住地內에서 어려울때 역시 家族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分居形態로 나타나 産業化에서 就學과 就業은 家族分化의 主要要因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점 외에도 産業化는 保健醫療의 發展과 함께 生活水準의 向上으로 死亡率을 감소시켜 傳統的으로 多産行態를 유지하던 夫婦들은 多子女의 效用性 弱화를 의식케 되고, 出産調節이 가능케 되면서 적은 子女을 두려는 少産樣相이 家族分化와 함께 家族規模를 축소시키는데 영향을 주게 되었다. 따라서 産業化 初期에는 5-6명의 子女을 두던 夫婦는 최근 1-2명의 子女을 두게 됨으로써 이로 인한 養育負擔의 輕減이나 家事勞動의 減少는 女性의 就業率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어 왔던 것이다. 이처럼 就學이나 就業, 그리고 出産은 주로 個人的 價值觀, 役割 또는 生活樣式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要因이지만 結婚行態와도 無關할 수 없다. 그것은 生涯過程(life course)을 통해 거쳐야만 하는 요건들이기 때문이다(Goode, 1982).

韓國에서의 지난 30년간의 일부 社會 및 經濟指標의 變化를 간추려 보면 <表 1>과 같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産業化가 進展되면서 總 人口中 28퍼센트에 불과하던 都市人口는 최근에는 74퍼센트를 점유하게 되었고, 1次 産業은 2-3次 産業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女性들의 就學率과 就業率이 增加되었고 初婚年齡의 上昇도 병행되었다. 여기서 都市化와 就業形態, 그리고 教育水準 등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結婚과 밀접한 關係를 갖는다 (Goode, 1963; Weber, 1968). 그것은 産業社會에서 새로이 형성된 集團內의 結婚形態가 기존 家門間 結婚形態와는 또 다른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社會構造의 變化와 個人行態의 變化와의 關係는 相關요인간의 相互作用에 의한 것으로, 獨立的이거나 從屬的인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 婚前役割의 多樣化와 晩婚化

어느 社會나 마찬가지로 韓國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男女가 대부분

表 1. 一部 社會·經濟指標의 變化

지 표	1960	1970	1980	1990
도시인구 구성비(%)	28	41	57	74
1차산업 종사율(%)	66	51	34	20
여성의 고교취학율(%)	35	62	78	85
여성의 취업율(%)	25.1	37.2	40.5	46.2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세)	21.6	23.3	24.1	25.1
합계출산율	6.0	4.5	2.7	1.6
평균가구원수(명)	5.6	5.2	4.6	3.6
1세대가족 구성비(%)	7	7	15	24
3세대가족 구성비(%)	29	23	17	11

資料: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年度別 人口 및 住宅센서스 報告, 1963, 1972, 1982.

孔世權 外, 韓國에서의 家族形成과 出產行態,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2.

일정연령에 달하면 結婚을 한다. 즉 20대에서 성행되어 30세 이상은 90퍼센트 이상이 결혼을 한다. 그러나 30세 이전의 結婚率은 변화가 많다. 이는 최근에 이를 수록 婚期가 늦어져 20세 이전에 結婚하는 경우도 적지만, 20대 초반인 20-24세에서의 결혼은 1960년 전체 여성중 약 1/2였으나 최근에는 약 1/5로 감소했고, 남성의 경우도 약 13퍼센트에서 약 5퍼센트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未婚率에 의한 平均初婚年齡을 보면 1960년에 여자가 21.6세, 남자가 25.4세였던 것이 1990년에는 여자가 25.1세, 남자는 28.2세로 上昇되었다.

그렇다면 왜 初婚年齡이 上昇하는 것일까? 結婚이 社會·文化的 要件과 家庭事情, 그리고 個人的 뜻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이는 그 類型과 條件을 통해서도 살펴 볼 수 있다. 結婚類型은 傳統婚이 仲媒婚으로, 그리고 近代婚은 自律婚으로 특징을 지닌다. 仲媒婚은 家父長權이 강한 父系社會에서 성행되었던 것으로 結婚 當事者의 意見 보다는 兩家父母의 意見이 우선적이었으며, 따라서 仲媒婚은 대개가 家門이나 家庭事情을 고려하였다.

表 2. 性別, 年齡別 有配偶率 및 初婚年齡의 變化

유배우율 및 초혼연령	남자				여자			
	1960	1970	1980	1990	1960	1970	1980	1990
유배우율(%):								
15-19	0.7	0.2	0.2	0.8	2.4	1.9	1.7	0.5
20-24	12.7	6.3	6.8	3.4	49.9	42.0	33.7	19.2
25-29	61.4	52.9	54.4	42.5	91.8	84.1	84.9	77.6
30-34	93.6	90.8	91.8	85.3	92.4	92.5	94.3	92.5
평균초혼연령(세):	25.4	27.1	27.3	28.2	21.6	23.3	24.1	25.1

資料: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같은 책, 1963, 1972, 1982.

統計廳, 1990 人口住宅 總調査 速報, 2% 標本抽出集計結果, 1991.

그러나 近代에 이르러 개인의 自律性이 강조되면서 成婚過程은 대개가 校友關係나 職場關係 또는 社會的 모임을 통해서 당사자들끼리 結婚對象을 알게 되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親戚이나 親舊, 學校스승, 先輩, 또는 職場上士 등의 紹介로 알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만남은 반드시 결혼을 전제하는 것도 아니며 일정 교제기간을 거치다가 結婚意思가 있을때만 父母의 承諾을 얻거나, 또는 自意만으로 結婚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近代婚은 成婚過程의 多樣化로 이를 일정 類型으로 구분짓기 어렵고, 結婚의 自律性이 강조되지만 실제 自意에 의한 結婚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仲媒婚으로 이어져 仲媒婚이 오히려 晩婚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表 3 參照).

그러나 自律婚은 어디까지나 結婚 자체가 당사자들의 뜻에 의해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이러한 結婚은 여러가지 條件이 전제된다. 즉 自律婚은 家門(family in origin) 보다는 個人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結婚으로 이루는 家族生活(family in procreation)도 獨立性を 전제로 한다. 따라서 結婚條件은 대개가 結婚當事者들의 人性이나 外貌, 健康, 年齡, 敎育, 職業, 經濟基盤, 生活能力 또는 家族關係 등이 고려되며, 이러한 모든 條件이 마음에 드는 대상을 구하려 할때 婚期도 늦어지게 되는 條件婚으로 특징을 지

表 3. 結婚코호트別 結婚類型에 따른 平均初婚年齡

(단위:세)

초혼년도	부모결정			본인결정		
	중매	연애	계	중매	연애	계
1975-79	19.9	19.9	19.9	20.1	19.6	19.9
1980-84	22.4	22.6	22.4	22.5	22.0	22.4
1985-89	24.1	23.7	24.1	23.9	23.4	23.7
1990-91	24.8	24.3	24.7	24.4	24.1	24.3

닌다.

그러나 産業化와 함께 나타난 晩婚現象은 結婚類型이나 結婚條件에서 보다 婚前役割의 變化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義務教育制度의 導入, 教育期間의 延長, 軍服務의 義務化, 家外就業의 普遍化 등은 婚前役割의 變化를 가져다 준 主要 要因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就學이나 就業 등은 男性 뿐만 아니라 女性의 晩婚化에도 영향을 주어 高學歷과 좋은 職場은 주요 結婚條件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教育和 就業은 자신의 발전을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晩婚化에 영향을 주고 또 就業을 통한 經濟的 獨立은 結婚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晩婚化 現象은 각종 調查結果를 살펴볼 때 個人特性이나 家族特性, 그리고 婚前 住居環境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個人特性別로는 教育水準이 높을 수록, 婚前에 就業期間이 길 수록 晩婚化 現象은 현저하다. 家族關係上으로 보면 婚前에 父母와 同居한 경우 보다는 別居한 경우에, 兄弟가 많은 경우 보다는 적은 경우에 더 빨리 結婚하는 性向이 있고, 婚前居住地는 都市보다 農村에서 早婚의 성향이 더 크다(孔世權 外, 1990 ; 崔煥, 1989). 그러나 이러한 차이도 최근에 이를 수록 좁혀져 晩婚은 일종의 社會規範으로 수용되는 양상이다. 즉 남자는 28세를 前後해서, 그리고 여자는 25세를 前後해서 結婚을 하는 것이 좋다는 意見이 지배적이며, 실제 結婚은 이러한 年齡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孔世權 外, 1992).

다. 未婚率의 增加

대부분의 男女는 20대초에 未婚狀態를 유지하다가 20대 후반에 結婚을 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男女가 다 結婚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30대 초반 뿐만 아니라 30대 후반에도 獨身을 유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未婚率의 變化는 <表 4>에서도 볼 수 있듯이 1960년에 25-29세의 남자중 未婚率은

37.3퍼센트였으나 최근에는 57.3퍼센트로 증가했고, 35-39세는 0.9퍼센트가 3.9퍼센트로 증가했다. 즉 30세 이상 高齡層에서 未婚率은 1960년 農村에서 보다 都市에서 높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都市보다 農村에서 더 높아져 農村男性의 結婚難을 엿볼 수 있다.

女子의 未婚率도 1960년에 25-29세에서 4.9퍼센트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21.8퍼센트로 증가하고 30-34세도 0.6퍼센트가 5.6퍼센트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은 男子와는 달리 30세 이상에서 未婚率이 農村보다 都市에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해 그간 産業化에 따른 離農이 男子에서 보다는 女子중에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즉 都市據點의 製造業 分野에 모자라는 일손을 農

表 4. 性別, 年齡別 未婚率의 變化

(단위:%)

연령	남자				여자			
	1960	1970	1980	1990	1960	1970	1980	1990
전국:								
20-24	87.0	92.6	93.1	96.5	49.0	57.2	66.1	80.7
25-29	37.3	43.4	45.2	57.3	4.9	9.7	14.1	21.8
30-34	4.7	6.4	7.3	13.7	0.6	1.4	2.7	5.6
35-39	0.9	1.2	1.7	3.9	0.2	0.5	1.0	2.6
도시:								
20-24	93.5	93.5	93.2	96.2	65.4	62.6	68.6	81.2
25-29	51.4	46.6	45.2	56.4	10.4	13.7	15.8	22.3
30-34	7.8	8.3	7.3	12.8	1.2	2.3	3.3	5.5
35-39	1.2	1.5	1.7	3.5	0.3	0.8	1.2	2.8
농촌:								
20-24	85.5	91.7	92.8	97.3	41.5	50.8	60.4	78.1
25-29	31.6	40.0	45.3	60.5	2.3	5.4	10.4	19.6
30-34	3.2	4.7	7.2	17.7	0.3	0.7	1.6	3.9
35-39	0.8	0.9	1.9	5.5	0.1	0.2	0.6	1.8

資料: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같은 책, 1963, 1972, 1982.
統計廳, 같은 책, 1991.

村의 未婚女性으로 充當하였던 것이 地域間 結婚適齡層의 性比 不均衡을 초래해 농촌층각의 結婚難으로 나타난 것이다.

未婚率의 增加는 앞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産業化에 따른 婚前役割의 多樣化와 制度婚이 自律婚으로 바뀌어지는데서 惹起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결과로 婚期가 늦어지고 個人主義 意識이 고취되었다. 또 結婚條件이 多樣化되고, 이에 따라 마땅한 對象을 만날 수 없을 때에 獨身을 유지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獨身生活의 志向은 아직 일부 계층에 국한되고 있지만 특정 社會·宗教的인 理由에서 뿐만 아니라 産業化에 따라 ① 就業을 통한 經濟的 獨立이 가능하고, ② 生活의 便宜化로 獨身生活에 불편이 감소되고, 또 ③ 남의 간섭을 싫어하는 個人主義的 思考가 獨身率을 늘어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따라서 結婚適齡期에서 婚姻成立은 個人意思와 結婚與件¹⁾ 間的 關係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즉 ① 結婚을 할 意思가 있고, 結婚與件도 갖추어진 경우, ② 結婚을 할 意思는 있으나 結婚與件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③ 結婚與件은 갖추어졌으나 結婚할 意思가 없는 경우, 그리고 ④ 結婚할 意思도 없고, 結婚與件도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概念的 類型에서 結婚意思와 與件이 可變性을 지니게 되고, 또 社會環境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이의 絕對性은 보장되기 어렵다.

本 研究에서 이용한 未婚者의 結婚觀에 대한 자료는 “結婚은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점을 고려할때 귀하는 앞으로 몇살에 결혼을 할 계획입니까?”라는 質問形態와, 또 結婚條件에 관한 자료는 “아직 結婚을 않고 있는 理由는 무엇입니까?”, “獨身生活이나 結婚生活에서

1) 結婚與件은 社會·經濟的 與件, 즉 남자의 경우는 經濟的 自立이나 家庭 또는 個人事情, 마땅한 配偶者를 만나지 못한 경우, 그리고 身體的 缺陷으로 結婚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長短點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質問을 통해 수집되었다. 調査結果에서 女子의 平均初婚年齡이 약 25세인 점을 감안해 25-34세에 해당하는 未婚女性 226명으로부터 얻어낸 向後 結婚計劃과 未婚理由를 交叉시킨 結果는 다음 <圖 1>과 같다.

이 交叉分析에서 未婚女性의 向後 結婚計劃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7.2퍼센트(84명)이었고, 結婚計劃과 未婚理由를 밝힌 응답자는 62.8퍼센트(142명)이었다. 여기서 結婚計劃과 未婚理由를 밝힌 25-34세 未婚女性중 앞으로 結婚할 計劃을 가진 응답자는 약 85퍼센트였으며, 결혼을 안하겠다는 응답자는 약 15퍼센트로 나타났다. 또 未婚理由는 結婚與件(家庭事情, 職場問題, 經濟事情 또는 對象者가 없어서 등) 때문에 結婚을 안고 있는 경우가 72.5퍼센트였고, 結婚할 생각이 없어서 라고 응답한 경우가 27.5퍼센트였다. 이 두가지 要件을 交叉시켜 볼때 結婚할 意思와 與件이 갖추어진 경우는 약 70퍼센트, 結婚할 意思도 없고 與件도 갖추어지지 않은

圖 1. 結婚適齡期(25-34歲)에서 未婚狀態의 類型

		向後 結婚意思		
		하겠다(+)	안하겠다(-)	
未婚理由	結婚與件 (+)	70.4 % (a : + +)	2.1 % (b : - +)	72.5%
	結婚不願 (-)	14.8 % (c : + -)	12.7 % (d : - -)	27.5%
		85.2%	14.8%	100.0%

註: 여기서 a는 결혼할 생각과 결혼여건이 가능한 경우로 생각할 수 있으며, b는 결혼할 생각이 있지만 학업이나 직장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결혼자체를 미루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c는 결혼여건은 가능하나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경우이며 d는 결혼할 생각도 없고 결혼을 할 여건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경우는 약 13퍼센트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최근에 이룰수록 미혼여성중 獨身志向率이 增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할때 아직 그렇게 높은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 즉 전체여성중 25-29세에서의 未婚率은 19.4퍼센트이며, 30-34세에서의 未婚率은 3.0퍼센트로 25-34세에서 11.1퍼센트에 이른다. 이들 중 結婚意思를 밝히지 않는 대상(37%)이 앞으로 모두 結婚을 하게 된다고 가정할 때 25-34세 여성중 獨身率은 약 1퍼센트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未婚男性들은 대부분 結婚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結婚不均衡(marital squeeze) 現象도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러한 晩婚과 獨身志向은 出産力 低下에는 肯定的 影響을 주지만 婚期가 늦어지면서 性的 欲求가 강한 時期를 獨身으로 지낼때 婚前 性問題도 增加됨을 의심치 않게 된다. 또한 이들 獨身者들이 經濟活動이 가능할때는 생활에 큰 문제가 없지만 老後에 依存的일 때는 社會扶養策도 요구된다.

라. 結婚에 대한 觀念

韓國은 지난 半世紀間의 급속한 産業化 過程을 거치면서 個人役割이 多樣化되고 個人主義的 思考가 팽배하여 結婚觀念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모든 男女가 일정 年齡에 이르면 結婚을 해야 한다는 傳統的 意識은 個人事情이나 家庭形便, 또는 社會與件 등에 따라 選擇的일 수 있다는 意識으로 변화되었다. 여기서 選擇的이라는 意味는 個人的 뜻에 따라서 獨身으로 남을 수도 있고, 또 結婚을 할 경우는 對象과 條件은 물론 家庭生活까지도 個人的 뜻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近代婚은 個人들이 結婚을 어떻게 생각하고, 언제, 어떤 對象과 結婚을 원하며, 또 結婚으로 이루는 家庭生活은 어떤 형태를 원하는지, 또 結婚을 원치 않는다면 왜 그러한지는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어느 시대에서나 結婚은 일정한 社會制度로서 要件을 전제로 한다. 傳統婚이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졌을때 個人의 自律性은 제한되기도 했지만 近代婚은 특정 形式的 要件을 제외하고는 個人에게 최대한의 自律性이 保障되고 있다. 個人은 각자의 特性과 처한 與件, 그리고 意識이 같을 수 없듯이 結婚을 생각하는 觀點도 다를 수 밖에 없다. 최근 調查結果에 의하면 既婚婦人(18-34세)중 “結婚은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한다”는 肯定的 意見이 약 24퍼센트인 반면, “안하는 것이 좋다”는 否定的 意見도 약 4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孔世權 外, 1992).

또한 未婚女性(18-34세)의 경우에는 “結婚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肯定的 意見이 약 17퍼센트였고, “안하는 것이 좋다”는 否定的 意見은 약 5퍼센트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未婚男性(18-34세)은 “結婚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表 5. 結婚의 必要性에 대한 一般的 意識

(단위: %)

특성	반드시 해야 한다			안하는 것이 좋다		
	기혼부인	미혼여성	미혼남성	기혼부인	미혼여성	미혼남성
전체:	23.6	16.6	40.2	4.3	4.7	1.6
연령:						
18-24	23.2	16.3	39.5	(2.6)	4.1	1.3
25-29	21.9	19.3	41.4	3.7	7.1	2.6
30-34	25.1	(10.0)	43.2	5.2	(13.3)	(0.8)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26.9	22.4	51.5	5.6	(8.6)	(2.6)
고등학교	22.5	19.4	40.0	4.1	5.2	1.6
대학교이상	19.9	11.2	37.3	(1.8)	3.4	1.4
취업여부:						
미취업	22.2	21.3	33.7	4.2	7.8	(1.5)
취업중	27.1	16.6	46.1	4.5	3.8	1.7
학생	(25.3)	12.6	36.1	-	4.6	(1.6)

註: ()는 표본수 10미만임.

의견이 약 40퍼센트, “안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약 2퍼센트로 肯定的인 경향이 높았다. 물론 이러한 結果는 “結婚은 누구나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客觀的 質問形態로 얻어진 것이지만 남자보다는 여자가, 그리고 여자중에서도 既婚者보다는 未婚者에서 否定的 意見이 높음을 볼 수 있다(表 5 參照).

그렇다면 結婚을 肯定的 또는 否定的으로 생각하게 되는 要因은 무엇일까? 스테인(Stein, 1988)은 結婚을 하게 하거나 또는 獨身으로 남게 하는 要因을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있다. 즉 結婚은 獨身生活에 대한 특별한 代案이 없고 獨身生活에서의 長點보다는 慣例에 의한 結婚生活에서의 長點을

表 6. 結婚 및 獨身の 選擇要因

결 혼	독 신
<u>현실의 부정적인 요인</u> - 부모의 압력 - 집을 떠나고 싶은 욕구 - 독신의 두려움 - 고립 및 고독감 - 선택적 대안미비 - 독신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별	<u>기존관례에 대한 회피요인</u> - 고립 또는 고독감이 없음 - 새로운 경험에 대한 제약 - 단순한 부부관계의 싫증 - 개인발전에 대한 제약 - 부부생활의 권태성
<u>잠재적인 기대요인</u> - 사랑 또는 정서적 애착 - 부모의 인정 - 독립된 가족형성 욕구 - 성생활의 사회적 공인 - 직장 및 가정생활의 안정 - 기혼자에 대한 사회제도적 유의성	<u>독신유지 및 지속요인</u> - 성공의 기회와 발전 - 다양한 성격형 기회 - 생활의 자율성과 다양한 경험 - 심리적 또는 사회적 자기만족 - 사회제도적 유의성 - 친구 및 사회관계의 자율적 유지

資料: Peter J. Stein, "Understanding Single Adulthood", *Current Issues in Marriage and the Famil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988 에서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選好할때 이루어지며, 獨身은 結婚生活에 대한 必要性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結婚生活에서의 短點이 獨身生活에서의 長點으로 생각될 때 獨身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分析結果에서 未婚者들이 結婚 및 獨身生活의 長點으로 높이 평가한 것을 살펴보면 結婚生活은 情緒的 安定이나 幸福한 生活, 그리고 生活의 便宜性을 지적한 반면 獨身生活은 개인의 自律性을 높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結婚生活이나 獨身生活을 생각하는 觀點은 남녀간에 차이를 보여주는데 남자들은 結婚生活의 長點으로 情緒的 安定을 제일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반면 여자들은 사랑과 幸福을 제일 높이 評價하고 있다. 또 獨身生活의 長點에 있어서도 남자들은 生活 및 行動의 自由, 扶養責任이 없다는 점이나 폭넓은 異性關係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지만 여자들은 個人 또는 社會生活에서의 自律性에 관심을 갖고 있다. 즉 結婚生活은 安定性을 얻을 수 있지만 自律性은 잃게 되고, 獨身生活은 自律性을 얻을 수는 있지만 安定性을 잃게 되는 점에서 結婚의 長短點을 論議할 수 있겠다.

마. 結婚의 自律化

傳統婚이 家門間 또는 이웃간의 仲媒婚으로 特徵(李光奎, 1990)을 지닌다면 近代婚은 대부분 學校나 職場, 또는 社會的 모임을 통해 결혼대상을 알게 되고, 어느 정도의 交際期間을 거친 후 結婚意思가 있을때 父母에게 同意를 구하거나 또는 結婚 當事者의 자의에 의해 結婚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家門間이나 또는 地域間的 通婚圈은 學校나 職場등의 社會階層으로 변했고, 結婚決定 역시 부모중심에서 結婚 當事者 中心으로 변하면서 自律婚이 성행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점은 既婚婦人(18-34세)들의 經驗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즉 既婚婦人의 結婚類型은 1979년까지만 해도 仲媒婚이 약 75퍼센트를 차지했

으나 1990-1991년 結婚코호트는 약 58퍼센트로 감소하고 약 42퍼센트가 戀愛婚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結婚決定은 1975-79년 結婚코호트에서 전적으로 父母에 의한 決定(5.3%)과 父母가 결정한후 結婚當事者の 同意를 구해 이루어진 경우(28.7%)가 34퍼센트였으나 1990-1991년 結婚코호트는 전적으로 結婚當事者에 의한 決定(14.5%)과 結婚當事者가 決定한후 父母의 동의를 구해서 이루어진 경우(75.1%)가 89.6퍼센트로 최근에 이를 수록 結婚은 結婚當事者の 뜻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의 仲媒와 戀愛도 傳統婚에서와 같을 수 없다. 傳統婚이 전적인 仲媒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近代婚은 仲媒와 戀愛를 절충한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점은 35세미만 여성의 結婚因緣 및 結婚決定에서도 一貫性을 지니지 않고 있는 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즉 結婚對象을 알게된 계기야 어떻든 結婚決定은 自意에 의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表 7. 未婚者(18-34세)들이 생각하는 結婚 및 獨身生活의 長點

(단위:%)

결혼 및 독신생활의 장점	남자	여자
결혼생활: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음	41	36
사랑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음	32	40
부부간 협력으로 생활이 편리함	13	10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9	10
부모의 뜻에 부응할 수 있음	2	1
기타 장점	3	3
독신생활:		
생활 및 행동에서의 자유	56	61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의 자율성	18	29
경제적인 부담책임이 없음	10	2
폭넓은 이성관계를 가질 수 있음	6	3
부모와 계속 동거할 수 있음	2	2
기타 장점	8	2

表 8. 既婚婦人(18-34세)의 結婚코호트別 結婚因緣 및 結婚決定

(단위: %)

결혼 코호트	결혼인연		결혼결정			
	중매	연애	전적으로 부모결정	선부모결정 후본인동의	선본인결정 후부모동의	전적으로 본인결정
1975-79	74.6	25.4	5.3	28.7	53.7	12.3
1980-84	68.8	31.2	2.8	21.0	61.8	14.4
1985-89	63.8	36.2	1.8	13.8	70.7	13.7
1990-91	58.3	41.7	1.2	9.2	75.1	14.5

〈表 9〉에서 제시한 結婚因緣 및 結婚決定은 既婚女性의 경우 자신의 經驗을 토대로 한 내용이고, 未婚女性은 본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한 것이다. 먼저 既婚婦人이 配偶者를 알게된 因緣은 家族이 아닌 學校나 職場 및 社會的 모임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안 경우가 27.7퍼센트인 반면 未婚女性은 63.1퍼센트가 家族의 紹介보다는 본인 스스로 配偶者를 알게 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이와 같은 結婚因緣에 대한 自律性的의 選好는 기혼부인이나 미혼여성 모두 젊은 층일 수록, 教育水準이 높을 수록, 그리고 學生이나 職場을 가진 경우일 수록 지배적이고, 이는 結婚決定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結婚은 자신을 위한 것으로 父母의 意見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 그 決定은 어디까지나 自意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근 젊은 女性들이 配偶者 選擇의 主要 要件으로 생각하는 것은 첫번째로 性格을 들고 다음은 健康과 職業을 들고 있다. 즉 既婚女性들이 남편감의 選擇條件으로 중요시 하는 것은 性格과 健康, 그리고 職業 등이었고, 이러한 점은 未婚女性도 크게 다를 바 없으나 未婚女性은 性格에 대한 비중이 보다 높다. 그러나 既婚女性이 생각하는 子女들의 配偶者 選擇條件으로

表 9. 18-34歲 女性의 結婚與否別 本人에 의한 結婚因緣 및 結婚決定

(단위: %)

특성	본인에 의한 결혼인연*		본인에 의한 결혼결정	
	기혼	미혼	기혼	미혼
전체:	27.7	63.1	71.0	89.9
연령:				
18-19	48.8	68.3	100.0	87.7
20-24	40.7	63.7	90.7	91.8
25-29	28.0	49.4	83.9	89.4
30-34	24.8	58.6	76.5	73.3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26.2	59.3	71.7	74.6
고등학교	27.3	58.9	84.5	87.2
대학교이상	33.7	69.9	89.8	95.4
취업여부:				
비취업	27.3	53.1	81.0	85.9
취업중	28.7	60.9	80.8	89.1
학생	-	74.1	-	94.1

* 학교, 직장, 씨클, 교회등에서 만난 경우임.

表 10. 18-34歲 女性이 생각하는 配偶者 選擇條件의 主要内容

순위	남편감		자녀들의 배우자감*	
	기혼	미혼	며느리감	사위감
1	성격(46.3)	성격(53.5)	성격(62.9)	성격(44.7)
2	건강(22.5)	건강(18.4)	건강(18.9)	직업(19.3)
3	직업(21.8)	직업(15.0)	가문(12.1)	건강(19.0)
4	경제수준(5.2)	경제수준(5.4)	학벌(1.3)	가문(6.6)
5	가문(1.6)	학벌(1.4)	외모(1.1)	경제수준(6.5)
6	학벌(1.0)	가문(0.6)	직업(1.0)	학벌(1.9)
7	외모(0.2)	외모(0.3)	경제수준(0.7)	외모(0.2)

* 기혼부인들이 생각하는 자녀의 배우자 선택조건.

註: ()는 % 임.

는 性格 이외에 머느리감은 健康이나 家門을 중시하는 반면 사위감은 職業이나 健康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配偶者의 選擇要件은 최근 結婚이 특정 社會·經濟的 要件보다는 個人的 要件을 중요시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近代婚은 몇가지 短篇的인 統計를 기초로 할때도 自律的이고 選擇的인 面을 엿볼 수 있다.

4. 要約 및 結論

社會·經濟的 與件이 변하면 結婚樣相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특히 韓國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産業化·都市化 過程에서 教育水準 向上과 就業機會擴大와 같은 婚前役割의 多樣化로 晩婚現象(Bumpass, 1969)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 結婚年齡이 늦어진 만큼 經濟的 自立과 個人意識이 고취되면서 家庭과 社會에서 從屬的 位置에 있기 보다는 能動的으로 자신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個人主義의 澎湃는 과연 結婚을 하는 것이 좋을지, 結婚을 원한다면 언제 어떤 配偶者와 結婚을 해야 할지 등과 같은 結婚에 대한 意識이나 行態에도 많은 影響을 주어 왔다는 것이다.

물론 結婚은 어느 社會에서나 社會慣行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自意에 의한 것이나 아니면 他意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 意味는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은 結婚을 性生活의 正當化나 公認化를 위한 社會契約으로만 생각할 수 없고, 夫婦間의 幸福한 生活을 전제로 한다고 볼 때 幸福의 條件은 자신에 의해서 選擇되어야 하고, 또 자신들의 努力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傳統社會에서는 누구나 일정한 年齡에 달하면 반드시 結婚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고, 또 配偶者의 選擇과 結婚決定도 대개는 父母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 마치 傳統婚이 일종의 制度婚으로 특

징을 지녔다면 近代婚은 個人事情이나 家庭形便 또는 社會與件에 따라서 結婚을 안할 수도 있고, 結婚을 원할 경우는 그 時期와 對象을 自意에 의해 결정하는 自律婚으로서 특징을 지닌다고 하겠다(Goode, 1982). 즉 結婚의 制度的 絶對性은 個人 뜻에 의한 相對性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研究는 1991년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이 실시한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資料를 기초로 최근 結婚行態의 變化를 分析한 것이다. 同 調査는 既婚婦人(15-49세)에 대한 結婚 및 出産實態와 未婚男女(18-34세)의 結婚 및 家族에 관한 態度를 조사한 것으로써 이들 資料를 중심으로 18-34세의 既婚 및 未婚女性들이 結婚을 어떻게 생각하고, 언제, 어떤 대상과 結婚을 했거나 結婚을 원하는지를 檢討하였다.

먼저 최근 結婚은 敎育 및 就業機會의 擴大등 婚前役割이 多樣化되면서 晩婚趨勢를 나타내어 未婚率에 의한 女性들의 平均初婚年齡은 1960년에 21.6세가 1990년에 25.1세로 上昇되었고, 같은 期間에 男性들의 平均初婚年齡도 25.4세가 28.2세로 上昇되었다. 이처럼 婚期の 遲延은 20대에서 뿐만 아니라 30대 초기에서도 未婚率을 增加시켜 전체여성중 30-34세에서의 未婚率은 1960년에 0.6퍼센트가 1990년에 5.6퍼센트로, 그리고 35-39세에서도 1960년에 0.2퍼센트가 1990년에 2.6퍼센트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結婚適齡期인 25-34세에서의 未婚率은 1990년에 약 14퍼센트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未婚者의 向後 結婚意思와 結婚計劃을 檢討한 結果 앞으로 結婚할 意思와 計劃을 갖고 있는 대상은 70.4퍼센트이며, 結婚할 意思도 없고, 計劃도 갖지 않은 대상은 12.7퍼센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未婚者들은 일반적으로 結婚 및 獨身에서의 長點을 結婚은 情緒的 安定과 사랑 및 幸福追求에서, 또 獨身은 個人 및 社會活動의 自律性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男女는 結婚을 肯定的으로 생각하고, 또 結婚을 하며, 그러한 慣行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을 의심치는 않는다.

다만 結婚을 얹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며, 이러한 경향이 남자들 보다는 여자들 가운데서 현저할때 結婚의 不均衡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최근 女性의 離農現象이 컸던 점과 女性들이 農事짓는 男性을 選好하지 않는 경향이 結婚의 不均衡을 초래하듯이 女性이 結婚을 안하려는 경향은 대부분의 家庭生活이 傳統慣習에 의해 유지되면서 個人의 自律性和 幸福을 보장받기 어려울때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성향이 앞으로 結婚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되며, 이로 인하여 생기는 獨身者에 대한 社會的 保護策도 講究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結婚의 自律性은 成婚過程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傳統婚이 早婚으로서 父母의 뜻에 의한 仲媒婚이 그 특징이라면 近代婚은 晚婚으로서 本人의 뜻에 의한 自律婚이 그 특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男女는 結婚對象을 學校나 職場, 또는 社會的 모임을 통해 알게 되고, 일정한 交際期間을 통해서 自意에 의해 結婚을 決定하며, 父母에게 同意를 구하는 형태가 지배적이다. 또 結婚與件은 家門이나 社會·經濟的 基準보다 性格이나 健康 또는 職業 등의 結婚當事者 개인적인 것에 基準을 두고, 그러한 基準이 結婚生活에 和合과 安定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

이처럼 近代婚은 個人事情이나 家庭形便 또는 社會與件에 따라서 獨身을 유지할 수도 있고 結婚을 할 경우는 個人의 뜻에 따라 家族보다는 個人을 滿足시킬 수 있는 條件을 원하고 있다. 여기서 結婚에 대한 否定的 意識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높아 이러한 점이 家族制度和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생각해 되며, 女性獨身率이 계속 增加될 때 結婚體系의 不均衡은 물론 獨身者에 대한 社會的 保護策도 불가피해진다. 또 結婚의 自律性은 離婚의 自律性과도 連繫되어 離婚率 增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 論文은 최근의 結婚行態를 論하면서 結婚의 自律性에 責任이 전제되어

야 함을 생각해 한다. 모든 結婚이 사랑을 전제로 하고 그러한 사랑이 理性보다는 感性에 비중이 높은 것이지만 結婚은 분명히 男女間의 合意에 의한 共同體의 形成을 뜻한다. 물론 이러한 共同體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고, 또 이의 存續을 위해서는 서로간에 부단한 努力과 協力이 필요함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參考文獻

- 孔世權 外, 韓國家族의 機能과 役割變化,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0.
- 孔世權, 曹愛姐, 金勝權, 孫聖姬, 韓國에서의 家族形成과 出產行態,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2.
- 金柔敬, “結婚率 및 初婚年齡의 變動과 展望”, 우리나라 人口變動의 分析,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0.
- 李光奎, 韓國의 家族과 宗族, 民音社, 1990.
- 李熙培, “戶主制度 改革의 理念的 論據와 그 修正內容”, 改正家族法과 韓國社會, 韓國女性開發院·韓國家族法學會, 1990.
- 崔煥, “初婚年齡 및 結婚行態의 變動”, 韓國의 出產力 變動과 家族計劃 事業方向,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1960 人口 및 住宅센서스 報告, 1963.
- _____, 1970 人口 및 住宅센서스 報告, 1972.
- _____, 1980 人口 및 住宅센서스 報告, 1982.
- 統計廳, 1990 人口住宅 總調查 速報, 2% 標本抽出 集計結果, 1991.
- 厚生省人口問題研究所, 獨身青少年의 結婚觀と 子供觀, 東京, 1989.
- Bumpass, Larry, L., “Age at Marriage as a Variable in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Fertility”, *Demography*, Vol.6 No.1, 1969.
- Stein, Peter J., “Understanding Single Adulthood”, *Current Issues in Marriage and the Famil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988.
- Goode, William, J., *The World Revolution and the Family Patterns*, New York, Free Press, 1963.
- _____, *The Family*, 2nd edi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2.
- Weber, Max, *Economy and Society*, ed. b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en, New York, Bedminster, 1968.
- The Alan Guttmacher Institute, “Changing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Single Life”,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Vol.14 No.6, Nov./Dec., 1982.

婦人の子女觀 決定要因에 관한 研究

徐文姬 *

1. 研究의 背景

어떤 對象이나 現象에 대한 개인의 態度 및 보다 內面化된 태도인 價値는 그 개인의 成長과 함께 형성된 전체적 價値體系의 一部로 持續性을 지니며 항상 行動으로 나타날 可能性을 지닌다. 개인의 子女 관련 價値나 態度도 그 개인의 全體的 態度體系의 一部로서 개인의 자녀 관련 行爲에 影響을 미친다.

그동안 우리의 자녀 가치관이나 태도에 관한 研究는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少子女 보다는 多子女를 選好하며 딸보다는 아들을 더 원한다는 전제에서 이같은 傳統的 태도가 政府 家族計劃事業과 더불어 어떻게 變化하는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多子女와 男兒選好 思想이 국가 정책 목표인 出産力 減少의 障礙要因이 되므로 出生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같은 態度變化가 先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피임사용이 쉬워지고 피임실천율이 높아질수록 出産率 決定에는 생물학적 요인보다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되는데, 출산이라는 행위의 下部構造인 子女관련 態度나 價値의 變化나 새로운 태도의 形成이 出生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같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責任研究員

은 시각은 Freedman의 出産力 決定 模型理論(Freedman, 1975)에 잘 나타나 있다.

실제로 자녀 관련 價値나 態度가 실제 出産力에 影響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로는 Foreit와 Suh가 經路 分析法을 사용하여 추가자녀 出産 決定要因에 자녀 관련 태도를 포함하여 이를 증명하였고(Foreit et al., 1980), 臺灣 연구(Freedman et al., 1975) 및 인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Vlassof, 1990)에서도 이상자녀수 등 출산 관련 태도가 실제 出産 行爲에 影響을 미침이 증명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男兒選好 態度의 比重이 매우 커서 출산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88년도 출산력 조사자료 분석결과 총 性比는 110.2이고 특히 두자녀일때 다음 출산으로의 進行率이 둘다 男兒이면 34.4퍼센트에 불과하나 1男1女면 43.7퍼센트이고 둘다 딸이면 67.8퍼센트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李奎植 外 1989). 이같은 傾向은 1985년도 출산력 자료분석(李興卓, 1987)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아들이 없는 경우에 다음 高出産順位로 기꺼이 진행하므로 결국 최종 家族規模가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강한 아들 선호태도 뒷면에는 戶籍相續의 傳統과 더불어 강한 家系繼承 慾求가 있다. 家族에 대한 概念 調査에서 미국·일본·영국·서독 등이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항목을 선택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데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48.4퍼센트가 같은 피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임을 선택하였고(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3),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로 42.2퍼센트가 家系の 繼承을 들었다(孔世權 外, 1992).

出産行爲에 影響을 주는 이와같은 자녀관련 態度 및 價値는 일반적으로 社會經濟的 要因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동시에 자녀수를 포함한 人口學的 要因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특히 아들 선호태도는 아들이 있는 부인과 없는 부인이 큰 차이를 보여서, 1991년도 출산력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들이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없어도 무관하다는 응답이 아들이 없는 경우는 44.9퍼센트이고 아들이 하나일 때와 둘일 때가 각각 24.3퍼센트, 21.3퍼센트였다.(孔世權 外, 1992) 이는 출산 관련 態度가 出產行爲에 影響을 미치는 동시에 出產結果도 態度形成에 影響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態度가 固有價值를 表現하는 機能(value-expression)을 갖는 동시에 自我尊重感(self-esteem)을 보호해주고 自己防禦하는 機能(self-defence)도 갖고 있는 것이다(Triandis, 1971).

人口學分野에서는 이와같이 출산관련태도가 출산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온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出產과 家族計劃 관련 行爲및 態度와 社會心理學的 要因과의 관계를 밝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정범모 등이 一般的 價值 오리엔테이션, 近代化, 1次 集團등 주변환경이 주는 心理的 壓迫에 대한 認識과 같은 社會心理 要因이 子女數와 性 選好 態度 그리고 출산 行爲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Chung et al., 1972). 또한 사회심리적 요인 중에서도 일반적인 子女價值觀을 밝혀 이를 子女 出產態度 및 行爲와 연결시키려는 연구가 있었다. 일반적 자녀관은 Hoffman으로 시작되어 여기에 子女 出產 측면을 보강한 Fawcett理論, 자녀관을 段階的으로 分類한 Berelson理論, 經濟的 效率性을 강조한 Schultz理論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行動科學研究所를 중심으로 韓國型 子女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金正晝, 1973). 한편 Hoffman과 Manis는 자녀를 가짐으로써 얻을수 있는 心理的 滿足感和 출산태도의 하나인 理想子女數와의 關係를 파악하고자 했는데 여기서의 心理的 滿足感이란 夫婦關係를 포함한 1次 集團과의 關係, 自我의 擴大感, 經濟的 有用性, 成人으로서의 社會的 確認感 등으로 정의하였다(Hoffman et al., 1979). 또한 Neal 등은 자녀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贊, 反, 無關心, 反對感情 竝存으로 類型化하고 이를 社會와 家庭의 結束關係로 설명코자 한바, 夫婦의 不和를 포함한 疎外感

이 자녀에 대한 평가에 否定的으로 작용하며 就業慾求를 포함한 社會的 統合性이 자녀에 대해 肯定的인 態度를 갖는데 영향을 준다고 발표하였다 (Neal et al., 1989).

본 연구는 이와 같은 背景에서 부인의 자녀에 대한 態度를 최소의 社會 單位인 家庭 내의 夫-婦-子女의 3者間 相互作用 속에서 형성되는 關係의 一部로 파악하고 부인의 社會·人口學的 變數 및 부인이 認識한 男便 및 子女와의 家族心理關係를 통하여 부인이 자녀에 대하여 갖고 있는 態度를 설명함으로서, 자녀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子女 關聯 態度에 대한 理解의 폭을 넓혀보고자 하였다.

2. 研究目的

研究의 具體的 目的은 먼저 婦人の 老後 子女同居 希望態度에 社會人口學的 要因 및 家族關係 變數가 直接 또는 間接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 社會人口學的 要因과 家族關係 變數, 그리고 老後の 同居 希望態度가 부인의 자녀의 數와 性 選好 態度 그리고 子女 結婚에 대한 關與態度에 直接·間接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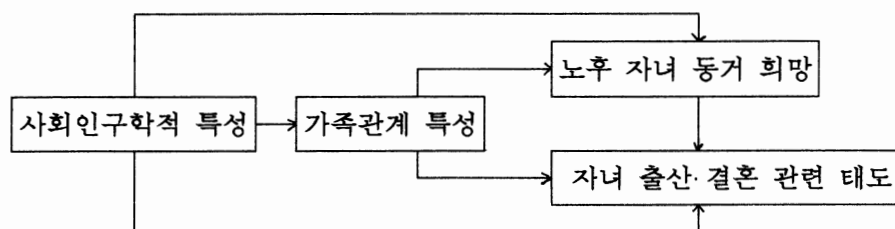
3. 研究方法

가. 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틀은 <圖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婦人の 社會·人口學的 變數들을 先行 變數로 설정하고 家族내 夫-婦-子女의 心理的 關係 變數를 媒介變數로 설정하였으며 從屬變數인 子女觀으로서는 老後の 子女同居 希望 및 子女 出産과 子女 結婚에의 關聯 態度를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 노후의

자녀동거 희망여부는 從屬變數인 동시에 자녀출산과 자녀결혼에의 관련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놓았다. 社會·人口學的 變數가 家族關係에 影響을 주며 이것이 다시 老後同居 希望與否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 변수 모두가 자녀의 必要性, 子女數 및 性 選好態度 및 子女 結婚에의 關與態度에 影響을 준다는 가정에서 그 說明 與否 및 程度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圖 1. 분석을 위한 개념틀



나. 變數 選定 및 定義

婦人의 社會·人口學的 變數들로서 居住地, 年齡, 敎育期間, 宗教, 就業狀態, 家族形態, 男便의 兄弟順位, 男便職業, 現存子女數와 現存 아들 所有與否의 10개 變數를 선정하였다. 이들 변수중에서 年齡, 敎育期間과 現存子女數는 間隔 尺度 變數로서 사용되었고, 그 나머지는 名目 變數로서 1,0의 기호로 처리하였다. 居住地는 都市 1, 農村 0으로 주고, 宗教는 基督教과 天主教를 1로 주고 나머지는 0으로 처리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나 천주교가 西洋에서 由來한 종교이고 또한 이들 종교의 宗教儀式 參與機會가 비교적 다른 종교보다 規則적이고 자주라는 점에서 다른 종교와 區別하여 보곤 하였다. 就業狀態는 就業中이 1, 기타가 0 이고, 家族形態는 1,2世代 家族에 1, 그 나머지에 0 코드를 주었다. 男便 兄弟 順位는 戶籍相續의 傳統이란 측면에서 長男과 외동아들에 1을 주고 次男은 0으로 처리했다. 男便의

職業은 技術·專門·行政·事務職을 1로 처리하고 그 나머지를 0으로 하였으며, 끝으로 아들은 아들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하였다.

家族關係 特性을 반영하는 變數로는 夫婦間의 對話指數, 夫婦關係의 相對的 重要性, 그리고 婦人의 代理成就 期待感의 3가지 變數를 선정하였다. 부부의 대화지수는 夫婦間의 對話 程度와 그 滿足을 나타내는 5점짜리 척도의 質問 5個를 사용하여(孔世權 外, 1992) 그 應答點數를 모두 합해서 指數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指數는 5-25點 사이에 分布한다. 夫婦關係의 相對的 重要性 變數는 '父母와 子息의 관계가 夫婦關係보다 重要하다'는 문항을 그렇다-그렇지않다의 5점 척도로 조사한 것이다. 代理成就 期待感은 '女子의 幸福은 男便을 出世시키고, 子女를 成功시키는 것에 달려있다'는 문항에 대한 그렇지 않다-그렇다의 5점 척도의 조사결과이다.

子女觀을 나타내는 변수는 크게 老後 同居 希望與否, 자녀 性 및 數 選好 態度, 子女의 結婚에의 關與態度가 선정되었다. 老後 同居 希望與否는 從屬 變數인 동시에 자녀 性 및 수 선호태도와 결혼 관여태도 분석에서는 獨立 變數에 포함하였는데 '아주머니께서는 노후에 자녀와 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따로 살고 싶으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같이 살고 싶다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二分化 하였다. 자녀수 및 성 선호태도는 子女 必要性, 理想子女數, 한자녀 選好態度, 理想子女 性區別 態度, 아들 必要性의 5가지 변수가 선정되었다. 子女 必要性은 '아주머니께서는 부부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그렇다를 1로 그 나머지를 0으로 처리하였고 理想子女數는 2를 기준으로 그 以下를 少子女 선호로 보고 1로, 3이상을 0으로 놓았다. 한자녀 選好態度도 하나도 괜찮다는 응답을 1로, 그 나머지를 0으로 주었고 理想子女의 性을 區別하겠는가라는 태도는 區別하겠다를 1로, 그 나머지를 0으로 하였으며, 아들 必要性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을 1로, 그 나머지를 0으로 二分化하였다.

子女의 結婚에 대한 關與態度는 '자녀의 배우자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5가지 보기를 주어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본 분석에서는 父母決定 爲主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父母決定 爲主이면 1로 주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자녀가 선택한 배우자에 대한 父母의 拒否權도 설문에서는 1-5점 척도로 하였으나 분석에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1로, 그 나머지를 0으로 二分化 하였다.

다. 分析方法

本 分析對象는 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결과중 7,028명의 15-49세 유배우 부인이다. 그러나 실제 분석에서는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무응답자 및 응답미상자는 제외되었다.

統計方法은 回歸分析과 로지스틱 回歸分析을 사용하였다. 先行變數와 媒介變數의 關係를 파악하고자 했을때는 從屬變數인 家族關係 變數가 間隔尺度化되어 있어서 回歸分析을 사용하였고 자녀관련 태도는 1, 0으로 처리된 명목변수였으므로 로지스틱 回歸分析法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에 사용된 관련변수의 平均과 標準偏差는 <表 1>과 같다. 선행변수들의 단순상관계수는 -.43에서 .63 사이에 분포한다.

4. 研究結果

본 연구는 <圖 1>에 제시한 분석틀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子女關聯 態度를 분석하기 이전에 먼저 앞에서 제시한 분석틀에서 媒介變數로 설정한 家族關聯 變數와 社會·人口學的 變數들과의 關係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족관련 변수가 連續變數이므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독립변수로 놓고 각각 매개변수에 대한 多重回歸分析을 시도하였다.

回歸分析 결과에 의하면 먼저 夫婦間의 對話 程度 및 心理的 反應 등을

모두 반영하는 對話指數의 說明變數로서는 敎育期間, 宗教, 男便職業, 아들 有無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敎育期間이 길고 남편직업이 專門·技術·行政·事務職이고 宗教가 基督教 및 天主教일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對話指數가 높으며, 자녀는 아들이 없을때가 있을때에 비해 對話指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夫婦對話를 子女數 관련 內容으로 제한했던

表 1. 關聯 變數들의 平均과 標準偏差

변 수	평균	표준편차
사회인구학적 변수:		
거주지(1=도시)	.79	.41
연령(세)	34.89	7.05
교육기간(년)	10.14	3.19
종교(1=기독교·천주교)	.31	.46
취업상태(1=유)	.34	.47
가족유형(1=1.2 세대)	.86	.35
남편 형제순위(1=장남·외동)	.44	.50
남편직업(1=기술·전문·행정·사무)	.29	.45
현존 자녀수(명)	2.08	1.13
현존 아들(1=유)	.75	.43
가족관계 변수:		
부부대화지수(5-25)	18.22	3.82
부부관계의 상대적 중요성(1-5)	3.25	1.11
가족에 대한 대리성취 기대감(1-5)	2.61	1.04
자녀 관련 태도:		
노후 동거 희망(1=희망)	.15	.36
자녀 필요성(1=필요)	.91	.29
이상자녀수 태도(1=2 이하)	.78	.41
한자녀 선호태도(1=선호)	.37	.48
이상자녀 성구별 태도(1=구별)	.54	.50
아들 필요성(1=필요)	.40	.49
아들 결혼결정 주도권(1=부모)	.21	.41
딸 결혼결정 주도권(1=부모)	.22	.41
자녀 결혼 거부권(1=부모)	.38	.49

1985년 조사자료 분석에서도 부인이 젊고 도시에 살며 교육수준이 높고, 혼전 취업경험이 있을때 對話 經驗率이 높았던 것(오영희, 1988)과 유사한 傾向이다.

두번째로 父母-子女關係에 비해서 夫婦間의 관계가 더 重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설명변수로서는 居住地, 教育期間, 男便 兄弟順位 및 現存子女數가 有意하였다. 즉 都市에 살며 教育期間은 길고 자녀수는 小規模이며 남편이 長男 및 외동일때 그 부인이 그렇지 않은 부인에 비하여 부모-자식 관계보다는 夫婦間의 關係에 더 큰 比重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女子의 幸福이 男便을 出世시키고 子女가 成功하는 것에 달렸다는 문항을 통해서 파악한 부인의 남편 및 자녀를 통한 代理成就 期待 程度에 대해서는 回歸分析 결과 居住地, 年齡, 教育期間, 宗教, 가족유형, 자녀수, 아들 有無가 유의하였다. 농촌에 살며, 연령은 높고, 교육기간은 짧으며,

表 2. 家族關係 特性 決定要因에 대한 回歸分析 結果

변 수	부부대화지수		부부의 중요성		대리성취기대	
	B	β	B	β	B	β
거주지(도시)	-.064	-.007	.333	.123**	-.218	-.087**
연령	-.004	-.007	-.001	-.007	.008	.054**
교육기간	.134	.110**	.028	.081**	-.055	-.170**
종교(기독교·천주교)	.220	.027*	.025	.010	-.130	-.058**
취업상태(유)	-.102	-.013	-.041	-.017	.043	.020
가족유형(1·2세대)	.241	.022	.033	.010	.074	.024*
남편순위(장남·외동)	.027	.004	.060	.027*	.004	.002
남편직업(사무직)	.479	.057**	.047	.019	.003	.001
현존자녀수	-.057	-.017	-.042	-.043*	.032	.034*
현존아들(유)	-.252	-.029*	.003	.001	.085	.035**
Constant	17.01		2.78		2.33	
R ²	.030		.042		.082	

* p<.05, ** p<.01

종교가 기독교나 천주교가 아니고, 1,2세대 가족이고, 자녀가 많으며, 아들이 있는 부인이 그렇지 않은 부인에 비해 가족을 통한 代理成就 期待 程度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와 아들이 있다는 변수가 각각 부부의 상대적 중요성과 부부간 대화지수와는 음(-)의 方向으로 有意한 關係를 보인 반면에 대리성취 기대와는 모두 양(+)의 方向에서 有意한 關係를 보였다.

이들 세 家族關係 變數들 간의 單純相關係數는 夫婦의 對話指數와 夫婦의 相對的 重要性이 .03, 夫婦의 重要性和 代理成就 期待가 .18 夫婦 對話指數와 代理成就 期待感이 -.02이다.

가. 老後 子女 同居 希望態度

우리 사회가 産業化와 都市化를 겪으면서 개인의 삶이 형식보다는 實利와 便宜를 추구하는 方向으로 가게 되고 그 過程에서 家族關係도 內容과 形態면에서 變化를 겪게된다. 1991년도 출산력조사 결과에 의하면 老後에 子女와의 同居를 希望한다는 부인은 응답부인의 15.5퍼센트이며 同居 希望 理由로는 精神的 도움이 52.4퍼센트로 가장 높고 家庭和睦, 傳統規範 및 기타가 각각 18.4퍼센트, 18.9퍼센트이며 經濟的 도움은 10.3퍼센트였다. 오늘날 노후에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부인비율도 낮으며 또한 동거를 희망한다 해도 그 이유가 無形의 價値이지 老後를 의지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소수인 이들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부인들의 태도를 決定하는 要因은 무엇인가?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가족관련 변수를 모두 독립변수로 놓고 로지스틱 回歸分析을 한 결과, <表 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노후에 자녀와의 同居 希望 態度形成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影響을 미치는 변수는 年齡, 敎育程度와 家族를 통한 代理成就 期待感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就業狀態가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年齡이 많고 敎育期間이 짧고 가족을 통한 代理成就 期待가 크고

그리고 현재 취업중인 부인이 그렇지 않은 부인에 비해 자녀와 노후에 함께 살고 싶어할 可能性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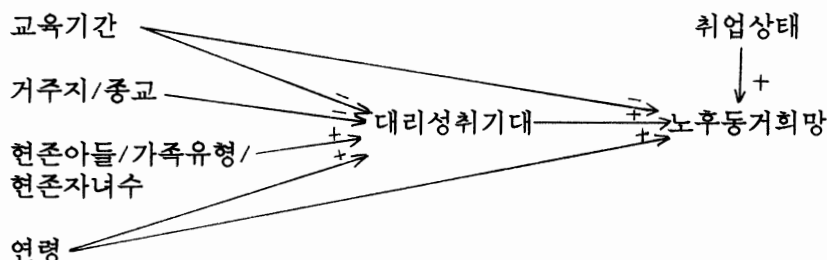
그런데 매개변수로 설정한 代理成就期待는 앞의 <表 2>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거주지, 연령, 종교, 가족형태, 자녀수, 아들유무, 교육기간의 7개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이들 변수는 대리성취기대를 통해서 老後同居希望에 間接적으로 影響을 미치고 있다. 이중 연령과 교육기간은 直接間接 效果를 모두 갖는다. 이와 같은 직접, 간접적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고자 <表 2>와 <表 3>에서 有意하게 나타난 각변수들의 關係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圖 2>와 같다. 특히 자녀수와 아들유무는 직접 老後子女同居 希望에 영향을 주지 않고 代理成就期待를 통해 間接적으로 작용한다는

表 3. 老後 子女 同居 希望與否 決定要因에 대한 로지스틱 回歸分析 結果

변 수	계 수	z
사회인구학적 변수:		
거주지(도시)	- .062	-1.48
연령	.020	6.04**
교육기간	- .022	-3.32**
종교(기독교·천주교)	.053	1.34
취업상태(유)	.076	2.05*
가족유형(1·2세대)	.071	1.33
남편순위(장남·외동)	- .013	-.36
남편직업(사무직)	- .053	-1.17
현존자녀수	- .027	-1.30
현존아들(유)	.026	.53
가족관계 변수:		
부부 대화 지수	.004	.77
부부의 중요성	- .027	-1.68
대리성취기대	.054	2.90**
Intercept		3.79

* $p < .05$, ** $p < .01$

圖 2. 老後 子女 同居 希望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점이 특이하다.

여기서 한가지 언급할 사항은 現 就業狀態 變數가 老後 子女와의 同居希望에 正的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影響을 미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이 社會活動 參與로서 여성에게 自我實現의 機會와 獨立性 鼓吹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여성 취업상태의 實相을 보면 현실적으로 女性의 就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수 있다. 먼저 취업중인 부인의 就業 職種 分포가 販賣서비스業 44.2퍼센트, 單純 生産勞務職 31.9퍼센트, 農漁業 관련직 13.0퍼센트, 行政·專門·技術·事務職 10.9퍼센트의 순서로 나타나고 연령은 年齡이 높을수록 就業率이 높고 敎育程度에 따라서는 國·中·大·高의 순서로 취업율이 높았다(孔世權 外, 1992). 이는 취업의 주된 理由가 生計가 어렵거나 家族事業을 돕기위해(47%)와 生活費 및 용돈을 벌기 위해서(47%)이고 자신의 發展을 위해서(4.3%)는 극소수였던 1986년도 조사(孔世權 外, 1987)와 같은 맥락이다. 연령도 많고 敎育수준은 낮은 부인들이 生計費를 충당하기 위해 비교적 單純한 職種에 從事하며 또한 비교적 낮은 賃金을 받을수 밖에 없는 것이 實相이라면 社會參與를 통한 삶의 價値創出이나 自我實現이란 이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自我實現은 커녕 家事

와 子女養育 負擔에다가 所得増大를 위한 負擔까지 지고서 二重苦에서 시달림을 뜻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현재 就業中인 婦人들이 그 報償의 一環으로서 老後에 子女와의 同居를 期待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나. 子女 必要性 및 數 選好態度

1) 子女 必要性

일반적으로 夫婦는 반드시 子女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일반적 子女價値를 조사한바, 여기에 90.3퍼센트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8.5퍼센트가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하였고 1.2퍼센트가 모른다는 답변을 했다. 자녀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의 주요 理由는 普遍性(63.2%)이었고 家門維持(14.1%), 家庭和睦(13.1%), 老後依支(6.8%)의 순서로서 특정한 목적에서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結婚하면 자연스러운 結果로서 자녀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 하겠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表 4>와 같은바, <表 4>와 <表 2>, <表 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圖 3>과 같다.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의 直接的인 決定要因은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社會學的 變數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인구학적 요인인 연령, 子女數와 現存 아들 有無만이 有意하였다. 한편 家族關係 變數로서는 夫婦對話, 代理成就 期待感 그리고 老後에의 同居希望이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자녀가 많을수록, 아들이 있을수록, 부부간의 對話指數가 높을수록, 男便이나 子女의 成功과 自身の 幸福을 同一視하고 노후에 자녀와의 同居를 希望하는 態度를 가졌을수록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간접 영향으로는 남편직업, 교육기간, 종교, 가족유형, 거주지, 취업과 같은 부인의 사회학적 특성은 직접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家族關聯 變

數와 노후 동거희망을 통해서 間接的으로 影響을 미치고, 자녀수, 아들유무, 연령은 직접, 간접 영향을 준다. 그런데 年齡은 直接과 間接 影響力에서 서로 다른 符號를 나타내서 나이 많은 부인은 代理成就 期待와 老後同居 希望을 통해서, 그리고 젊은 부인은 直接 子女 必要性 態度를 갖게 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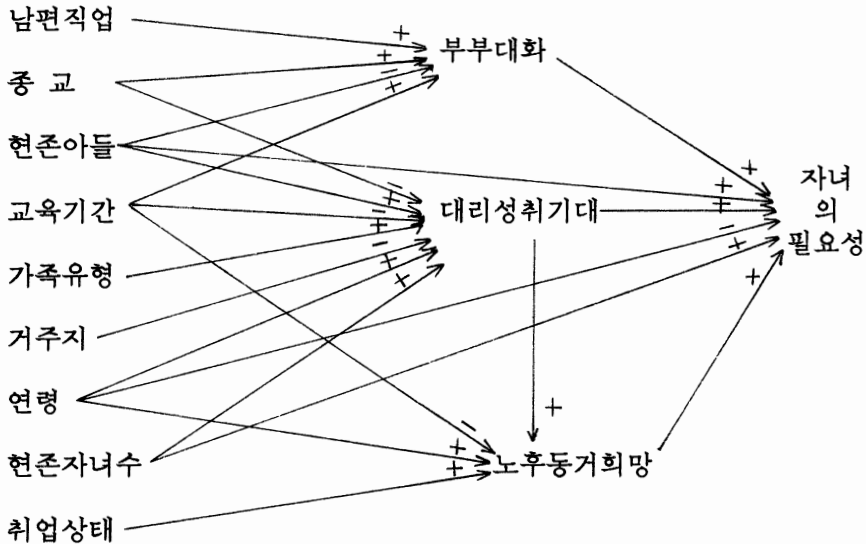
또한 <圖 3>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교육기간, 종교, 아들유무 등이 부부간의 對話指數와 代理成就 期待感 및 노후 동거 희망에 영향을 주는 變

表 4. 子女 必要性 및 數選好 態度 決定要因에 대한 로지스틱 回歸分析 結果

변 수	자녀필요성		이상자녀 2이하		한자녀 선호	
	계수	z	계수	z	계수	z
사회인구학적 변수:						
거주지(도시)	-.039	-.69	.266	7.03**	.182	5.21**
연령	-.011	-2.73**	-.017	-5.42**	.007	2.69**
교육기간	-.006	-.74	.014	2.22*	.033	5.96**
종교(기독교·천주교)	-.019	-.40	-.040	-1.10	-.032	-1.08
취업상태(유)	.040	.84	-.027	-.79	.004	.01
가족유형(1·2세대)	.031	-.46	.034	.72	.084	2.04*
남편순위(장남·외동)	-.001	-.04	-.023	-.68	-.014	-.49
남편직업(사무직)	-.024	-.49	-.097	-2.37*	.017	.53
현존자녀수	.203	6.57**	-.275	-13.80**	-.232	-12.44**
현존아들(유)	.130	2.48*	-.060	-1.27	.021	.60
가족관계 변수:						
부부대화 지수	.021	3.77**	-.013	-3.00**	-.012	-3.26**
부부의 중요성	.002	.12	.030	2.04*	-.013	-1.05
대리성취기대	.137	6.51**	-.000	-.02	-.047	-3.42**
노후자녀 동거(희망)	.417	5.13**	-.196	-4.67**	-.267	-6.51**
Intercept		6.10		6.81		4.55

*: p<.05 ** : p<.01

圖 3. 子女가 必要하다는 態度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數인데 서로 작용하는 方向이 다르다. 즉, 교육수준이 높고 종교가 기독교 및 천주교이고 남편이 외동이나 장남이고 아들이 없는 부인은 夫婦對話를 통해서, 그리고 농촌에 살며 교육기간이 짧고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가 아니며 아들이 있는 부인은 代理成就 期待와 자녀와의 老後 同居希望을 통해서 子女가 必要하다는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2) 理想子女數 選好態度

부인들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理想子女數는 1968년 3.9명에서 1978년 2.7명으로 감소하였고 1985년과 1988년이 각각 2.0명이었고, 1991년 조사에서는 2.1명으로 집계되었다. 1970년대 초기에는 3자녀가

이상적으로 여겼으나 차츰 政府施策 및 養育費 및 教育負擔에 따른 子女費用價值등의 變化로 1980년대부터 2명, 즉 1남 1녀를 선호하게 되었는데 이는 실제 TFR 1.6과 유사한 수준이다.

본 분석에서는 理想子女數 평균이 2.1명이고 TFR이 1.6임을 감안하여 2명을 기준으로 二分化하여 小子女와 多子女 選好態度로 정의하고 로지스틱 回歸分析을 하였다. 그 결과와 앞에서의 <表 2>와 <表 3>의 결과를 연결하여 유의한 변수들간의 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접적 결정요인으로 <表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居住地, 年齡, 教育期間, 男便職業, 現存子女數 그리고 家族關聯 變數에서는 夫婦對話, 夫婦關係 重要視 程度 및 자녀와의 老後 同居希望 變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인구학적으로 볼때 都市에 살고 있으며, 나이는 젊고, 教育期間은 길며 子女數는 적을수록 小子女 價值觀을 선호할 가능성이 많다.

家族關係 變數로 夫婦간의 對話는 분석결과 符號의 方向은 음(-)으로서 指數가 적을수록 多子女를 選好하는 경향이며 또한 父母·子息關係를 부부관계보다 重要하다고 생각할수록 多子女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자녀와의 老後 同居 希望이 있으면 또한 多子女를 選好하는 경향이다. 부부對話指數가 높은 부인이 다자녀를 선호한다는 것은 夫婦간의 心理的 滿足感이나 夫婦의 調和가 子女에 대하여 보다 肯定的인 評價를 내리게 한다는 앞에서 언급한 研究結果들(Hoffman et al., 1979; Neal et al., 1989)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結果로 사료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부간의 對話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父母-子息의 관계보다 夫婦間的 關係를 重要視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단순상관계수 .03)에서 부부간의 對話에서 子女가 차지하는 比重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응답 結果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간접 요인으로서 명확하게 들어나는 것은 男便職業, 教育期間, 거주지, 자녀수, 연령이 직접 간접 영향력을 모두 갖는데 비해서 현존 아들

유무, 宗教, 남편형제순위, 가족유형, 취업변수는 家族關係 변수나 老後 同居希望 변수를 통해서 間接적으로만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한가지 지적하고자하는 점은 男便職業 變數의 直接 및 부부대화를 통한 間接 說明의 方向이 -로서 남편직업이 專門·行政·事務·技術職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多子女를 選好한다는 것이다. 이는 3子女 以上 選好 比率이 1985년 13.5퍼센트, 1988년 14.8퍼센트에서 1991년에는 18.4퍼센트로 주로 年齡이 많은 부인들 사이에서 3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최근에 와서 다시 增加하고 있는 증거(孔世權 外, 1992)와 무관치 않다. 즉 비교적 養育이나 教育에 대한 負擔이 크지 않은 年齡이 높고 社會水準도 높은 階層의 일부가 多子女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뜻한다. 여기에는 물론 政府施策 變化에 따른 社會的 雰囲気가 상당한 寄與를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한 子女에 대한 態度

우리나라는 1983년 부터 人口 調節政策 強化方案의 하나로 '둘도 많다'라는 표어를 통해서 한자녀 갖기를 獎勵하고 동시에 여러가지 支援制度를 마련하여 한가족 한자녀라는 社會的인 雰圍氣를 조성코자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한자녀 獎勵政策은 1988년이후 인구목표 조기달성에 따른 정부사업 시책의 변화와 더불어 弱化되고 동시에 한자녀를 두는 것에 대한 批判과 短點이 대두되면서 그 세가 약해지는데 관련 調查結果도 이같은 社會的 풍조를 반영한다 하겠다. 즉 한자녀를 둔다는데 대한 肯定的 反應이 1991년에 37.1퍼센트인데 1985년, 1988년의 각각 59퍼센트, 66퍼센트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진 수준이다.(孔世權 外, 1992)

한자녀도 괜찮다는 응답에 대한 직접적 決定要因으로서는 <表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居住地, 年齡, 教育期間, 家族形態, 現存 子女數, 그리고 夫婦對話, 代理成就 期待感 및 老後 同居 希望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都

市에 거주하며 敎育期間이 길고 1, 2世代 家族 婦人일 수록 한자녀를 두는 것에 肯定的인 반응을 보였으며 現存子女數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한자녀에 肯定的 態度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年齡은 자녀 필요성에서와 같이 매개변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 한자녀 태도형성에 영향을 주는데 작용 방향이 다르다. 家族關係 變數에서는 다른 數 選好 態度와 마찬가지로 夫婦對話가 많을수록 多子女를 選好하며 한자녀 갖기에는 否定的인 態度를 갖고 있고 또한 代理成就 期待나 老後同居 希望이 큰 부인이 또한 多子女 선호경향을 갖고 한자녀 갖기에는 反對한다는 입장이다. 부부간의 대화에 있어서 子女의 比重이 크고, 또 子女가 夫婦간의 對話를 誘導하는 機能을 함을 반영한다 하겠다.

한편으로 <表 2>와 <表 3>을 통해서 가족변수 및 노후동거 태도를 통한 人口社會學的 要因의 間接效果도 살펴 볼수 있는데 이는 자녀 필요성에서와 같이 교육기간, 종교, 아들유무 등이 부부간의 對話指數와 代理成就 期待感 및 노후 동거 희망을 통해서 한자녀 태도에 영향을 준다.

다. 子女 性 選好 態度

1) 아들 必要性에 대한 態度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아들 選好思想이 높은 나라다. 23개국을 比較한 研究에 의하면 네팔과 우리나라가 가장 아들을 선호하는 나라이다(Kent & Larson, 1982). 社會經濟的 發展이 상당한 水準에 이르고 이와 더불어 男女平等 등 국민들의 意識 水準에 많은 변화가 있으며, TFR이 1.6수준까지 떨어진 오늘날도 男兒選好思想은 高出産으로의 進行과 높은 子女 出生性比에 影響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다.

우리나라 부인들은 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0.5퍼센트가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30.7퍼센트가 있는 것이 없

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이고 28.0퍼센트가 없어도 괜찮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는 1980년대 調査資料와 비교해 보면 아들 選好態度가 다시 強化되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80년대의 강력한 政府政策 및 캠페인으로 인해 潛在되었던 아들 選好가 事業推進力の 弱화와 더불어 다시 顯在化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즉 1985년과 1988년에는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비율이 38.7퍼센트, 29.8퍼센트이고 없어도 괜찮다는 비율은 각각 38.5퍼센트, 49.4퍼센트였다. 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1985년 水準보다 약간 낮아졌으나 없어도 괜찮다는 응답비율은 1985년 수준보다 약 10「퍼센트」포인트 낮은 水準으로 떨어졌다(孔世權 外, 1992).

아들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를 二分化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가 <表 5>이고, 이 결과와 <表 2>, <表 3>의 결과에서 有意한 변수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圖 4>이다. 먼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아들 選好態度에 影響을 미치는 變數로 居住地, 年齡, 教育期間, 宗教, 男便 兄弟順位, 現存子女數, 아들有無, 夫婦對話指數, 대리성취 期待感, 자녀와의 老後同居 希望여부가 유의할 수준에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 거주하며, 연령이 많고, 교육기간이 짧고 종교는 基督教과 天主教가 아닌 경우 그리고 남편이 장남이나 외동아들일때 아들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 家族關聯 變數로는 夫婦間の 對話指數가 앞서서의 자녀필요성 및 자녀규모 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들 必要性에도 影響을 주며 또 代理成就 期待感이 크고 또 老後에 同居를 希望할수록 더 아들을 선호한다.

간접 영향으로는 교육기간, 현존아들, 종교, 거주지가 직접효과 이외에도 가족변수를 통해 간접적 영향력을 갖고, 직접 영향이 없는 취업, 남편직업, 가족유형은 각각 노후동거기대, 부부대화, 대리성취기대 변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圖 4>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夫婦間

의 對話指數는 교육기간이 길고 종교가 기독교나 천주교이고 남편직업이 전문·기술·행정·사무직이며 아들이 없을때 보다 높음을 볼때 전반적인 아들 선호 態度에 유의한 人口社會學的 變數와는 분명히 다른 特性에 의해 영향을 받는것 같으나 그 자체는 아들 選好態度에 有意한 影響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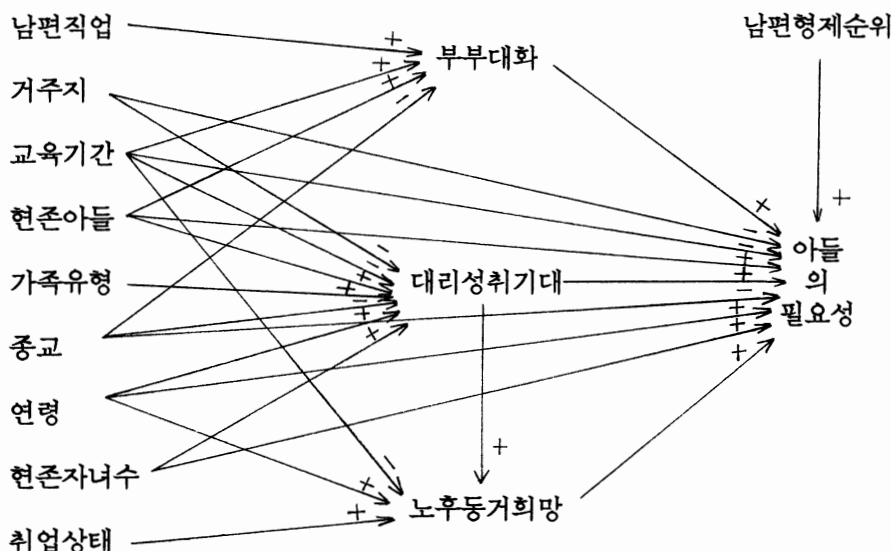
아들 必要性 態度와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男便 兄弟順位の 直接的 影響力이다. 그동안 家族法 改定등 상당한 부문에서 男女平等이 이루어졌고 또 改善되어 가고 있음에도 아직도 상당수가 家系繼承의 부담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남 및 외동아들이 유의한 것으로 보아서 아들을 두

表 5. 子女의 性選好 態度 決定要因에 대한 로지스틱 回歸分析 結果

변 수	아들 필요성		이상자녀 성 구별	
	계 수	z	계 수	z
사회인구학적 변수:				
거주지(도시)	-.378	-11.28**	-.384	-11.28**
연령	.005	1.90*	-.007	-2.73**
교육기간	-.030	-5.45**	-.014	-2.52**
종교(기독교, 천주교)	-.100	-3.22**	-.076	-2.63**
취업상태(유)	-.022	-.74	.000	.00
가족유형(1·2세대)	-.050	-1.24	.063	1.59
남편순위(장남, 외동)	.138	4.87**	.111	4.13**
남편직업(사무직)	.018	.53	-.011	-.36
현존자녀수	.157	8.78**	.190	10.70**
현존아들(유)	.324	8.59**	.122	3.61**
가족관계 변수:				
부부대화 지수	.009	2.56**	-.005	-1.56
부부의 중요성	-.020	-1.58	-.004	-.29
대리성취기대	.116	8.19**	.079	5.96**
노후 자녀 동거(희망)	.326	8.44**	.244	6.31**
Intercept		4.81		5.51

* p<.05, ** p<.01

圖 4. 아들이 必要하다는 態度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어야 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價値라기 보다는 祖上에 대한 負擔이자 義務라고 보여진다.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아들이 있을때 아들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다. 즉 아들이 없는 부인들은 아들의 必要性에 대하여 꼭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態度가 自己 防禦하는 機能(self- defence)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이 마음의 均衡, 調和, 一貫性を 維持하려는 基本 慾求를 가지고 있다는 認知 一貫性(cognitive consistency)의 原則(Oskamp, 1977) 측면에서 보아도 아들이 없고 또한 아들을 낳을 가능성도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아들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둔다는 것은 스스로를 葛藤, 緊張 또는 不安定한 狀態에 놓게 되므로 이 不調和 狀態에서 벗어나기 위해 認知世界를 再調整하여 一貫性を 維持해야 하는 바

여기에 나타난 관계가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

2) 理想子女 性 區別 態度

理想子女의 性을 區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1991년도 조사대상 부인의 54.1퍼센트가 그렇겠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1985년 45.6퍼센트, 1988년 45.5퍼센트에 비해 상당 水準 높아진 수준이다(孔世權 外, 1992).

理想子女 性 區別態도의 직접적 形成要因으로는 居住地, 年齡, 敎育期間, 宗教, 男便 兄弟順位, 子女數, 아들有無, 代理成就 期待 및 자녀와의 老後 同居 希望이 직접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아들 必要性 態度 形成에 영향을 미친 변수중에서 부부간의 대화만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모두 이상자녀 性 區別 態度에도 영향을 준다. 그런데 年齡은 아들 필요성에서와는 달리 (-) 부호를 나타내고 있는바, 젊은 부인은 직접, 나이 많은 부인은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성구별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풀이할수 있다. 한편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의 間接的 影響은 代理成就期待와 老後 同居 希望을 통해서만 작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들 필요성의 간접적 결정요인과 같다.

라. 子女結婚에의 關與 態度

본 분석에서는 子女觀의 하나로 부인의 子女結婚과 관련된 關與 態度를 포함시켜 자녀의 결혼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에 影響을 주는 要因은 무엇인가를 알아 보았다.

子女의 結婚決定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아들과 딸로 나누어 물어 보았는데, 그결과 父母決定이 아들과 딸이 각각 2퍼센트씩이고 父母 決定 後 子女同意가 각각 19퍼센트, 20퍼센트이며 子女 決定 後 父母 同意가 각각 63퍼센트, 62퍼센트이고 子女 決定이 모두 15퍼센트, 그리고 무응답이 각각 1퍼센트씩으로 아들과 딸이 거의 유사하였다. 또한

이와는 조금 다른 질문으로서 자녀가 決定한 配偶者에 대해서 마음에 안들 때 反對할 수 있겠느냐는 일종의 부모의 拒否權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다 37퍼센트, 그저 그렇다 21퍼센트, 그렇지 않다 39퍼센트, 모른다 3퍼센트였다. 子女의 結婚은 子女 및 父母에게 있어 매우 큰 行事로서 意味하는 바가 큰데, 社會가 産業化되고 近代化되어 오면서 家族中心이라기 보다는 個人中心的 意味가 점점 커지고 있고 따라서 결혼의 주체인 子女의 立場이나 意見이 보다 많이 反映되는 쪽으로 변화하여 왔고 또 앞으로는 이같은 趨勢는

表 6. 子女結婚에의 關與態度 決定要因에 대한 로지스틱 回歸分析 結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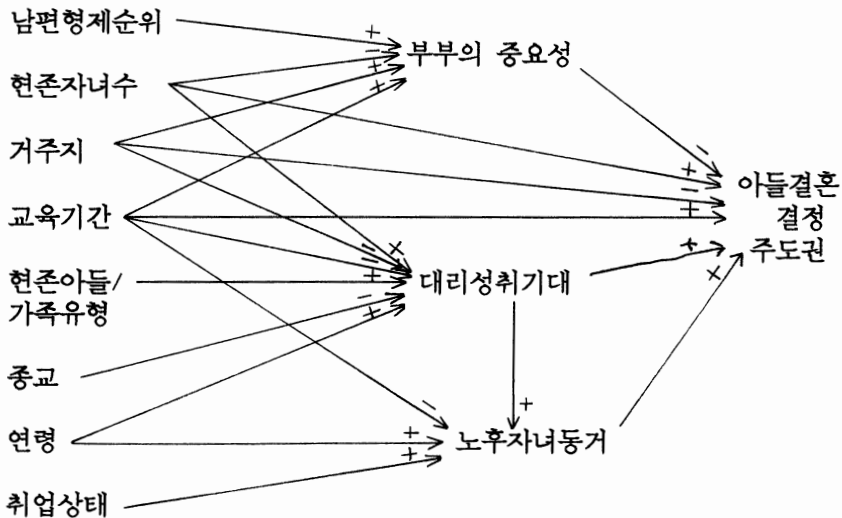
변 수	자녀 결혼 결정권(부모)				거부권	
	아들		딸		(부모)	
	계수	z	계수	z	계수	z
사회인구학적 변수:						
거주지(도시)	-.096	-2.64**	.105	-2.94**	-.045	-1.40
연령	.003	1.05	.001	.50	.006	2.52*
교육기간	.011	1.82*	.008	1.30	.031	6.01**
종교(기독교·천주교)	.033	.97	.048	1.47	.044	1.55
취업상태(유)	-.036	-1.12	-.040	-1.24	-.027	-.97
가족유형(1·2세대)	-.011	-.24	-.003	-.07	.002	.63
남편순위(장남·외동)	.005	.16	-.007	-.21	-.009	-.35
남편직업(사무직)	.011	.28	-.008	-.22	.110	3.50**
현존자녀수	.063	3.45**	.058	3.21**	.045	2.81**
현존아들(유)	.006	.15	.033	.84	-.065	-1.95*
가족관계 변수:						
부부대화 지수	-.002	-.43	-.001	-.32	.004	1.09
부부의 중요성	-.037	-2.74**	-.031	-2.31*	-.054	-4.56**
대리성취기대	.070	4.41**	.076	4.86**	.073	5.53**
노후 자녀 동거(희망)	.083	2.03*	.061	1.50	.147	4.13**
Intecept		4.39		4.19		4.44

* $p < .05$, ** $p < .01$

強化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20퍼센트 정도는 자녀 결혼의 決定 主導權을 父母가 가져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같은 응답 結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보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從屬變數를 二分化 하였다. 結婚 決定權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父母와 子女로 나누었고 또한 자녀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있다는 응답과 그 나머지로 二分化 하였다. 먼저 자녀결혼 決定 主導權을 부모가 가져야 한다는 태도에 관한 分析에서는 직접적 요인으로 居住地, 子女數, 夫婦關係의 相對的 重要性, 代理成就 期待感 변수가 아들과 딸 모두에서 有意한 것으로 나타났고 敎育期間과 자녀와의 老後 同居 希望 변수는 아들의 結婚決定 主導와만 유의한 관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서 農村에 살고 있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父母-子息의 關係를 부부관계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代理成就 期待感이 클수록 아들

圖 5. 父母의 아들 結婚 決定 主導權 所有 態度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과 딸의 結婚에 부모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며,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 효과는 <圖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教育期間, 아들의 存在, 宗教, 職業, 年齡, 男便 兄弟順位가 가족관계변수 및 노후동거희망을 통해서 아들 결혼에서 결정의 主導權을 父母가 가져야 한다는 태도에 間接的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자녀수와 거주지, 교육기간은 直·間接 影響力을 모두 갖는다. 教育期間이 짧으면 代理成就 期待와 老後同居 希望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기간이 길면 直接 및 부부의 중요성 변수를 통해서 子女 結婚에의 關與 태도를 갖게 된다.

이와는 조금 다른 질문으로서 子女結婚에의 關與 態度인 바, 자녀가 決定한 配偶者가 마음에 들지 않을때 反對하겠느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령과 현재 자녀수 변수와 家族關係 變數는 앞서 決定權 主導때와 마찬가지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다른 人口社會學的 變數는 조금 다른 意味를 보여준다. 年齡이 많으며 教育期間이 길고 男便 職業이 專門·技術·行政·事務職인 婦人들 즉, 社會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들이 없는 부인들이 그렇다고 응답할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기간의 영향력은 <圖 5>에서 나타난 교육기간의 간접효과와 연결해보면 교육기간이 길면 직접 및 부부의 상대적 중요성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기간이 짧으면 가족 관련 변수 및 노후동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子女의 結婚決定에 대하여 拒否權을 갖을수 있다는 態度形成에 寄與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子女 結婚에 대해서 決定 主導權을 갖는다는 것과 子女決定에 대해서 반대할수 있다는 것은 關與의 性格과 時點에서 큰 差異를 갖는데 여기에는 선행변수인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직접적 기여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父母-子息關係를 부부관계보다 중요시 여기고 代理成就 期待가 크며 老後에 同居를 希望한다는 변수는 차이가 없이 同一하게 有意한 影響을 주고 있다. 즉 선행변수는 달라도 매개변수의 기여는 일정하다는 것이다. 또한

달만 가진 사람들이 子女가 選擇한 配偶者가 마음에 안들때 反對하겠다는 確率이 높은 것은 特異하다.

5. 要約 및 結論

본 연구는 婦人의 子女에 대한 態度가 夫-婦-子女라는 3者間의 相互 關係 속에서 나타나는 關係의 一部라는 概念으로 파악하고 婦人의 자녀에 관한 태도를 人口·社會學的 變數 및 家族關係 變數로서 說明해 보고자 하였다. 人口·社會學的 變數를 先行變數로 놓고 家族關係 變數를 媒介變數로 그리고 子女關聯 態度 變數를 從屬變數로 설정하여 子女關聯 態度를 人口社會學的 要因뿐만 아니라 家族關係 變數로도 설명하여 보고자 하였다.

社會·人口學的 變數로는 居住地, 年齡, 教育期間, 宗教, 就業狀態, 家族形態, 男便 兄弟順位, 男便職業, 現存 子女數 및 아들수를 설정하였고, 家族關聯 變數로는 夫婦對話 指數, 가족을 통한 代理成就 期待感 및 부부-자녀관계에 대한 夫婦關係의 相對的 重要性이 사용되었다. 종속변수로는 먼저 老後에 子女와 同居 希望 與否가 分析되었고 이어서 子女出產 關聯 態度 및 子女結婚 關聯 態度가 分析되었는데 이때는 老後에 子女同居 希望與否 變數도 하나의 獨立變數로 처리하였다. 分析방법은 먼저 社會·人口學的 變數와 가족관련 변수와의 관계규명시는 回歸分析이 이용되었고 자녀관련 태도 분석에는 로지스틱 回歸分析法이 사용되었다. 1991년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중 분석대상은 15-49세 有配偶 婦人에 관한 자료의 일부였다.

分析 結果를 각 獨立變數들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社會的 位置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居住地는 都市에 사는 사람들이 부모-자식보다는 夫婦關係가 더 重要하다고 여기며 가족을 통한 代理成就 期待는 약하고, 따라서 小子女 및 한자녀를 選好하고 아들 選好態度는 약하며 자녀

配偶者 決定 主導權은 子女가 갖는다고 볼 확율이 크다. 교육기간은 길수록 부부간의 對話가 많으며 夫婦關係가 부모-자식관계보다 重要하다고 보며 代理成就 期待感은 약하고 子女數 및 性選好 態度는 약하고 자녀와의 老後同居 希望도 약하다. 그러나 자녀결혼에의 관여태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한편 男便職業은 行政·專門·技術·事務職일때 夫婦對話가 많으며 3子女 理想을 理想子女數로 보는 多子女 選好傾向이 있고 자녀 결혼시 자녀 결정에 대해 反對할 수 있다는 태도를 나타내나 아들선호 태도와는 무관하다. 즉 일반적으로 社會的 位置가 높을수록 아들 선호사상은 弱하고 小子女를 선호하지만 社會的 位置가 아주 높은 경우에는 多子女 選好 傾向이 있음을 示唆한다.

부인의 가정 이외의 社會的 紐帶關係를 나타내는 변수로 就業狀態와 宗教를 들수 있는데, 婦人就業 變數는 취업중인 부인이 老後에 同居를 希望한 다만이 有意하게 나타났고 子女 數및 性選好와는 무관하였던바, 이는 就業 自體와 出産力이 뚜렷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研究結果(曹愛姐 外, 1988 ; Han, 1984)와도 일맥상통하는 結果이고 또한 대다수의 就業婦人에게 있어서 취업이 사회활동이라기보다는 所得保障 方便으로 짚어진 또 하나의 짐이고, 따라서 그 勞苦에 대한 報償慾求가 노후에의 子女와의 同居로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宗教는 基督教나 天主教를 믿는 경우에 夫婦對話가 많고 자녀에 대한 代理成就 期待感은 낮으며 따라서 아들선호 태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天主教와 基督教는 다른 종교와는 분명 子女 關聯 態度 面에서 다른 차이를 가져오는 宗教的 特性을 지닌다고 하겠다.

家族形態와 男便 兄弟順位는 부인이 家族構造의으로 얼마나 家系나 傳統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알수 있게 하는 변수인데, 家族形態 變數는 1, 2世代 家族이 대리성취 기대가 크고 한자녀 選好傾向을 갖고 있었다. 男便 兄弟順位는 長男이나 외동일 경우가 夫婦關係가 父母-子息 關係보다 더

重要하다고 보며 數 選好 및 結婚關與 態度에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家系繼承의 부담때문에 아들선호 態度는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擴大家族 婦人은 多子女를 選好하는 경향이고 長男의 婦人은 아들을 강력하게 필요로 한다.

인구학적 변수들은 年齡은 많을수록 대리성취 기대가 크고 또한 老後에 子女와의 同居를 希望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자녀의 수 및 성선택 태도에 연령이 높을수록 理想子女數는 많고 아들 필요성은 강하다는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 젊은 부인들이 小子女를 選好하고 아들 選好 態度는 약하지만 자녀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한자녀에는 반대한다는 경향이다. 현존 자녀수는 많을수록 부부 모두 父母-子息관계가 더 重要하다고 생각하며 자녀 필요성 및 다자녀와 아들 선호 태도가 강하고 結婚 關與 態度도 강했다. 현존 아들수는 아들이 없을때 부부대화가 많고 결혼시 자녀가 선택한 배우자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아들이 있으면 代理成就 期待가 크고 자녀 필요성 및 아들선호가 강하였다. 아들 選好와 아들 有無의 관계는 現實에 適應된 態度의 반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家族關聯 變數는 먼저 夫婦對話는 指數가 높을수록 자녀 및 아들이 必要하다고 느끼며 이상자녀 規模도 크며 한자녀에 否定的이었다. 그러나 結婚 關與 態度와는 無關하다. 한편 부부관계를 상대적으로 중요시 여길때 이상자녀 소규모 選好態度를 갖으며 父母-子息의 關係가 더 중요할수록 자녀 結婚시 깊이 關與하겠다는 태도이다. 그러나 性選好 態度와는 無關하다. 代理成就 期待는 클수록 자녀와의 老後 同居를 希望하며 자녀의 必要性을 느끼고 한자녀에는 반대하며 理想子女 性 區別 및 아들선호 태도가 강하고 자녀 결혼에의 강한 關與態度를 나타낸다. 즉 家族關聯 變數 중에서 가족을 통한 대리성취기대가 강한 수 및 성 선호 태도 그리고 子女結婚 關與 態度와 가장 밀접하다. 설문에서는 비록 男便과 子女가 모두 거론되었으나 앞으로의 可

能性이나 潛在性으로 보아 男便보다는 자녀가 더 많은 未知 狀態에 있고, 따라서 代理成就 期待가 男便보다는 子女 쪽으로 기울 可能性이 크고, 자녀 중에서도 아들이 딸보다는 보다 큰 期待를 받게 될 것이다

老後 同居 希望은 代理成就, 期待와 결합하면서 子女 必要性, 性 選好, 數 選好 및 結婚 關與 특히 아들 결혼에의 關與 態度등 子女 關聯態度 全般에 모두 영향을 주는 主要 要因이다.

이렇게 볼때 분석틀에서 媒介變數로 설정하였던 家族關聯 變數중 夫婦間 對話는 多子女 및 아들 選好態도와 관계가 있고, 夫婦關係의 相對的 重要性은 小子女 選好나 子女 結婚에의 깊은 關與와 관계가 유의하며, 代理成就期待感은 老後 同居 希望, 子女 數및 性選好, 子女結婚 關與 등 全般的 子女 關聯 態度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그런데 선행변수인 社會人口學的 特性상 부부대화와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는 태도의 說明 變數와 대리성취를 기대하는 태도의 설명변수의 내용과 방향이 서로 달라서, 결과적으로는 다자녀, 아들 선호및 結婚 關與 態度에 同一하게 影響을 준다고 해도 그 바탕에 깔려있는 根本的인 理由에는 差異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夫婦對話가 많은 부인들에게는 자녀가 夫婦關係를 보다 調和롭게 해주는 어떤 機能을 하기 때문에 選好하고 關與하기를 원한다면 代理成就를 期待하는 부인에게는 자녀가 보다 傳統的 價値를 지닌 存在로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時代的, 社會的 變化와 더불어 자녀에 대한 전통적 가치나 기대가 약화되면서 다시 새로운 價値와 態度가 形成되는 것을 보여 준다. 이같은 결과는 전통적 가치나 태도의 변화가 단순히 출산력 저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1991년도 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 調查資料를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一般 子女價値와 관련된 態度 資料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몇몇 家族關聯 變數와 出產과 子女結婚 態度에 한정할수 밖에 없었다. 동시에 分析方法上의 制限点으로, 분석틀에 의하면 經路分析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지만 종속변수의 특성상 回歸分析에 무리가 있어서 回歸分析과 로지스틱 回歸分析을 병행하였다. 또한 선행변수들 간의 相互作用 效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制限性을 갖는다.

參考文獻

- 孔世權 外, 韓國家族構造의 變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 孔世權, 曹愛姐, 金勝權, 孫聖姬, 韓國에서의 家族形成과 出產行態,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2.
- 金正昨, 父母의 子女觀, 研究노트, 行動科學研究所, 1973. 7.
- 文顯相, 李任田, 吳英姬, 李相暎, 1988년도 全國 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89.
- 吳英姬, “夫婦間 子女數에 관한 對話가 出產力에 미치는 影響”, 人口保健論集, 제8권 제1호,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8.
- 李奎植, 李任田, “子女의 出產順位 및 性構成과 差異 出產力”, 韓國의 出產力 變動과 家族計劃事業 方向,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 李興卓, “男兒選好가 出產行態 및 家族規模에 미치는 影響”, 韓國의 出產力 變動과 展望,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 曹愛姐, 孔世權, “婦人의 就業과 出產力과의 相關性 研究”, 人口保健論集, 제8권 제1호,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8, .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韓國人의 家庭生活과 子女教育, 1983.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5年 全國 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1986.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우리나라 人口變動의 分析, 1990.
- _____, 人口政策 30年, 1991.
- Arnold, F., J.T. Fawcett, *The Value of Children- A Cross National Survey*, Vol.3,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1976.
- Chung, B.M., J.A. Palmore, S.J. Lee & S.J. Lee, *Psychological Perspectives: Family Planning in Korea*, KIIRBS, Seoul, 1972.
- Foreit, K.G., Suh, M.H., “The Effect of Reproductive Intention on Subsequent Fertility among Low Parity Korean Women, 1971-1976”,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11 No.3, 1980.
- Freedman, R., *Sociology of Human Fertility: An Annotated Bibliography*, Irving, N.Y., 1975.

- Freedman, R., Hermalin, A. I., Chang, M. C., "Do Statement about Desired Family Size Predict Fertility? The Case of Taiwan, 1967-1970", *Demography*, Vol. 13 No. 3, 1975.
- Han, I. S., Woman's Work and Fertility: Is There A Negative Relationship?", *Bulletin of Populatuion and Developement Studies Center*, Vol. 13,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4.
- Hoffman, L. W., J. D. Manis, "The Value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Fert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1 No. 3, 1979.
- Kent, M. M., A. Larson, "Family size Preference: Evidence from the World Fertility Survey", *Report on the World Fertility Survey*, No. 4, Population Reference Bureau, 1982.
- Neal, A. G., H. T. Groat & I. W. Wicks, "Attitude about Having Children: A Study of 600 Couples in the Early Years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51 No. 2, 1989.
- Oskamp, S., *Attitude and Opinion*, N. J. Prentice-Hall, 1977.
- Triandis, H. C., *Attitude and Attitude Change*, N. Y., 1971.
- Vlassof, C., "Fertility Intention and Subsequent Behavior: A Longitudinal Study in Rural India",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 21 No. 4, 1990.

妊娠終結에 關한 研究

張 英 植 *

1. 研究背景

우리나라에서 合計出産率은 1960년에 6.0이었던것이 1983년에는 代替出産水準인 2.1 水準으로 低下 되었고, 1987년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1.6 水準에 이르렀다. 이러한 合計出産率은 1991年 調査에서도 1.6 水準으로 밝혀지고 있어 低出産은 一時的인 現象이 아님을 確認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出産率의 低下가 이루어진 原因은 政府가 강력히 推進하여온 家族計劃事業의 影響은 물론 社會·經濟發展에 따른 少子女價値觀의 轉換에서 비롯된 점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出産率低下의 原因은 그 내부에서 복잡한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즉, 出産이 性行爲를 통한 妊娠結果로 이어지듯 妊娠 自體도 모두가 出産으로 귀결되지 않고 自然流産이나 人工妊娠中絶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또 性行爲는 모두가 出産을 前提로 이루어질 수 없기에 願치 않는 妊娠을 豫防하기 위한 避妊이 요구되고, 願치 않는 妊娠을 하였을 경우 人工妊娠中絶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責任研究員

따라서 이제까지 出産力低下로 避妊 외에 妊娠過程에서의 人工妊娠中絶, 自然流産, 死産에 의한 妊娠中絶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이러한 人工妊娠中絶의 影響이나, 自然流産이나 死産에 의한 影響은 家族計劃事業의 質的側面에서나 母子保健側面에서 유의성을 내포 한다고 보겠다.

알맞는 子女를 健康하게 낳아 훌륭하게 잘 키우기 위하여는 우선 母性健康이 前提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政府나 個人이 모두 관심을 갖고 出産力低下 결과 뿐만 아니라 母子保健과의 연계성에서 出産調節의 質的인 問題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母性健康의 增進을 위하여는 불필요한 妊娠消耗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妊娠消耗를 줄이기 위하여는 불필요한 妊娠을 막을수 있는 올바른 避妊方法의 사용이 前提 되어야 한다. 최근 願치 않는 妊娠의 경우 이러한 妊娠이 人工妊娠中絶로 終結되는 率は 81.1퍼센트로 願하는 妊娠의 4.6퍼센트(孔世權 外, 1992)에 비하여 큰 差異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불필요한 妊娠消耗를 줄이기 위하여는 願치 않는 妊娠을 事前에 防止하는 것이 出産調節은 물론 母性保健을 위해서도 최선책일 것이다.

妊娠이 正常出産에 이르지 못하고 身體的 條件이나 外的 要因에 의한 自然流産이나 死産, 그리고 人爲的으로 妊娠을 終結 시키는 人工妊娠中絶은 다음과 같이 定義할 수 있다. 즉, 母體나 胎兒의 異常으로 胎兒가 28週 以內에 自然的으로 母體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自然流産이라 하며, 母體 밖에서도 生命을 維持할 수 있는 29週 以後는 死産이라고 한다. 人工妊娠中絶은 胎兒가 母體밖에서 生命을 維持할 수 없는 時期에 胎兒나 그 附屬物을 人工的으로 母體밖으로 배출시키는 手術(母子保健法 第2條)로 妊娠한 날로부터 28週 以內에 실시할 수 있다(母子保健法 施行令 第15條).

어떻든 妊娠이 중도에 終結되는 것은 母性에 커다란 부담이 아닐수 없고, 이것이 健康 沮害要因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특히 人工妊娠

中絶은 生命의 尊嚴性이나 母性健康을 위해서 許容範圍를 ① 母性の 生命을 위하여, ② 母性の 肉體的 精神的 健康의 保護, ③ 強姦, 近親에 의한 妊娠, ④ 胎兒 異常이 豫想 될 경우, ⑤ 社會·經濟的 理由에(U.N., 1992)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許容範圍를 ① 本人 또는 配偶者가 大統領이 정하는 優生學的 또는 遺傳學的 精神障礙나 身體疾患이 있는 경우, ② 本人 또는 配偶者가 大統領이 定하는 傳染性 疾患이 있는 경우, ③ 強姦 또는 準強姦에 의하여 妊娠된 경우, ④ 法律上 婚姻할 수 없는 血族 또는 姻戚間에 妊娠된 경우, ⑤ 妊娠의 지속이 保健醫學的 이유로 母體의 健康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保健社會部, 1990)로 制限하고 있음에도 큰 어려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人工妊娠中絶이 만연하고 있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狀況에서 妊娠이 된 모든 경우를 강력한 規制로 願치 않는 妊娠도 모두 出産까지 이르도록 한다면 또다른 問題點이 發生하지 않는다고 斷言할 수 없다. 그것은 願치 않는 子女의 出産으로 인한 子女養育에 따른 問題는 물론 私生兒의 増加를 뜻한다. 따라서 願치 않는 妊娠은 事前에 防止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最善策이므로 철저한 避妊에 대한 啓蒙 및 서어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避妊實踐率의 増加와 함께 人工妊娠中絶率의 増加라는 矛盾된 現象이 나타났지만 최근 低出産이 보편화된 狀況에서 人工妊娠中絶의 危害性에 대한 認識이 보다 擴散되면서 既婚層에서 人工妊娠中絶이 減少하는것은 바람직한 現象이 아닐수 없다. 또 최근에는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관심이 점차 高潮되어가고 있는 것도 母子保健 向上을 위해 바람직한 現象으로 받아들여 진다. 그러나 妊娠中絶이 人工妊娠中絶 뿐만 아니라 自然流産 및 死産에 의하여도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것은 減少 시킬수 있는 要因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努力이 要求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妊娠

中斷이 어떠한 形態로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變化되어 왔으며, 또 對象에 따라 어떠한 差異點을 보이고 있는지는 또 다른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同 分析은 妊娠終結形態를 分析하여 母性健康 增進은 물론 對象에 적합한 弘報方法 및 敎育 등을 통해 그 效果를 높일수 있도록 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2. 分析方法

가. 利用資料

本 分析에서 利用한 資料는 1991年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이 실시한 「全國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 資料이다. 同 資料는 標本家口의 特性과 이들 家口內에 居住하는 15-49歲 既婚婦人의 結婚, 出產 및 就業形態를 中心으로 調査되어 있다. 특히 妊娠 및 出產에 관한 事項으로 出產, 避妊, 人工妊娠中絶, 出產管理, 子女價値 및 態度, 妊娠歷에 관한 內容을 包含하고 있으며, 妊娠歷에 관한 事項에는 婦人들이 一生동안 經驗해온 妊娠에 대한 妊娠의 發生時期와 그 妊娠의 正常出產, 死產, 自然流產, 人工妊娠中絶 등의 終結狀態를 把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本 分析은 妊娠歷에 관한 內容을 利用, 妊娠이 어느 時期에 어떻게 進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어떤 形態로 妊娠이 終結 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分析은 年度別, 婦人의 特性에 따라 어떤 差異를 보이고 있는가를 把握코져 하였다.

나. 方法

1) 分析方法은 티-즈와 루이트(Christopher Tietze and Sarah Lewit)가 避妊效果 測定을 위하여 開發한 方法(Tietze et al., 1973)을 本 調査資料

에 適合하도록 一部 變形하여 適用하였으며, 妊娠中斷率의 計算過程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婦人의 特性에 따른 分析은 調査된 資料에서 1988.1월부터 1990.7月 期間중 妊娠이었고, 妊娠이 終結된 總件數는 2,777件이었으며, 이중 正常出産으로 終結된 경우는 1,502件, 自然流産은 270件, 그리고 人工妊娠中絶이 997件 이었으며, 死産도 8件이 있었다. 이들을 妊娠進行에 따른 妊娠個月數別 繼續妊娠率 및 中斷率의 計算結果는 <表 1>과 같고 그 計算方法은 다음과 같다.

A_i : 妊娠個月數 ($i = 1, 2, \dots, 9$)

B_i : 각 妊娠個月末 現在 妊娠中인 件數

C_i : 각 妊娠個月 期間中 人工妊娠中絶, 自然流産, 死産 件數

D_i : 각 妊娠個月數別 妊娠中인 件數

$$D_i = \frac{B_{(i-1/2)} + B_{(i+1/2)}}{2}$$

($i = 1, 2, \dots, 9$)

E_i : 妊娠個月數別 中斷(自然流産, 人工妊娠中絶, 死産)件數의 1/2

즉, $E_i = 1/2 C_i$

F_i : $D_i + E_i$

G_i : $D_i - E_i$

H_i : 妊娠個月數別 해당 末일까지 妊娠中일 率 G_i/F_i

I_i : 累積繼續妊娠率 $I_{i-1} \times H_i$

J_i : 累積繼續妊娠率 $I_i \times 100$

K_i : 累積中斷率 $100 - J_i$

表 1. 累積 繼續妊娠率 및 中斷率

A	B	C	D	E	F	G	H	I	J	K
1	2,777	-	2,777.0	-	2,777.0	2,777.0	1.00000	1.00000	100.0	-
2	2,777	528	2,513.0	264.0	2,777.0	2,249.0	.80987	.80987	81.0	19.0
3	2,249	596	1,951.0	298.0	2,249.0	1,653.0	.73499	.59525	59.5	40.5
4	1,653	89	1,608.5	44.5	1,653.0	1,564.0	.94616	.56320	56.3	43.7
5	1,564	39	1,544.5	19.5	1,564.0	1,525.0	.97506	.54915	54.9	45.1
6	1,525	12	1,519.0	6.0	1,525.0	1,513.0	.99213	.54483	54.5	45.5
7	1,523	7	1,509.5	3.5	1,513.0	1,506.0	.99537	.54231	54.2	45.8
8	1,506	4	1,504.0	2.0	1,506.0	1,502.0	.99734	.54087	54.1	45.9
9	1,502	-	1,502.0	-	1,502.0	1,502.0	1.00000	.54087	54.1	45.9

이를 中斷 原因別(自然流産, 人工妊娠中絶, 死産)로 區分하여 算出하면 <表 2>와 같으며, 그 計算方法은 다음과 같다.

A_i : 妊娠個月數

B_i : 妊娠個月初 妊娠數

C_i : 自然流産에 의한 해당월 中斷率

= 當月自然流産數 / B_i

D_i : 人工妊娠中絶에 의한 해당월 中斷率

= 當月 人工妊娠中絶數 / B_i

E_i : 死産에 의한 해당월 妊娠中斷率

$$= \text{當月 死産數} / B_i$$

F_i : 累積繼續妊娠率 (表 1의 I)

G_i : 累積繼續妊娠率이 勘案된 自然流産에 의한 해당월 妊娠中斷率

$$= C_i \times F_i$$

H_i : 累積繼續妊娠率이 勘案된 人工妊娠中絶에 의한 해당월 妊娠中斷率

$$= D_i \times F_i$$

I_i : 계속 妊娠中일 率이 勘案된 死産에 의한 해당월 妊娠中斷率

$$= E_i \times F_i$$

表 2. 妊娠中斷原因別 中斷率

A	B	C	D	E	F	G	H	I
1	2,777.0	-	-	-	1.00000	-	-	-
2	2,777.0	.02845	.16169	-	1.00000	.02845	.16169	-
3	2,249.0	.05958	.20542	-	.80987	.04825	.16636	-
4	1,653.0	.02178	.03206	-	.59525	.01296	.01908	-
5	1,564.0	.00831	.01662	-	.56320	.00468	.00936	-
6	1,525.0	.00459	.00328	-	.54915	.00252	.00180	-
7	1,513.0	.00066	.00132	.00264	.54483	.00036	.00072	.00144
8	1,506.0	-	-	.00266	.54231	-	-	.00144
9	1,502.0	-	-	-	.54087	-	-	-
						(.09722)	(.35901)	(.00288)

3. 分析内容

가. 年度別 妊娠中斷率의 變動

1991年「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에서는 15-49歲 既婚婦人을 對象으로 1958年以後 妊娠에 대한 終結狀態가 把握이 可能하지만, 調査對象중 調査時 49歲 既婚婦人이 1958년에는 年齡이 16歲로 妊娠이 極히 制限되어 있어, 出産의 全般的인 反影이 可能한 37歲 程度까지의 妊娠狀態 把握이 可能한 1979年以後부터 調査當時 妊娠이 終結된 1990.7月 妊娠까지를 4段階로 區分하여 살펴 보았다.

1979-1981年 사이의 妊娠에 대한 終結結果 40.3퍼센트가 正常出産까지 이르지 못하고 妊娠이 中斷 되었으며, 이들의 절반 이상이 3個月째에 일어났다. 1988-1990年 사이의 妊娠에서는 45.9퍼센트가 正常出産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이 3個月 以下에서의 妊娠終結에 의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水準은 Freedman이 밝힌 1957年 미국의 13퍼센트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이다(高甲錫, 1987). 또한 1979-1990년에 이르는 期間 동안의 妊娠中斷率의 變化는 주로 妊娠 3個月以下에서의 變化에 의하여 決定되었다.

지난 10餘年間 妊娠終結形態의 變化特徵은 1982年 以後 높아졌던 妊娠中斷率이 1988-1990年에서는 다시 약간 낮아졌으며, 月別中斷率에 있어 2個月째의 中斷率이 점차 높아져 妊娠에 대한 中斷의 경우 早期에 처리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를 中斷原因別로 살펴보면 우선 自然流産에 의한 中斷率은 1979年以後 꾸준한 增加趨勢를 보여 1979-1981년에는 7.3퍼센트였으나, 1988-1990年 期間中에는 9.7퍼센트로 增加 하였고, 이와 같은 增加는 주로 3個月 未滿에서의 中斷率 增加에 의한 것으로 妊娠初期의 母性健康에 좀더 세심한 注意가 要求된다. 死産의 경우는 점차 減少하고 있으며, 특히 8個月以後에서의 減少가 적은 폭이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어 妊娠後半期에서의 妊

表 3. 年度別 妊娠中斷率의 變化

(단위: %)

임 신 개월수	1979- 1981	1982- 1984	1985- 1987	1988- 1990
전 체:				
1	.1	-	.2	-
2	12.8	16.4	18.6	19.0
3	35.1	40.8	40.2	40.5
4	38.6	45.0	45.0	43.7
5	39.3	45.9	46.1	45.1
6	39.6	46.3	46.5	45.5
7	39.8	46.4	46.6	45.8
8	40.3	46.9	46.9	45.9
9	40.3	46.9	46.9	45.9
자연유산:				
2	2.0	2.0	2.4	2.8
3	5.5	5.5	6.0	7.7
4	6.8	7.1	7.4	9.0
9	7.3	7.7	8.2	9.7
인공임신중절:				
2	10.8	14.5	16.2	16.2
3	29.5	35.2	34.2	32.8
4	31.8	37.9	37.6	34.7
9	32.4	38.6	38.3	35.9
사산:				
7	.1	.1	.1	.1
9	.6	.6	.4	.3

妊娠管理는 적은 出産으로 인한 妊娠婦의 關心高潮, 醫療水準의 向上 등으로 점차 改善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人工妊娠中絶에 의한 妊娠終結이 願치 않는 妊娠인 반면에 自然流産이나 死産으로 인한 妊娠終結은 대부분 願하는 妊娠이었으면서도 正常出産에 이르지 못하고 妊娠이 終結되었다는 것은 아직도 妊娠管理에 妊娠當事者나 事業關係者の 努力이 필요하며, 改善되어야 할 事項이다.

願치 않는 妊娠은 주로 人工妊娠中絶로 終結되고 있으며, 이는 1982-1984 年을 고비로 하여 점차 減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79-1981年 人工妊娠中絶로 인한 中斷率은 32.4퍼센트에서 1982-1984年에는 38.6퍼센트로 增加 하였으나, 1988-1990年에는 35.9퍼센트로 낮아졌다. 이는 人工妊娠中絶과 避妊實踐과는 아주 높은 相關性을 보여(韓聖鉉 外, 1987), 이와 같은 人工妊娠中絶의 減少 原因은 避妊實踐率의 增加, 특히 不妊受容率의 增加로 인하여 그만큼 失敗妊娠의 危險이 減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出産에 대한 人工妊娠中絶比가 1988-1990年 期間중 妊娠 1,000件當 664로서 이탈리아 309('89), 서독 374('88), 영국 249('89), 덴마크 360('88), 그리고 미국 407('88)(David, 1992) 보다 훨씬 높은 水準에 있다. 그리고 아직도 政府 避妊施術受容者の 約 59퍼센트는 避妊施術受容前 전혀 避妊을 실천하고 있지 않았으며, 最終子女 出産後 避妊施術受容時까지의 期間이 平均 2年 以上 임(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2)을 勘案할 때 상당기간 妊娠으로 부터의 無防備 속에서 지나는 放任狀態에 있는 婦人이 많아 願치 않는 妊娠의 가능성

表 4. 年度別 妊娠終結 結果

(단위:%)

구 분	1970-74	1975-79	1980-85
출 생	71.2	56.0	48.2
사 산	0.9	1.1	0.7
자연유산	5.4	6.2	7.2
인공임신중절	22.5	36.7	38.9
현재 임신중	-	-	5.0
계	100.0	100.0	100.0

資料: 韓聖鉉 外, 人工妊娠中絶의 變動推移와 展望, 韓國의 出産力變動과 展望,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p 339.

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人工妊娠中絶의 可能性도 尙存해 있는 만큼 이들의 管理에 보다 많은 努力이 投入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分析結果를 1985年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資料를 이용한 分析結果와 連繫하여 보면 自然流産에 의한 妊娠中斷率의 增加, 1975-79年을 고비로한 死産에 의한 妊娠中斷率의 減少, 그리고 人工妊娠中絶에 의한 妊娠中斷率도 1982-1984年을 고비로 減少趨勢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年度別 妊娠個月數別 正常出産期待率

각 妊娠個月數別 앞으로 남은 妊娠期間을 지나 正常出産할 수 있는 正常出産期待率은 <表 1>의 각 個月數別 繼續妊娠率 H項을 利用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求할 수가 있다. 즉,

$$EB_i = \prod_{j=i}^9 H_j$$

(j = i, i+1, …, 9)

EB_i : i個月째의 正常出産期待率

여기서 妊娠 9個月째의 死産은 최근 醫療技術과 施設의 向上으로 그 數가 매우 적어 調査資料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妊娠初期 1-2個月에서의 正常出産期待率이 비슷한 것은 婦人이 妊娠한 것을 알았을 때는 거의가 1個月을 넘은 때이기 때문에 실제 1個月에서의 發生이 豫想되는 自然流産은 感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979-1981年 正常出産期待率이 59.7퍼센트이었으나, 1982-1984년에는 급격히 낮아져 53.1퍼센트 水準이었으며, 1988-1990년에는 다시 약간 上昇한 54.1퍼센트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結果는 少子女觀 形成 등으로 低出産 雰囲気가 擴散 되면서 出産을 抑制하는 傾向이 強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1980年 合計出産率이 2.7名 水準

表 5. 年度別 妊娠個月數別 正常出産 期待率

(단위:%)

임 신 개월수	1979- 1981	1982- 1984	1985- 1987	1988- 1990
1	59.7	53.1	53.1	54.1
2	59.8	53.1	53.2	54.1
3	68.5	65.5	65.2	66.8
4	92.0	89.6	88.9	90.9
5	97.3	96.5	96.6	96.0
6	98.3	98.1	98.5	98.5
7	98.9	98.8	99.3	99.3
8	99.1	99.1	99.5	99.7
9	100.0	100.0	100.0	100.0

에서 1982년에는 2.4명으로 그리고 1984년에는 1.8명으로 급격히 낮아졌고, 妊娠의 人爲的 制御手段인 人工妊娠中絶에 의한 妊娠中斷率이 1979-1981년 32.4퍼센트에서 1982-1984년에는 38.6퍼센트로 높아지는 등 社會的 雰圍氣에 많은 影響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年度別 正常出産期待率は 최근에 이를수록 妊娠初期에는 期待出産率이 낮아졌다 높아지는 趨勢를 보였으며, 妊娠後半期에는 점차 期待出産率이 높아지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는 妊婦의 健康管理의 強化, 醫療技術 및 施設의 向上, 政府母子保健事業의 꾸준한 展開, 交通의 發達 등 여러가지 要因이 複合的으로 이루어낸 結果일 것이다. 그러나 妊娠初期 正常出産期待率의 약간의 上昇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 率이 절반을 약간 上廻하는 水準으로 보다 철저한 妊娠管理와 불필요한 妊娠의 事前豫防으로 불필요한 妊娠消耗를 最少化하여 母性健康의 增進을 위한 努力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 婦人特性別 妊娠中斷率의 差異

1988.1월부터 1990.7月 期間중 妊娠에 대한 中斷率의 變化를 婦人特性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學力別 妊娠中斷率

妊娠婦人의 學力別 妊娠中斷率은 學力이 높을수록 妊娠中斷率이 낮다. 이는 避妊實踐率이나 出産力 水準과 비교해 볼 때 반대의 樣相을 보이고 있어 避妊實踐率과 出産率의 關係는 매우 밀접한 負의 相關關係를 갖고 있다는 것과는(張英植 外, 1989; Mauldin, 1989) 相反된 現象으로 보다 細密한 分析이 要求된다. 즉, 1991年 調査에서 教育水準別 避妊實踐率은 國校以下 86.4퍼센트, 中學校 84.7퍼센트, 高等學校 75.3퍼센트, 大學以上 72.8퍼센트로 學力이 높을수록 避妊實踐率이 낮았으며, 避妊方法別 實踐率에 있어서도 不妊實踐率이 國校以下 64.9퍼센트, 中學校 56.2퍼센트, 高等學校 39.5퍼센트, 大學以上 29.5퍼센트로서 學力이 높을수록 不妊實踐率은 현저히 낮아 그 만큼 妊娠危險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既婚婦人의 平均出産兒數가 國校以下 3.1名, 中學校 2.3名, 高等學校 1.7名, 大學以上 1.6名으로(孔世權 外, 1992) 學力이 높을수록 出産兒數는 적으며, 이와 같은 樣相은 年齡別로 區分하였을 때도 같은 樣相을 보여, 妊娠危險은 높으면서 妊娠中斷率이 낮고 平均出産兒數도 적다는 것은 妊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要因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學力別 妊娠中斷率을 中斷原因別로 보면 自然流産에 의한 中斷率은 中卒以下가 7.1퍼센트, 高等學校 10.6퍼센트, 大學以上 10.5퍼센트로 中卒以下 婦人의 自然流産에 의한 中斷率이 高等學校나 大學以上 婦人보다 낮았다.

人工妊娠中絶의 경우는 中卒以下가 45.6퍼센트, 高等學校 33.4퍼센트, 大學以上 26.7퍼센트로서 中卒以下の 婦人에서 그 率이 상당히 높았다. 이와

表 6. 學力別 妊娠中斷率

(단위: %)

임 신 개월수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 이상
전체:			
2	18.4	19.8	17.0
3	46.5	38.9	34.5
4	51.2	42.0	35.0
9	52.8	44.4	37.7
3개월:			
자연유산	5.2	8.4	9.4
인공임신중절	41.4	30.5	25.1
6개월:			
자연유산	7.1	10.6	10.2
인공임신중절	45.4	33.4	26.7
9개월:			
자연유산	7.1	10.6	10.5
인공임신중절	45.6	33.4	26.7
사산	0.1	0.4	0.5

같은 人工妊娠中絶은 대부분 3個月以內의 妊娠初期에 일어났는데 그 率이 中卒以下 41.4퍼센트, 高等學校 30.5퍼센트, 大學以上 25.1퍼센트였다. 이와 같은 學力別 妊娠中絶의 特徵은 自然的으로 惹起되어 지는 自然流産이나 死産의 경우는 學力이 높을수록 높은 반면 人工妊娠中絶은 低學力 婦人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現象은 人工妊娠中絶이 現存子女數나 年齡과 밀접한 關聯이 있는 만큼, 보다 細部的인 分析이 要求 되지만, 低學力層을 對象으로 한 母子保健事業의 重點 推進으로 人工妊娠中絶을 減少시켜 母子保健向上을 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就業與否別 妊娠中斷率

婦人の過去와 現在の 就業與否에 따라 1) 無給家事從事 婦人, 2) 過去事業 또는 就業經驗이 있는 婦人, 3) 현재 事業經營 또는 就業中인 婦人으로 구분하여 妊娠의 終結狀態를 보았다. 就業經驗이 없는 無給家事從事 婦人の 妊娠中斷率은 50.5퍼센트였으며, 過去 事業 또는 就業經驗이 있는 婦人 42.1퍼센트, 현재 事業經營 또는 就業中인 婦人 54.8퍼센트로 현재 事業經營이나 就業中인 婦人の 妊娠中斷率이 가장 높았고, 과거 事業 또는 就業經驗이 있는 婦人の 妊娠中斷率이 가장 낮았다.

이를 다시 中斷原因別로 보면 自然流産은 無給家事從事 婦人 6.0퍼센트, 過去 事業 또는 就業經驗이 있는 婦人 10.4퍼센트, 현재 事業經營 또는 就業中인 婦人 9.9퍼센트로서 過去 事業 또는 就業經驗이 있는 婦人の 自然流産에 의한 妊娠中斷率이 가장 높았고 無給家事從事 婦人이 가장 낮았다.

表 7. 就業與否別 妊娠中斷率

(단위:%)

임신개월수	비취업	과거경험	현재취업
전체:			
2	18.0	17.4	24.0
3	46.7	36.6	48.5
4	48.6	39.8	52.5
9	50.5	42.1	54.8
3개월:			
자연유산	5.4	8.0	7.9
인공임신중절	41.3	28.7	40.5
6개월:			
자연유산	6.0	10.3	9.9
인공임신중절	44.1	31.4	44.5
9개월:			
자연유산	6.0	10.4	9.9
인공임신중절	44.1	31.4	44.7
사산	0.3	0.3	0.3

人工妊娠中絶에 있어서는 無給家事從事 婦人과 現在 事業經營 또는 就業中인 婦人이 비슷한 44.1 퍼센트, 44.7퍼센트인 반면 過去 事業 또는 就業經驗이 있는 婦人は 31.4퍼센트로서 서로 상반된 樣相을 보이고 있다. 過去 事業 또는 就業經驗이 있는 婦人이 어떤 緣由로 事業 또는 就業을 그만 두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無給家事從事 婦人 이나 현재 事業經營 또는 就業中인 婦人에 비하여 身體的으로 약한 반면, 人工妊娠中絶은 가능한 절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人工妊娠中絶이 身體에 미치는 影響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健康치 못한 婦人은 말할 것도 없고, 健康한 婦人이라도 그 위해는 무시할 수 없으므로 人工妊娠中絶은 自制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願치 않는 妊娠이 발생하지 않도록 事前豫防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3) 宗教別 妊娠中斷率

婦人の 妊娠中斷率을 婦人の 宗教別로 구분하여 보면 각 宗教間 그 差는 크지 않았다. 즉, 妊娠中斷率이 가장 높은 개신교를 믿는 婦人の 妊娠中斷率이 47.4퍼센트, 妊娠中斷率이 가장 낮은 카톨릭을 믿는 婦人이 43.5퍼센트로 그 差는 4.2퍼센트「포인트」였다. 이를 妊娠個月數別로 보면 2個月까지 카톨릭 21.0퍼센트, 無宗教 19.6퍼센트, 개신교 18.6퍼센트, 佛教 17.9퍼센트로서 카톨릭을 믿는 婦人の 2個月에서의 妊娠中斷率이 가장 높지만 9個月까지의 妊娠終結 結果에 따른 中斷率은 가장 낮아 카톨릭을 믿는 婦人の 경우 妊娠中斷이 대부분 早期에 일어나고 있었다. 이를 中斷原因別로 보면, 自然流産은 佛教를 믿는 婦人이 7.2퍼센트로 가장 낮은 반면 개신교 10.6퍼센트, 카톨릭 및 無宗教는 각각 10.3퍼센트로서 佛教를 믿는 婦人の 自然流産에 의한 中斷率이 他宗教나 宗教를 믿지 않는 婦人에 비하여 낮았다.

表 8. 婦人 宗教別 妊娠中斷率

(단위:%)

임신개월수	불 교	개신교	카톨릭	무종교
전체:				
2	17.9	18.6	21.0	19.6
3	38.8	42.3	39.7	40.5
4	43.0	44.6	43.0	43.6
9	45.6	47.4	43.5	45.8
3개월:				
자연유산	5.2	8.6	9.8	7.9
인공임신중절	33.6	33.7	29.9	32.6
6개월:				
자연유산	7.0	10.6	10.3	10.3
인공임신중절	38.2	36.2	32.7	35.1
9개월:				
자연유산	7.2	10.6	10.3	10.3
인공임신중절	38.2	36.2	32.7	35.3
사산	0.2	0.7	0.5	0.2

人工妊娠中絶에 의한 妊娠中斷率은 佛敎를 믿는 婦人이 38.5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카톨릭을 믿는 婦人이 32.7퍼센트로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이 佛敎를 믿는 婦人이 自然流産이나 死産으로 인한 妊娠中斷率은 낮은 반면 人工妊娠中絶率은 높고, 카톨릭을 믿는 婦人은 自然流産은 높은 반면 人工妊娠中絶率은 낮고 또 早期에 終結되고 있어, 카톨릭에서 人工妊娠中絶을 금하고 있는 것에 影響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子女數別 妊娠中斷率

妊娠中斷率을 妊娠 당시의 子女數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뚜렷한 特徵을 보이고 있다. 즉 子女數가 많을수록 妊娠中斷率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다. 子女가 없는 경우는 25.7퍼센트였으나, 子女가 2名이나 3名 以上인 경우 각

각 79.5퍼센트, 78.5퍼센트에 이르고 있어 큰 差異를 보이고 있다. 이는 2
 名 以上을 갖고 있는 婦人이 妊娠했을 경우 正常出産에 이르는 것은 1/4도
 못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現象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이를 中斷原因別로 보면, 自然流産은 子女가 없는 경우 11.5퍼센트이나
 子女가 많을수록 점차 낮아져 3名 以上인 경우는 4.6퍼센트였다. 人工妊娠
 中絶로 인한 中斷率은 2子女 以上이 約 73퍼센트로 높은 水準 이었으며, 子
 女가 없는 경우도 13.9퍼센트에 이르고 있었다.

이와 같이 妊娠中斷 原因別로 본 中斷率은 子女數가 적은 경우는 自然流産
 이, 子女가 많은 경우는 人工妊娠中絶에 의한 妊娠中斷率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특히 子女가 없는 경우도 人工妊娠中絶로 終結 되는 경우가 있는 것
 은 매우 危險스럽고 憂慮되는 現象이다. 母子保健事業은 人工妊娠中絶과 自

表 9. 子女數別 妊娠中斷率

(단위: %)

임신개월수	0	1	2	3+
전체:				
2	10.1	19.5	33.7	28.5
3	22.0	39.7	72.4	69.2
4	24.3	43.1	76.3	74.6
9	25.7	45.6	79.5	78.5
3개월:				
자연유산	9.2	7.9	5.1	2.3
인공임신중절	12.8	31.8	67.3	66.9
6개월:				
자연유산	11.5	10.0	6.3	4.6
인공임신중절	13.7	35.1	73.0	73.1
9개월:				
자연유산	11.5	10.0	6.5	4.6
인공임신중절	13.9	35.1	73.0	73.1
사산	0.3	0.5	-	0.8

然流産 그리고 死産을 최소화 하는데 力點을 두어야 함은 自明한 일이지만 이와 같은 現象이 어떠한 緣由로 發生하는지를 把握하여 이에 대처하는 方案이 講究 되어야 할 것이다.

5) 地域別 妊娠中斷率

地域別 妊娠中斷率은 都市地域이 46.4퍼센트, 農村地域이 43.8퍼센트로서 都市地域이 農村地域 보다 약간 높다. 이를 中斷原因別로 보면 自然流産에 의한 中斷率이 都市 10.1퍼센트, 農村 8.1퍼센트로서 都市가 農村 보다 2.0 퍼센트「포인트」가 높았다. 自然流産의 原因이 대부분 妊婦의 健康 狀態와 밀접한 關聯이 있음을 勘案 할 때 農村地域의 妊婦가 都市地域의 妊婦 보다 健康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身體的 條件以外에 自然流産을 誘發 시킬수

表 10. 地域別 妊娠中斷率

(단위:%)

임신개월수	도시	농촌
전체:		
2	20.4	12.6
3	41.3	36.3
4	44.1	41.6
9	46.4	43.8
3개월:		
자연유산	8.1	5.7
인공임신중절	33.2	30.6
6개월:		
자연유산	10.0	8.1
인공임신중절	35.9	35.3
9개월:		
자연유산	10.1	8.1
인공임신중절	36.0	35.3
사산	0.3	0.4

있는 社會·環境要因이 都市地域이 農村地域에 비하여 더 나쁘기 때문에 이와 같은 結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人工妊娠中絶에 의한 妊娠中斷率은 都市와 農村이 각각 36.0퍼센트, 35.3퍼센트로 그 差가 매우 적었다. 그러나 3個月까지의 人工妊娠中絶에 의한 妊娠中斷率이 都市가 33.2퍼센트이고 農村이 30.6퍼센트로 農村地域 보다 都市地域이 人工妊娠中絶이 早期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人工妊娠中絶 自體가 身體에 좋지 않은 影響을 주며, 妊娠이 進行 될 수록 그 危害는 더 커진다는 點을 都市地域의 妊娠婦人들이 農村地域의 妊娠婦人들 보다 認識을 잘하고 있기 때문일수도 있으나, 人工妊娠中絶을 하기로 決定한후 醫療機關利用이 農村地域 보다는 都市地域이 훨씬더 容易하다는 것도 한 要因일 수 있을 것이다.

6) 年齡別 妊娠中斷率

年齡에 따른 妊娠中斷率의 差異는 年齡이 높아짐에 따라 妊娠中斷率이 높아지는 뚜렷한 樣相을 보이고 있다. 이는 年齡이 높아 갈수록 避妊實踐率이 增加 특히 不妊手術受容率의 增加로 不願 妊娠 可能性은 낮아지지만 일단 妊娠이 되었을 경우 願하는 子女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妊娠의 相當수가 出産에 이르지 못하고 中斷되기 때문이다.

妊娠中斷 原因別 妊娠中斷率은 人工妊娠中絶이 全體 妊娠中斷중 15-24歲에서는 74.0퍼센트, 25-29歲 73.8퍼센트, 30-34歲 84.4퍼센트, 35-49歲 95.0퍼센트로 15-29歲 年齡層에서는 같은 水準이나 30歲 부터는 人工妊娠中絶에 의한 妊娠中斷率이 급격히 높아졌다. 또 自然流産에 의한 妊娠中斷은 人工妊娠中絶과는 반대로 全體 妊娠中斷중 15-24歲에서는 25.4퍼센트, 25-

表 11. 年齡別 妊娠中斷率

(단위:%)

임신개월수	15-24	25-29	30-34	35-49
전체:				
2	15.0	17.2	27.7	31.0
3	31.4	36.7	56.2	74.6
4	34.2	39.8	59.3	81.7
9	36.2	42.3	61.5	83.8
3개월:				
자연유산	7.5	8.2	8.1	0.7
인공임신중절	23.9	28.5	48.1	73.9
6개월:				
자연유산	8.9	10.6	9.6	3.5
인공임신중절	26.8	31.2	51.9	79.6
9개월:				
자연유산	9.2	10.6	9.6	3.5
인공임신중절	26.8	31.2	51.9	79.6
사산	0.1	0.5	-	0.7

29歲 25.1퍼센트, 30-34歲 15.6퍼센트, 35-49歲 4.2퍼센트로 15-29歲까지는 비슷한 水準이지만 30歲부터는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年齡이 增加할수록 妊娠中斷率は 높아지며, 그 原因은 주로 人工妊娠中絶에 의한 것이며, 年齡이 增加할수록 人工妊娠中絶에 의한 妊娠中斷率이 크게 增加한 반면 自然流産에 의한 妊娠中斷率は 낮았다.

4. 要約 및 結論

가. 要約

1) 1979-1990年 期間中 年度別 妊娠中斷率は 1979-1981年 期間동안은 40.3퍼센트였으나 1982-1987年 期間中에는 46.9퍼센트로 높아졌으며,

1988-1990年 期間中에는 다소 낮아져 45.9퍼센트가 出産에 이르지 못하고 妊娠이 終結되었다. 中斷原因別로 보면 自然流産은 1979-1981年 7.3퍼센트 水準에서 꾸준히 增加하여 1988-1990年에는 9.7퍼센트 水準이었고, 人工妊娠中絶은 1979-1981年 32.4퍼센트 水準에서 1982-1987年 期間중에는 約 38퍼센트 水準까지 增加하였으나, 1988-1990年에는 다시 낮아져 35.9퍼센트 水準이었다. 死産도 적은 差異지만 최근에 이를수록 다소 낮아졌다.

2) 年度別 妊娠個月數別 正常出産期待率은 妊娠初期에는 1982-1987年에는 1979-1981年 期間中 보다 낮아졌다가 1988-1990年에는 높아지는 v자 形態의 曲線을 나타내고 있고 妊娠 6個月 以後에서는 최근에 이를수록 점차 완만하게 높아지는 傾向을 보이고 있어 正常出産期待率은 점차 改善되고 있다.

3) 1988-1990.7月 期間중 妊娠에 대한 婦人特性別 差異는

- 學力이 높을수록 妊娠中斷率이 낮았다. 즉, 中卒以下가 52.8퍼센트, 高等學校 44.4퍼센트, 大學以上 37.7퍼센트였다. 中斷原因別로 보면 自然流産 및 死産은 高等學校以上에서 中卒以下 보다 높았고, 人工妊娠中絶은 學力이 높을수록 顯著하게 낮았다.

- 就業與否別 妊娠中斷率은 過去 事業 또는 就業 經驗이 있는 婦人이 42.1퍼센트로 가장 낮았고, 無給 家事從事婦人이 50.5퍼센트, 현재 事業經營 또는 就業中인 婦人이 54.8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原因別 妊娠中斷率은 自然流産은 過去 事業 또는 就業 經驗이 있는 婦人이 가장 높았고, 人工妊娠中絶은 無給家事 從事婦人과 現在 事業經營 또는 就業中인 婦人層이 높게 나타났다.

- 婦人 宗教別 妊娠中斷率은 개신교가 47.4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카톨릭이 43.5퍼센트로 가장 낮았으나 그 차는 비교적 적었다. 中斷原因別 妊娠中斷率은 自然流産이 佛敎를 믿는 婦人層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人工妊娠中絶은 가장 높았다.

○ 子女數別 妊娠中斷率は 子女가 많을수록 급격히 높아지는 傾向이 있다. 특히 2子女 以上에서는 約 80퍼센트에 가까운 妊娠中斷率을 나타냈다. 中斷原因別 妊娠中斷率は 子女가 적을수록 自然流産에 의한 妊娠中斷이 높고 人工妊娠中絶에 의한 妊娠中斷率이 낮았다.

○ 地域別 妊娠中斷率は 都市地域이 46.4퍼센트, 農村地域이 43.8퍼센트로 都市地域이 약간 높았다. 中斷原因別로는 自然流産과 人工妊娠中絶 모두 都市地域이 農村地域 보다 높았다.

年齡別 妊娠中斷率は 子女數와 같은 様相으로 年齡이 높을수록 妊娠中斷率は 급격히 増加하였다. 中斷原因別 妊娠中斷率は 특히 人工妊娠中絶에 의한 差異가 매우 컸다.

나. 結論

妊娠이 어떠한 形態로든 中斷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現象은 아닐 것이다. 自然的인 경우는 대부분이 願하는 妊娠이었던 點에서 그리고 人爲的인 경우는 生命의 尊嚴性的의 輕視와 母性健康의 沮害라는 側面에서 妊婦에게는 精神的 肉體的 損傷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社會·經濟의 發展과 꾸준한 母子保健事業의 推進 그리고 個人 意識水準의 變化로 母性健康에 대한 관심이 漸増되면서 母性健康을 沮害하는 要因이 점차 減少되고 있지만 아직도 불필요한 妊娠消耗로 母性健康을 沮害하고 있다. 특히 아직도 45.9퍼센트에 이르는 높은 妊娠中斷率は 그 原因이 어디에 있는 빠른 時日內에 改善 되어야 할 것이며, 自然流産이나 死産 그리고 人工妊娠中絶과 같은 妊娠中斷原因이 되고 있는 要因은 事前에 除去할 수 있는 事業의 推進이 필요하다.

流産의 경우 胎兒쪽 異常인 受精卵의 異常, 胎兒附屬物의 異常, 혈액형의 不適合과 母體쪽 異常인 子宮의 發育不全, 子宮의 異常, 매독이나 重症貧血 및 傳染病 등 疾病에 의한 것 그리고 肉體的 精神的 쇼크에 의한 것, 그 밖

에 호르몬 분비의 異常, 藥物에 의한것 등이 있으며(現代生活醫學, 1973), 이와 같은 것들은 事前에 充分한 注意를 기울인다면 어느 정도 豫防할 수 있으며, 또한 人工妊娠中絶도 철저한 避妊의 實踐으로 願치 않는 妊娠을 事前에 어느 程度는 豫防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關心을 기울인다면 妊娠中斷率은 크게 改善될 것으로 기대 된다.

參考文獻

- 高甲錫, “妊娠露出 및 妊娠消耗實態”, 韓國의 出産力變動과 展望,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 孔世權, 曹愛姐, 金勝權, 孫聖姬, 韓國에서의 家族形成과 出産行態, 韓國 保健社會研究院, 1992.
- 李奎植, 李任田, “差異出産力과 避妊實踐率”, 韓國의 出産力變動과 展望,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 張英植, 金勝權, “出産力과 關聯된 諸變數의 考察”, 韓國의 出産力變動과 家族計劃事業方向,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 韓聖鉉, 趙南勳, “人工妊娠中絶의 變動推移와 展望”, 韓國의 出産力 變動과 展望, 1987.
- 洪文植, 李任田, 李相暎, 人工妊娠中絶實態에 관한 研究,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0
-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人口增加率 1%達成의 意味와 向後展望, 1989.
- 保健社會部, 母子保健法 弘報, 1990.2
- 鮮文出版社, 現代生活醫學, 1973.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2.1-6月 期間중 政府支援 避妊施術受容者特性分析 (油印資料), 1992.
- Henry P. David, Abortion in Europe, 1920-91 : *Studies in Family Planing*, Vol.3 No.1 1992.
- Tietze, Christopher and Lewit, Sarah : Recommended Procedures for the Statistical Evaluation of Intrauterine Contraception,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4 No.2, Feb.1973.
- United Nations, *Abortion Policies*, vol.I, New York, 1992.

出産間隔別 人工妊娠中絶率의 變化

孔世權*·金勝權**·金初江***

1. 研究背景

人工妊娠中絶은 妊娠 자체나 그 妊娠으로 인한 出産이 保健·醫學的 또는 社會·倫理的 次元에서 도움이 될 수 없을 때, 이를 人爲的으로 中絶시키는 手術을 뜻한다(母子保健法, 14조 1항). 結果的 現象이긴 하지만 韓國에서의 人工妊娠中絶은 1962년 부터 家族計劃事業이 推進됨에 따라 避妊實踐率의 增加와 함께 成行한 逆說的인 面을 지니고 있다. 즉 1964년 有配偶婦人(15-44세)의 避妊實踐率이 10퍼센트 수준이었을때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은 약 7퍼센트 였고, 당시 婦人當 合計人工妊娠中絶率은 1.2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1976년에는 避妊實踐率이 약 44퍼센트로 증가되었으나 人工妊娠中絶 經驗率도 약 38퍼센트로 상승해 婦人當 合計人工妊娠中絶率은 2.3으로 추정 되었으며, 1991년에는 避妊實踐率이 약 79퍼센트,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은 약 53퍼센트, 婦人當 合計人工妊娠中絶率은 2.9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원치 않는 妊娠을 防止하기 위한 方法인 避妊의 實踐이 증가하고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研究委員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主任研究員

*** 梨花女子大學校 敎授

있음에도 불구하고 人工妊娠中絶率이 상승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避妊은 원치 않는 妊娠을 豫防하기 위한 手段이므로 避妊이 效果的으로 이루어졌다면 원치 않는 妊娠도 豫防되어 人工妊娠中絶은 감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避妊實踐率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妊娠을 解決하기 위한 手段인 人工妊娠中絶은 여전히 盛行하고 있다.

이제까지 각종 人工妊娠中絶에 관한 調査(1971, 1976, 1982, 1988년)結果를 검토하여 볼때 人工妊娠中絶이 종래까지만 해도 高學歷層, 多子女層, 그리고 高年齡層에서 盛行되었으나 최근에는 低學歷層, 少子女層, 그리고 年少層에서도 盛行하면서 未婚層에까지 만연되고, 이는 母性健康이나 社會·倫理的 側面에서 보다 주로 원치 않는 妊娠을 해결하기 위한 出産調節 側面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 이러한 妊娠中絶은 한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실시됨으로써 反復中絶이 전체 經驗者의 過半數에 이르고 있어 습관적으로 人工妊娠中絶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5-44세 有配偶 婦人の 약 80퍼센트가 避妊을 實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人工妊娠中絶이 이처럼 盛行되고 있는 것은 최근의 人工妊娠中絶이 주로 원치 않는 妊娠을 解決하기 위한 手段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그 原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避妊이 普遍化되긴 하였으나 人工妊娠中絶을 일종의 避妊方法으로 잘못 알고 있는 대상이 있을 수 있고, 둘째는 避妊을 受容하였으나 失敗로 妊娠이 되어 이를 人工妊娠中絶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세째는 아예 避妊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無計劃的 性生活(婚前 및 婚內·外 등)에 의한 妊娠이 되어 그러한 妊娠을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넷째는 妊娠 자체가 母性健康에 위험을 주거나 또는 妊娠期間中 配偶者의 死亡 등으로 子女養育이 어려울때 妊娠을 中絶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네가지 類型에서 앞의 세가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된다면

豫防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人工妊娠中絶과 避妊에 대한 충분한 啓蒙教育을 통해 원치 않는 妊娠을 避妊으로 豫防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 둘째, 避妊失敗로 인한 妊娠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避妊實踐者에 대한 指導管理를 철저히 하고, 셋째, 婚前 및 婚外 妊娠을 豫防하기 위한 性教育과 건전한 性生活를 위한 弘報啓蒙 強化 등이다. 따라서 人工妊娠中絶이 婦人の 可妊期中 어느 時期에서 盛行되고 있는지, 즉 結婚前, 첫 出産間隔 또는 둘째 出産間隔, 그리고 일정한 자녀를 둔 開放出産間隔 등의 어디에서 人工妊娠中絶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出産間隔別 人工妊娠中絶을 고찰함으로써 性教育 및 避妊教育, 그리고 避妊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는 時期 및 對象者 特性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分析은 年度別, 出産間隔別 人工妊娠中絶率의 變化와 이를 婦人特性別로 검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2. 研究方法

本 研究은 1991년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이 실시한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資料중 妊娠記錄內容을 分析한 것이다. 同 調査는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178개 調査區의 11,540 家口에 대한 家族特性和, 이들 家口內에 居住하는 15-49세의 既婚婦人 7,462명의 結婚, 避妊 및 出産行態, 그리고 婦人の 就業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는데, 여기서 出産行態는 婦人들이 일생동안 경험해온 妊娠歷을 기초로 한 것이며, 本 分析에서는 각각의 妊娠이 發生된 時期와 그 妊娠이 出産(정상출생, 사산), 人工妊娠中絶 및 自然流産중 어떤 형태로 終結되었는지, 그리고 그 終結時期는 물론 각각의 妊娠前後에서의 避妊樣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妊娠, 出産 및 避妊記錄票를 이용하였다.

出産間隔 즉 ① 結婚前(premarital stage), ② 結婚後 첫 出産까지

(earlier interval), ③ 첫째 出産後 둘째 出産까지(1st birth interval), ④ 둘째 出産後 마지막 出産까지(last closed interval after 2nd birth), 그리고 ⑤ 마지막 出産(出産經驗이 없는 경우는 結婚後부터)後 調査時까지(open interval)의 期間別로 妊娠樣相을 검토했으며, 아울러 各 間隔別 妊娠중 人工妊娠中絶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出産間隔別 人工妊娠中絶率이 年度別로 어떻게 변해왔고, 婦人特性別로 어떤 差異가 있는지도 檢討하였다.

3. 人工妊娠中絶의 盛行

人工妊娠中絶의 盛行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그 理由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최근 人工妊娠中絶이 주로 원치 않는 妊娠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먼저 더 이상 子女를 원치 않으면서 避妊을 하고 있는 對象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家族計劃事業은 모든 可妊期 婦人들에게 少子女를 갖도록 誘導하면서 避妊을 勸奨해 왔지만 실제로는 避妊서비스가 避妊需要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이는 1968년 調査에서는 婦人들의 理想子女數가 3.9명인데 비해 合計出産率(total fertility rate : TFR)은 4.2수준으로 理想子女數보다 많은 過多出産이 이루어졌다는 데서 알 수 있다.

물론 家族計劃事業은 避妊서비스를 擴大시켜 避妊需要를 充足시킨다는 점이 基本課題이지만 期待와 實狀은 늘 乖離가 있어 家族計劃事業의 주요 問題點이기도 했다. 특히 韓國의 家族計劃事業은 要員中心의 避妊普及 目標量制度¹⁾가 운영되면서 目標量 達成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對象者들은 避

1) 家族計劃事業에서 避妊普及 目標量制度는 一線 家族計劃要員에게 要員當 避妊方法別 普及目標量을 配定하고 이를 普及하도록 하는 下向式 서비스制度임.

妊知識이 不足한 상태에서 避妊을 受容했으며, 자신에게 알맞는 避妊方法의 選擇도 어려웠고, 또 適期의 避妊서비스 受惠도 용이치 않았다. 물론 避妊서비스가 모든 對象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量的인 避妊普及만을 위주로 할때 質的인 避妊管理가 어려웠던 점은 주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1974년 調査에서는 妊娠이 가능한 狀態의 婦人(15-44세)중 더 이상 子女를 원치 않으면서 避妊을 않는 對象이 약 56퍼센트에 이르렀고, 1982년 調査에서는 14.4퍼센트로, 그리고 1991년 調査에서는 10.6퍼센트로 나타나 이들이 원치 않는 妊娠이 된 경우 대부분 人工妊娠中絶을 受容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은 子女를 더 이상 원치 않아 避妊을 實踐하였지만 避妊失敗가 되어 妊娠이 된 경우 대부분 人工妊娠中絶로 歸結되는 점이다. 최근에 이를수록 이와 같은 避妊失敗로 인한 妊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表 2>에서 잘

表 1. 妊娠이 可能한 狀態(exposed status)에 있는 婦人(15-44세)의 年齡別 더 이상 子女를 願치 않으면서 避妊을 않고 있는 百分率

(단위:%)

연 령	1974	1982	1991
전 체	56.3	14.4	10.6
15-24	77.0	12.7	6.7
25-29	60.2	20.0	10.0
30-34	54.8	14.9	10.2
35-39	49.1	9.9	9.7
40-44	61.4	11.5	17.6

資料: 經濟企劃院, 家族計劃研究院, 1974년 韓國出生力 調査: 1次 報告書, 1977.
 文顯相 外, 1982年 全國 家族保健實態調査報告,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2.
 孔世權 外, 韓國에서의 家族形成과 出生行態,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2.

나타난다. 1974년 이전의 總 妊娠중 避妊失敗로 인한 妊娠은 3.2퍼센트에 불과했지만 1980-1984년간의 妊娠에서는 13.8퍼센트로, 그리고 1990-1991년간의 妊娠에서는 19.5퍼센트로 증가하였다. 또한 避妊失敗로 인한 妊娠은 주로 人工妊娠中絶로 歸結되는 경향이 강하였는데 이는 妊娠類型別 分析에서 뚜렷이 나타났는 바, 避妊을 受容하지 않은 상태에서 妊娠한 경우의 人工妊娠中絶率은 24.5퍼센트에 불과하지만 避妊失敗로 인한 妊娠에서는 79.4퍼센트를 나타내어 失敗妊娠에서의 人工妊娠中絶率은 非失敗妊娠의 경우보다 3배 이상 높았다(金勝權, 1992).

따라서 家族計劃事業은 避妊失敗로 인한 妊娠이 늘어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74년 부터 月經調節術(menstrual regulation: MR)을 普及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月經調節術은 1974년에 2,195건에 불과했지만 1975-1979年間은 174,381건(年平均 34,876건)으로, 1980-1984年間은 746,355건(年平均 149,271건)으로, 그리고 1985-1989年間은 786,445건(年平均 157,289건)으로 증가했으며 1990년 이후부터 家族計劃事業은 이를 위한 施術費 支援을

表 2. 既婚婦人(15-49세)의 總妊娠중 避妊失敗로 인한 妊娠率(A) 및 避妊失敗로 인한 妊娠의 妊娠中絶率(B)

구 분	(단위:%)				
	-1974	1975-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1
피임실패로 인한 임신율(A)	3.2	9.2	13.8	16.6	19.5
실패임신의 임신중절율(B)	62.3	82.7	79.0	80.8	84.8
(피임실패임신수)	(215)	(556)	(927)	(897)	(277)

資料: 金勝權, “우리나라 婦人의 避妊失敗妊娠과 人工妊娠中絶에 관한 研究”, 保健社會論集, 제12권 제1호,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2 (재구성).

제한하여 1990-1991年間에는 10,649건으로 감소하게 되었지만 이제까지 月經調節術은 총 172만건에 달하고 있다.

세번째, 人工妊娠中絶은 既婚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婚前, 婚外는 물론 未婚層에서도 盛行하고 있다. 특히 韓國은 급속한 産業化와 함께 初婚年齡이 上昇되면서 性的 慾求가 강한 시기를 獨身으로 보내야 하는 期間이 길어졌고, 또 性文化의 開放은 性이 快樂의 道具 내지 商品化로 까지 轉落되면서 婚前 또는 婚外 性問題가 露出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性이 結婚과 出産으로 連繫되는 사회·윤리적 고리가 아무런 有用性을 갖지 못하게 되면서 婚前 및 婚外 性問題가 社會問題化되고 있다. 결국 性은 社會制度나 規範의 次元에서 自制되지 못할때 性病의 蔓延은 물론 私生兒의 増加와 人工妊娠中絶의 盛行도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1991年 出産力調査 結果에 의하면 既婚婦人(15-49세)들이 經驗한 人工妊娠中絶중 子女를 원치 않기 때문에 手術을 한 경우가 첫번째 中絶에서는 약 75퍼센트, 두번째 中絶에서는 약 82퍼센트, 그리고 세번째 中絶에서는 약 88퍼센트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健康上 理由나 社會·經濟的 理由로 手術한 경우는 첫번째 中絶에서는 약 28퍼센트, 두번째 中絶에서는 약 19퍼센트, 그리고 세번째 中絶에서는 약 13퍼센트로 감소되어 妊娠中絶回數가 증가함에 따라 人工妊娠中絶은 出産調節 目的에서 주로 盛行(孔世權 外, 1992)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韓國에서 人工妊娠中絶은 어느 정도 盛行하고 있을까? 關聯調査에 따르면 우리나라 有配偶 婦人의 人工妊娠中絶은 1961년 出産 1,000건당 105수준으로 약 10만건, 1970년에는 出産 1,000건당 370으로 약 33만건(Tietze, 1979), 1984년에는 出産 1,000건당 746으로 약 53만건(林鐘權 外, 1988), 그리고 1990년은 出産 1,000건당 678로 약 42만건으로 추정(孔世權 外, 1992)되어 有配偶 婦人層에서의 人工妊娠中絶은 감소되고 있었다. 따라

서 有配偶婦人の 人工妊娠中絶 経験率は 1964년에 약 7퍼센트가 1976년에 약 38퍼센트로, 그리고 1985년에는 약 53퍼센트로 증가하였으나, 1980년 이후 不妊手術 普及이 擴大되면서 35세 이상의 高年齢層은 약 2/3가 不妊手術을 받게 되어 1991년 調査에서는 53퍼센트 수준으로 停滯狀態에 있다. 그러나 年少化 趨勢를 나타내어 전체 人工妊娠中絶의 약 77퍼센트를 20代가 차지함으로써 低年齢層에서 中絶적으로 盛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뿐만 아니라 未婚層(18-34세)을 對象으로 실시한 調査결과(孔世權 外, 1992)에서도 미혼자의 임신중(임신경험율: 약 5%) 80퍼센트 이상이 人工妊娠中絶로 귀결되었으며, 또 1990년 病醫院을 對象으로 한 人工妊娠中絶實態 調査에서는 病醫院에서 施術한 人工妊娠中絶件數(6,040건)중 약 33퍼센트(洪文植 外, 1990)가 未婚層에 의한 것으로 1979년의 약 25퍼센트(林鐘權 外, 1979)보다 증가한 것이어서 未婚層의 人工妊娠中絶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既婚婦人の 人工妊娠中絶은 감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未婚層의 人工妊娠中絶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妊娠中絶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 分析結果

가. 年度別 人工妊娠中絶率

모든 妊娠은 出産(정상출생 및 사산)이나 流産(인공임신중절 및 자연유산)으로 이어진다. 1991년 調査資料에서 15-49세 既婚婦人이 經驗한 年度別 全體 妊娠의 妊娠終結形態는 <表 3>과 같다. 妊娠중 人工妊娠中絶로 終結된 경우는 1974년 이전 妊娠에서 15.4퍼센트였으며, 1980-1984年間の 妊娠에서는 36.3퍼센트로, 그리고 1990-1991年間の 妊娠에서는 49.4퍼센트로 증가했다. 1990년 이후의 妊娠에서는 현재 妊娠中인 경우를 제외하였는데, 妊娠

表 3. 年度別 妊娠의 終結形態

(단위:%)

종결형태	전체	-1974	1975-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1
정상출생	61.8	78.1	61.9	55.6	53.4	38.0
사산	0.6	0.8	0.5	0.6	0.4	0.1
자연유산	7.2	5.7	6.3	7.5	8.9	12.5
인공유산	30.4	15.4	31.3	36.3	37.3	49.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임신수)	(25,978)	(6,777)	(6,055)	(6,698)	(5,417)	(1,031)

註: 무응답 및 현재 임신중인 경우 제외함.

期間이 길수록 出産으로 終結될 可能性이 높으며, 流産으로의 終結은 妊娠期間이 3개월 전후의 一部 婦人들일 것이다. 따라서 1990년 이후 妊娠의 終結狀態에서는 現在 妊娠중인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人工妊娠中絶로의 終結이 다소 높게, 出産으로의 終結이 다소 낮게 분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앞으로의 분석에서 나타나는 1990년 이후의 全體妊娠 對比 人工妊娠中絶率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아뭇튼 年度別 趨勢로 보아 그 隔差의 程度는 있으나 최근 妊娠일수록 人工妊娠中絶로의 終結이 높은 수준임을 나타내었다. 自然流産率은 1974년 以前 妊娠에서는 5.7 퍼센트였으며, 점차 증가하여 최근 妊娠에서는 12.5 퍼센트였다. 그리고 死産率은 1974년 이전 妊娠에서는 0.8퍼센트가 점점 감소하여 최근 妊娠에서는 0.1퍼센트로 낮은 수준이었다.

婦人特性別, 年度別 人工妊娠中絶率은 <表 4>와 같다. 즉 人工妊娠中絶은 1974년 이전 妊娠에서 妊娠 1,000건당 154건에 불과했지만 1980-1984년 妊娠에서는 363건, 그리고 1990-1991년간에는 492건으로 최근의 妊娠에서 人工妊娠中絶로의 終結이 높았다. 이를 婦人年齡別로 보면, 30세 이상은 1974년 이전의 妊娠에서는 妊娠 1,000건당 人工妊娠中絶이 392건이었으나 최근

表 4. 婦人特性別, 年度別 人工妊娠中絶率

(단위: 임신천당)

특 성	-1974	1975-1979	1980-1984	1985-1989	1990- 1991
전체:	154.3	313.1	363.1	372.7	491.8
당시연령:					
-24	96.5	169.3	193.9	263.3	420.1
25-29	200.0	311.2	364.0	339.2	407.8
30+	392.4	559.7	638.2	626.2	690.2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139.0	315.2	391.6	444.5	591.1
고등학교	210.0	315.5	332.2	344.5	471.5
대학이상	225.2	279.3	323.7	283.4	387.8

註: 무응답 및 현재 임신중인 경우 제외함.

에는 690건으로 증가한 반면, 25-29세에서는 200건이 408건으로, 그리고 24세 미만은 97건이 420건으로 증가해 전 年齡層에 擴散되고 있으며, 특히 年少化 現象이 뚜렷함을 보여주고 있다. 教育水準別 人工妊娠中絶率は 1974년 이전 妊娠에서는 高學歷일수록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1970년대 중반의 妊娠부터는 低學歷일수록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이는 최근의 妊娠일수록 더욱 현저함을 보인다.

나. 出産間隔別 人工妊娠中絶率

本 分析은 既婚婦人の 妊娠歷을 기초로 生涯過程중 人工妊娠中絶率이 어느 時期에서 盛行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데 그 焦點이 있다. 즉 出産間隔別로 總妊娠중 人工妊娠中絶로의 終結이 어떠한가를 검토하였다. 여기서 出産間隔은 ① 結婚을 中心으로 한 婚前, ② 婚後 첫 出産까지, ③ 첫 出産後 둘째 出産까지, ④ 둘째 出産後 막내 出産까지, 그리고 ⑤ 막내 出産後(또는 出産經驗이 없는 경우는 結婚後 調査時까지) 調査時點까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出産間隔은 婦人이 경험한 出産數에 따라서 달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妊娠을 기초로 結婚以後에 妊娠經驗이 전혀 없는 對象은 本 分析에서 제외하였고, 妊娠經驗은 있으나 出産經驗이 없는 對象은 그 妊娠이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婚前·後로 구분했으며, 結婚後에 이루어진 경우는 開放出産間隔(open birth interval)에서도 고려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出産間隔別 人工妊娠中絶率은 해당 出産間隔內에서의 總 妊娠 對比 人工妊娠中絶率을 의미하는 것이다.

全體 既婚婦人중 婚前妊娠 經驗率은 약 16퍼센트(孔世權 外, 1992)였으나 婦人들의 總妊娠(25,978건)중 婚前妊娠은 약 5퍼센트에 불과하다. 여기서 婚前妊娠이 婚前出産으로 이어진 경우(0.6%)도 있어 이러한 경우는 出産間隔別 分析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婦人들이 經驗한 總妊娠을 結婚 및 出産間隔別로 보면 婚前妊娠이 약 5퍼센트였고, 婚後 첫 出産까지의 妊娠과 첫 出産後 둘째 出産까지의 妊娠은 각각 약 27퍼센트였으며, 둘째 出産後 마지막 出産까지의 妊娠은 약 18퍼센트로 閉鎖出産間隔(closed birth interval)에서의 妊娠이 약 77퍼센트를 차지하였고, 開放出産間隔(open birth interval)에서의 妊娠이 약 23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妊娠의 出産間隔別 人工妊娠中絶率은 <表 5>와 같다. 즉 婚前妊娠 1,000건당 妊娠中絶率은 233이었고, 婚後 첫 出産까지는 68, 첫 出産後 둘째 出産까지는 164, 둘째 出産後 막내 出産까지는 183, 그리고 開放出産間隔에서는 856에 이르렀다. 이처럼 부인들은 주로 일정 子女를 둔 후에는 원치 않는 妊娠이 된 경우 人工妊娠中絶로 그 妊娠을 終結시키는 경향이 현저하며, 婚前妊娠에서 이루어진 약 23퍼센트의 人工妊娠中絶은 그 妊娠이 結婚과는 無關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出産間隔別 妊娠중 人工妊娠中絶率을 婦人特性別로 살펴보면 農村에서 보다는 都市에서 현저히 높았고, 24세 이하의 젊은 층일 수록 閉鎖出産間隔에서 높았다. 또 教育水準別 妊娠

表 5. 既婚婦人の 出産間隔別 人工妊娠中絶 様相

(단위: 임신천당)

특 성	결혼전	폐쇄출산간격			개방출산 간 격
		결혼후 첫출산	첫출산후 둘째출산	둘째출산후 막내출산	
지역:					
전국	232.8	67.9	164.4	183.0	856.2
도시	241.3	73.9	181.9	220.0	856.1
농촌	181.3	45.9	101.5	120.4	857.4
연령:					
15-24	228.4	74.3	180.6	199.4	713.1
25-29	246.2	55.1	156.0	187.2	829.7
30+	125.0*	51.5	118.0	157.1	915.3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220.8	58.0	124.5	164.0	911.0
고등학교	242.6	86.4	209.9	245.8	796.4
대학이상	234.2	44.9	217.3	260.6	745.1

* 는 임신수가 50 미만임

註: 무응답 및 현재 임신중인 경우 제외함.

中絶率は 大學 以上の 教育水準에서는 첫째 또는 둘째 出産後에 높은 반면, 高等學校 教育水準에서는 婚前妊娠에서, 그리고 中學校 以下の 教育水準에서는 開放出産間隔에서 현저히 높았다. 이것은 高年齡層일 수록 多子女를 두고, 낮은 教育水準에 있기 때문에 開放出産間隔에서 높은 것이며, 低年齡層일 수록 少子女를 두고 高學歷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婚前 내지는 閉鎖出産間隔에서 높은 것이라 思料된다.

한편 出産間隔別 人工妊娠中絶率의 年度別 變化는 <表 6>과 같다. 전반적으로 出産間隔의 어느 時期에서나 人工妊娠中絶率의 増加를 엿볼 수 있지만 婚前妊娠率의 증가와 함께 이러한 妊娠이 妊娠中絶로 終結되는 양상은 1974년 이전 까지만 해도 19퍼센트 수준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30퍼센트 전후의

表 6. 出産間隔別 人工妊娠中絶率의 變化

(단위: 임신천당)

출산간격	-1974	1975-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1
결혼전	192.8	216.7	213.9	297.5	363.6*
결혼후-첫출산	41.0	65.4	73.4	100.8	40.7
첫출산-둘째출산	101.1	164.4	189.6	222.0	363.6*
둘째출산-마지막출산	159.8	202.1	176.0	211.4	24.4*
개방출산간격	914.2	940.9	928.8	900.7	805.1

* 는 실수가 50미만임.

註: 무응답 및 현재 임신중인 경우 제외함.

높은 수준에 있었다. 또 婚後 첫 出産까지의 妊娠은 종래까지만 해도 대부분 正常出生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 이를 수록 妊娠中絶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90년 이후 임신은 제외)은 女性の 社會的 役割이 다양해 지면서 일시적으로 出産을 忌避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일정한 자녀를 둔 후(開放出産間隔)에 원치 않는 妊娠을 했을 경우는 이를 대부분 人工妊娠中絶로 終結하는 양상이었는데, 이는 全體 妊娠의 약 90퍼센트 이상이 妊娠中絶로 終結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부인특성별로 보면 <表 7>-<表 11>과 같다. 먼저 婚前 人工妊娠中絶率は 1974년 이전의 妊娠에서는 妊娠 1,000건당 人工妊娠中絶率は 193이던 것이, 1980-1984년간의 妊娠에서는 214로, 그리고 1990-1991년간의 妊娠에서는 364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妊娠中絶의 增加는 주로 24세 이하의 低年齡層과 中學校 以下の 低學歷層에서 현저한 樣相을 볼 수 있다(表 7 參照). 특히 최근에 이를 수록 젊은 층의 都市로의 移動으로 家族과 別居形態를 많이 이루고 있고, 또 異性間의 交際도 확대되면서 結婚을 전제로 했건, 또는 그렇지 않건 간에 婚前妊娠이 增加되고 이러한 妊娠이 人工妊娠中絶로

表 7. 結婚前 人工妊娠中絶率의 變化

(단위: 임신천당)

특 성	-1974	1975-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1
전체:	192.8	216.7	213.9	297.5	363.6*
연령:					
-24	189.1	221.7	213.8	321.7	294.1*
25-29	225.8*	200.0*	209.0	260.9	466.7*
30+	-	-	333.3*	125.0*	-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177.8	220.0	212.8	313.3	666.7*
고등학교	245.5	212.8	218.3	289.5	384.6*
대학이상	-	157.9*	227.3*	309.5*	-

* 는 실수가 50미만임.

註: 무응답 및 현재 임신중인 경우 제외함.

귀결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結婚後 첫 出産까지의 妊娠에서는 人工妊娠中絶率이 비교적 낮았지만 1980년대 까지의 妊娠에서는 人工妊娠中絶率의 上昇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1974년 妊娠에서는 妊娠 1,000건당 41이던 人工妊娠中絶率이 1985-1989년간의 妊娠에서는 101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주로 24세 이하의 低年齡層과 中學校 以下の 低學歷層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表 8 參照).

첫 出産後 둘째 出産까지의 妊娠중 人工妊娠中絶率은 24세 이하의 年齡層이 1974년 이전 妊娠에서는 100 이던 것이 1985-1989년간의 妊娠에서는 291로 약 3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結婚後 첫 出産까지 妊娠에서의 132 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低年齡層에서의 人工妊娠中絶 増加는 상당함을 보여 준다(表 9 參照). 둘째 出産後 막내 出産까지의 人工妊娠中絶率은 1974년 이전 妊娠에서 160 이던 것이 1985-1989년간의 妊娠에서는 211 이어서 큰

表 8. 結婚後 첫 出産間隔에서의 人工妊娠中絶率 變化

(단위: 임신천당)

특 성	-1974	1975-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1
전체:	41.0	65.4	73.4	100.8	40.7
연령:					
-24	40.6	79.3	86.7	131.8	44.8
25-29	44.4	42.6	53.9	69.6	42.6
30+	-	162.2*	16.7	52.6	-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36.4	69.4	73.6	102.6	40.0*
고등학교	58.2	87.9	78.4	112.6	44.6
대학이상	39.6	28.8	57.3*	47.4	27.8*

* 는 실수가 50미만임.

註: 무응답 및 현재 임신중인 경우 제외함.

表 9. 첫 出産에서 둘째 出産間隔에서의 人工妊娠中絶率 變化

(단위: 임신천당)

특 성	-1974	1975-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1
전체:	101.1	164.4	189.6	222.0	363.6*
연령:					
-24	100.3	200.0	230.4	290.5	294.1*
25-29	102.5	139.4	167.2	208.6	466.7
30+	96.8*	103.4	153.8	139.7	-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77.2	132.6	150.1	198.5	666.7*
고등학교	151.7	209.5	230.1	234.4	384.6
대학이상	271.6	214.3	197.6	234.4	-

* 는 실수가 50미만임.

註: 무응답 및 현재 임신중인 경우 제외함.

表 10. 둘째 出産에서 마지막 出産間隔에서의 人工妊娠中絶率 變化

(단위: 임신천당)

특 성	-1974	1975-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1
전체:	159.8	202.1	176.0	211.4	24.4*
연령:					
-24	208.9	219.8	242.4	230.8*	-
25-29	151.6	220.7	198.5	245.5	-
30+	123.3	164.7	172.3	160.3	50.0*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135.3	186.9	166.7	233.2	50.0*
고등학교	251.2	275.0	240.7	222.2	-
대학이상	318.2*	222.2*	377.4	55.6*	-

* 는 실수가 50미만임.

註: 무응답 및 현재 임신중인 경우 제외함.

변화를 볼 수 없었지만 이러한 人工妊娠中絶은 주로 低年齡과 高學歷層에서 높았다(表 10 參照).

그러나 開放出産間隔에서는 妊娠의 약 80퍼센트 이상이 妊娠中絶되고 있었다. 즉 1974년이전 妊娠에서 妊娠中絶率は 914에 이르렀으며, 이는 1990-1991년간의 妊娠에서 805로 감소된 양상이지만 30세 이상 高年齡層과 中學校 以下の 低學歷層에서는 90퍼센트 이상이 人工妊娠中絶되고 있었다(表 11 參照).

開放出産間隔에서의 人工妊娠中絶率は 開放出産間隔이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냐에 따라서 차이가 컸다. 즉 子女를 두지 않은 狀態에서 結婚後 調査時까지와, 1명의 子女를 둔 후 調査時까지, 그리고 2명 이상의 子女를 둔 후 調査時까지 등 現存子女數에 따라 相異하였다. 여기서 子女가 없는 상태는 1985년 이전의 妊娠에서는 그 數가 적기 때문에 有意性이 없지만 1985-1989년간 妊娠에서는 妊娠 1,000건당 644 이었고, 1990-1991년의 妊娠에서는 570 이었다. 또 1명의 子女를 둔 경우도 1985-1979년간 妊娠에서는 900

이었고 1990-1991년의 妊娠에서는 740 으로 감소했으며, 2명 이상의 子女를 둔 경우는 1974년 이전 妊娠에서는 922 이었으며 1975-1989년 妊娠에서는 940수준, 그리고 1990-1991년 妊娠에서는 923을 나타내고 있어 큰 變化가 없었다(表 12 參照).

表 11. 開放出產間隔에서의 人工妊娠中絶率 變化

(단위: 임신천당)

특 성	-1974	1975-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1
전체:	914.2	940.9	928.8	900.7	805.1
연령:					
-24	877.2	797.5	816.2	838.0	784.3
25-29	912.7	947.8	933.6	887.5	737.5
30+	939.8	951.3	940.8	927.2	890.8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905.4	941.2	933.0	918.6	872.8
고등학교	928.6	934.9	913.0	884.5	775.5
대학이상	950.0*	890.6	924.4*	885.0	767.1

* 는 실수가 50미만임.

註: 무응답 및 현재 임신중인 경우 제외함.

表 12. 開放出產間隔에서의 子女數別 人工妊娠中絶率 變化

(단위: 임신천당)

자녀수	-1974	1975-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1
전체	914.3	927.4	928.9	900.7	805.1
없음	-	428.6*	478.3*	644.1	569.6
1명	875.0*	900.0	878.6	835.9	740.1
2명이상	922.2	946.5	941.8	940.4	922.5

* 임신수가 50미만임

註: 무응답 및 현재 임신중인 경우 제외함.

이상과 같은 樣相을 婦人特性別로 볼 때 地域間 差異는 거의 없었으나, 2명 이상의 子女를 둔 경우는 妊娠의 약 90퍼센트 이상이 人工妊娠中絶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高年齡層일 수록 현저하였고, 教育水準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子女가 없는 경우는 30세 이상의 年齡層과 中學校 以下の 學歷에서 妊娠의 약 1/2이상이 妊娠中絶을 하고 있었고, 1명의 子女를 둔 경우도 子女가 없는 경우와 같이 30세 이상과 中學校 以下에서 妊娠의 3/4 이상이 人工妊娠中絶로 처리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人工妊娠中絶은 子女數에 의하여 거의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子女가 없는 경우의 總妊娠 對比 人工妊娠中絶數는 295였고, 1子女인 경우는 700, 2자녀 이상인 경우는 거의 모든 妊娠이 人工妊娠中絶로 처리되는 수준인 934를 보인 점에서 알 수 있다(表 13 參照).

表 13. 開放出産間隔에서의 特性別, 子女數別 人工妊娠中絶率

(단위: 임신천당)

특 성	없음	1명	2명 이상	전체
거주지:				
전국	295.4	701.1	933.6	856.2
도시	296.4	695.6	939.0	856.1
농촌	288.9*	735.3	910.6	857.4
연령:				
-24	378.8	723.8	878.0	713.1
25-29	168.8	670.9	936.3	762.7
30+	525.0*	767.1	937.7	915.3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525.4	785.5	933.8	911.0
고등학교	281.0	678.3	930.8	796.5
대학이상	122.8	583.3	937.1	745.1

* 임신수가 50미만임.

註: 무응답 및 현재 임신중인 경우 제외함.

5. 綜合檢討

人工妊娠中絶의 增加는 母性健康 뿐만 아니라 社會倫理面에서도 副作用이 확대되어 세계각국은 이를 合理化함으로써 그 對策을 강구하려는 추세에 있다(Tietze et al., 1986). 물론 人工妊娠中絶의 合理化는 社會·文化 또는 宗教的 背景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이는 대개 醫學的 理由나 社會·倫理的 理由 또는 經濟的 理由 등에 限定하고, 手術은 가급적 妊娠初期에 실시하여 母性健康의 危險을 줄이려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韓國에서 人工妊娠中絶은 1960년대 이후 家族計劃事業 推進과 함께 母性健康의 側面에서보다 주로 원치 않는 妊娠을 解決하기 위한 점에서 盛行되어 왔다. 人工妊娠中絶率은 1960년대 초기만 해도 高年齡·多産層에서 더 이상 子女를 갖지 않기 위한 斷産目的이었으나 최근에는 年少·少産層에서 出産遲延 내지는 터울調節 目的뿐만 아니라 婚前에 計劃되지 않은 妊娠까지도 解決하려는 점에서 成行하고 있다. 물론 人工妊娠中絶率은 아직도 일정자녀를 둔 후인 開放出産間隔에서 가장 높지만 최근에 이를 수록 婚前妊娠의 증가와 함께 婚外妊娠을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出産遲延 내지는 터울調節을 위한 目的으로도 成行되고 있는 실정이다.

1973년에 母子保健法이 制定·公布되면서 人工妊娠中絶手術의 許容限界(14조)는 ① 優生, 遺傳, 精神障礙나 身體疾患이 있는 경우, ② 傳染性 疾患이 있는 경우, ③ 強姦 또는 準強姦에 의한 妊娠의 경우, ④ 血族 또는 姻戚間 妊娠의 경우, 그리고 ⑤ 妊娠이 母性健康에 위협이 있는 경우로 限定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許容限界는 法律上的 限界에 불과할 뿐 실재는 언제, 어디서나 人工妊娠中絶手術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이미 人工妊娠中絶手術을 경험한 婦人의 약 48퍼센트가 人工妊娠中絶을 어떠한 경우에도 許容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그 許容範圍를 모르는 경우도 약 14퍼센

트에 이르고 있어, 전체 부인중 약 62퍼센트가 이러한 法律 자체를 모르거나 許容限界를 잘못 알고 있는 가운데 妊娠中絶手術을 체험하였음을 생각할 수 있다.

本 分析結果에 의하면 年度別 全體 妊娠중 人工妊娠中絶率은 1974년 이전 妊娠코호트에서는 약 15퍼센트 수준이었으나, 1980-1984년 妊娠코호트에서는 약 36퍼센트로, 그리고 1990-1991년 妊娠코호트에서는 약 49퍼센트로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妊娠 1,000件當 妊娠中絶率은 年少層일 수록, 그리고 低學歷層일 수록 증가해 24세 이하 年齡層의 경우 1974년 이전 妊娠에서는 약 10퍼센트이던 것이 1990-1991년간의 妊娠에서는 약 42퍼센트로 증가했고, 중학교 이하의 學歷은 1974년 이전 妊娠에서는 약 14퍼센트였으나 1990-1991년간의 妊娠에서는 약 59퍼센트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최근 人工妊娠中絶은 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면서 이는 주로 避妊을 하지 않았던 경우와 避妊하다가 失敗한 경우, 그리고 計劃하지 않았던 婚前妊娠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避妊失敗로 인한 妊娠에서는 약 85퍼센트가, 婚前妊娠에서는 약 23퍼센트가, 그리고 開放出産間隔에서는 약 86퍼센트가 妊娠中絶로 終結되었다.

이러한 人工妊娠中絶의 盛行은 妊娠中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최근 調査結果는 人工妊娠中絶을 경험한 부인의 약 1/4이, 그리고 人工妊娠中絶을 경험하지 않은 부인의 약 1/5이 妊娠中絶을 避妊方法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이는 大學 以上の 敎育을 받은 부인중에서도 약 1/5에 달하였다(孔世權 外, 1992). 그것은 婦人들이 아직도 避妊이 무엇이고, 妊娠中絶이 무엇인지를 區分하지 못하고 있으며, 人工妊娠中絶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어 이제까지의 避妊敎育이 일종의 弘報形態로만 이루어져 왔음을 생각할 수 있다. 즉 避妊에 대한 認知率은 높지만 구체적인 知識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避妊方法을 옳게 使用하지 못하거나, 또는 副作用에 대한 이

해도 부족하여 效果의인 避妊이 어렵기 때문에 避妊失敗로 인한 妊娠도 늘어나고, 이러한 妊娠을 대부분 人工妊娠中絶(金勝權, 1992)로 처리하고 있음은 人工妊娠中絶의 惡循環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또한 人工妊娠中絶은 특정 社會階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地域間, 教育水準間, 또는 宗教間 差異도 없이 누구나 원치 않는 妊娠일 경우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드리고 있었다. 특히 人工妊娠中絶은 健康上 理由(93%)나, 性暴行 또는 強姦에 의한 妊娠(98%), 婚前妊娠(87%)은 물론 胎兒鑑別에 의한 원치 않는 性을 妊娠한 경우(32%)까지도 개인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중절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인식(孔世權 外, 1992)이 人工妊娠中絶의 수용이 불가피한 경우 뿐만 아니라 惡用의 경우까지 있는 느낌마저 준다. 이처럼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肯定的 意識은 종래까지만 해도 既婚層에 국한되었으나, 高齡層이 不妊手術을 받게되면서 年少化 추세를 나타내었고, 또 최근에는 未婚層에까지 만연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性文化의 開放과 함께 靑少年 등의 未婚階層에서 性問題가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점과 연관된다. 未婚層의 性問題는 先進國 뿐만 아니라 開發途上國에서도 深化되면서 이는 人工妊娠中絶과 불가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UN, 1989). 産業化에 따른 晩婚化와 性の 開放은 婚前妊娠을 增加시켜 1965-1969년의 結婚코호트에서의 婚前妊娠率은 10퍼센트 내외이던 것이 1975-1979년 結婚코호트에서는 약 17퍼센트로, 그리고 1985-1989년의 結婚코호트에서는 약 19퍼센트로 증가하였다(孔世權 外, 1992). 최근 調査에서 나타난 未婚者의 妊娠經驗은 25-29세 여성의 약 8퍼센트, 또 30-34세 여성의 약 31퍼센트에 달하였고, 이러한 妊娠의 약 90퍼센트 이상이 人工妊娠中絶로 終結되었음은 婚前妊娠이 人工妊娠中絶 増加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6. 結論

人工妊娠中絶의 盛行은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家族計劃事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것은 家族計劃事業이 避妊서비스를 확대시켜 원치 않는 妊娠을 예방하였을때 人工妊娠中絶은 감소될 수 있다는 因果論에 따른 것이다. 물론 家族計劃事業은 이를 추진할 당시부터 “人間生命을 그 受胎된 때부터 尊重하려는 道義運動이요, 肉體的·精神的으로 母子의 健康을 위하여는 公衆保健 運動이요, 또 國民經濟水準을 向上하여 현실 생활에 보람을 느끼게 하려는 文化運動”(大韓家族計劃協會, 1991)이라는 理念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理念은 理念 자체에 불과했을 뿐 실재는 人口增加抑制을 위한 出産調節에만 중점을 두면서 家族計劃事業 後期에는 避妊失敗로 인한 妊娠을 오히려 人工妊娠中絶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면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人工妊娠中絶은 個人이 원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手術이 가능할 수 있는 放置狀態에 있게 되었고, 또 家族計劃事業은 避妊을 하다가 失敗한 妊娠을 人工妊娠中絶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물론 최근 人工妊娠中絶은 대부분의 國家에서 盛行趨勢에 있고, 이러한 手術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가능한 경우는 世界人口의 약 39퍼센트에 달한다. 또 人工妊娠中絶이 出産調節目的으로 실시되는 國家는 대부분 社會主義 國家들로 그 대표적인 예는 中國과 獨立國家聯合(舊 蘇聯)의 경우이며 이들 두 國家에서는 合法的 妊娠中絶만도 年間 약 2천 5백만건 이상(Tietze et al., 1986)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예가 理想的이지는 않지만, 韓國의 경우도 비슷한 상태여서 최근 全體 妊娠(기혼부인의 마지막 임신)중 원치 않는 妊娠이 약 47퍼센트에 달하고, 이러한 妊娠의 약 81퍼센트가 人工妊娠中絶로 처리 되고 있어 人工妊娠中絶의 대다수가 出産調節目的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人工妊娠中絶의 出産調節 效果에 대한 기대로 이를 放置할 수만은 없으며, 만약 해결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家族計劃事業의 새로운 課題가 아닐 수 없다. 人工妊娠中絶이 母性健康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出血이나 腰痛에서부터 死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Tietze et al., 1986)하며, 첫번째 妊娠中絶 經驗者중 26.3퍼센트, 두번째 妊娠中絶 經驗者중 31.1퍼센트가, 그리고 세번째 이상의 最終 妊娠中絶 經驗者중 42.3퍼센트가 健康上 支障을 호소(孔世權 外, 1992)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회수가 늘어날 수록 健康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됨을 엿볼 수 있었다. 人工妊娠中絶은 保健·醫學的 側面뿐만 아니라 社會·倫理的 또는 出産調節 등 多角的 側面에서의 論議도 절실히 요구된다. 人工妊娠中絶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도 당위성을 찾기는 어려우며, 性과 妊娠, 그리고 出産이라는 生理的인 觀點에서만 생각할 수 없다. 왜 원치 않는 妊娠이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왜 그 妊娠을 中絶해야 하며, 그 弊端이 어떠한 것인지를 광범하게 論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妊娠된 胎兒도 하나의 독립된 生命體임이 분명한데 이를 孕胎한 母性과 父性이 그 生命體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殺害할때 人間生命의 尊嚴性마저 상실될 수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人工妊娠中絶이 주로 원치 않는 妊娠을 해결하기 위한 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이제까지 避妊普及이 이러한 원치 않는 妊娠을 豫防하려는 점과 相反된 結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家族計劃事業은 약 80퍼센트라는 높은 수준에 있는 避妊實踐率에 만족할 수만은 없으며, 왜 이토록 원치 않는 妊娠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人工妊娠中絶로 終結되어야만 하는지에 염두를 두어야 하겠다. 人工妊娠中絶을 일종의 避妊方法으로 알고 있는 경우나, 避妊을 實踐하다가 失敗해 원치 않는 妊娠을 하게 된 경우, 그리고 무절제한 婚前 또는 婚外の 性行爲로 원치 않는 妊娠을 하게 된 경우를 생

각할 때 性敎育 내지 避妊敎育의 擴大는 물론 質的인 避妊서비스가 並行되어야 하며, 避妊普及對象者 뿐만 아니라 既 避妊을 受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事後管理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또한 一定子女를 둔 開放出產 間隔에서의 妊娠中絶率이 높은 수준에 있음을 증시하여 이들 階層에 있는 婦人들이 보다 科學的이고 安全한 避妊方法으로 轉換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出產防止 中心의 事業推進 외에도 母性健康이나 원치 않는 妊娠의 防止 등 현재의 문제점치유 측면에 중점을 둔 事業推進을 하여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金勝權, “우리나라 婦人의 避妊失敗妊娠과 人工妊娠中絶에 관한 研究”,
保健社會論集, 제12권 제1호,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2.
- 孔世權, 朴仁和, 權熙琬, 韓國家族計劃事業: 1961-1980, 家族計劃研究院,
1980.
- 孔世權, 曹愛姐, 金勝權, 孫聖姬, 韓國에서의 家族形成과 出產行態, 韓國保健
社會研究院, 1992.
- 文顯相, 咸喜順, 申成姬, 1982年 全國 家族保健實態調查 報告, 韓國人口保健
研究院, 1982.
- 文顯相, 李任田, 吳英姬, 李相暎, 1988年 全國 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 卞鐘和·高甲錫, 1978年 家族計劃 및 出產力 調查, 家族計劃研究院, 1979.
- 李時伯, 朴丙台, 崔淳, “婚前妊娠經驗 婦人의 出產水準 考察”, 家族計劃論集
제5권, 1978.
- 林鐘權, “韓國의 人工妊娠中絶實態 考察” 人口保健論集, 제8권 제2호, 韓國
人口保健研究院, 1988.
- 林鐘權, 李相暎, 裴花玉, “韓國의 人工妊娠中絶實態”, 人口保健論集, 제9권
제1호,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 林鐘權, 宋泰玟, “韓國의 人工妊娠中絶實態 考察”, 人口保健論集, 제4권 제2
호, 1984.
- 林鐘權, 崔富玉, 人工妊娠中絶 實態에 관한 研究-中都市 地域의 施術機關을
中心으로, 家族計劃研究院, 1979.
- 韓聖鉉, 趙南勳, “人工妊娠中絶의 變動推移와 展望”, 最近 韓國의 出產力
變動과 展望,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6.
- 洪文植, 李任田, 李相暎, 人工妊娠中絶實態에 관한 研究, 韓國保健社會研究
院, 1990.
- 經濟企劃院, 家族計劃研究院, 1974년 韓國出產力調查: 1次 報告書, 1977.
- Tietze, Christopher, *Induced Abortion : 1979*, The Population Council,
New York, 1979.

Tietze Christopher and Stanley K. Henshaw, *Induced Abortion A World Review 1986*, The Alan Guttmacher Institute, 1986.

United Nations, *Adolescent Reproductive Behaviou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ESA/SER.A/109/Add.I, New York, 1989.

United Nations, *Abortion Policies*, Vol.I,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ST/ESA/SER.A/129, New York, 1992.

人工妊娠中絶의 變動 推移

洪文植*·吳英姬**

1. 序論

최근 WHO 보고에 의하면 年間 可妊年齡層 婦人 1,000名當 32-42件의 人工妊娠中絶이 실시되므로써 약 3,600萬 내지 5,300萬件의 人工임신중절이 해마다 恣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WHO, 1992). 또한 同 報告에 따르면, 대부분의 나라가 人工임신중절을 法的으로 허용하되 허용범위는 나라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즉 世界人口의 25퍼센트를 차지하는 52個 국가는 임신 자체가 母體의 生命에 위험이 있을 때 人工妊娠中絶을 法的으로 허용하고, 12퍼센트를 차지하는 42個 국가는 보다 광범위한 醫學的 理由, 이를테면 一般건강상 위협이나 遺傳的 이유, 또는 強姦 등에 의한 임신에 대해 人工妊娠中絶을 法的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23퍼센트를 차지하는 13個國은 社會醫學的 이유로도 허용하는가 하면 세계인구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25個 국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人工임신중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法的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같이 人工妊娠中絶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人工妊娠中絶이 非合法的으로 은밀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研究委員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主任研究員

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충분한 資質을 갖추지 못한 의사나 또는 사이비 의사에 의하여 安全性이 결여된 상태로 자행될 경우 母性 死亡 내지 母性健康에 問題가 됨을 여러 專門家들이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人工妊娠中絶은 역사적으로도 出産調節의 手段으로 널리 성행되었고 이러한 점은 최근에 이르러 地域別, 社會階層別 差異가 없이 一般化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이 法的으로 보다 자유롭게 허용된 나라에서는 그 결과가 婦人의 건강상 危害面에서 보다 극소화되고 있음에 반해 인공유산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그 조건이 까다롭고 엄격한 나라에서는 不法의 인공임신중절이 자행되므로써 生命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부인의 건강상 危害가 보다 크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UN, 1992).

구체적으로 人工妊娠中絶이 法的으로 許容되고 있는 일반적인 조건들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根本的인 바탕을 前提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① 母性の 生命 ② 母性健康 ③ 強姦등 犯罪的 결과 ④ 胎兒의 不具 ⑤ 社會經濟的 理由 ⑥ 기타 無條件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UN, 1992).

우리나라의 경우도 1973年 2月 8日 공포 시행된 母子保健法 제2조 제6항에서 “人工妊娠中絶이라 함은 胎兒가 母體 밖에서 生命을 유지할 수 없는 時期(妊娠한 날로부터 28週以內: 母子保健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母體 밖으로 排出시키는 手術을 말한다”로 정의되고 있는 이 人工妊娠中絶 手術은 동 母子保健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한 許容範圍 內에서만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그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洪文植 外, 1990).

- 1) 本人 또는 配偶者가 優生學的 또는 遺傳學的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2) 本人 또는 配偶者가 傳染性 疾患이 있는 경우

- 3) 強姦 또는 準強姦에 의하여 妊娠이 된 경우
- 4) 법률상 婚姻할 수 없는 血族 또는 姻戚間에 임신된 경우
- 5) 妊娠의 지속이 保健學的 이유로 母體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와같이 人工妊娠中絶은 全世界的으로 法的 許容과 더불어 盛行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인의 건강상 危險으로부터 완전히 解放될 수 없는 문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그 때문에 人工妊娠中絶은 될수록 防止되어야 한다는 것이 또한 공통적인 關心事로 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은 法的 適否 與否에 관계없이 願하지 않은 妊娠을 出産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出産力에 미치는 人口學的 영향은 오래 전부터 매우 큰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특히 劃期的인 實例로써 1948年 日本의 優生保護法 制定으로 인공임신중절의 擴散에 의한 出産力 低下와 이와 반대로 루마니아에서의 인공임신중절의 自由化를 法律로 제한함에 따른 出産力 水準의 上昇 등을 들 수 있다(崔仁鉉 外, 1981).

우리나라의 경우도 1973年の 人工妊娠中絶 合法化 以前부터 인공임신중절은 社會的으로 확산되었고 구체적으로는 1964년에 有配偶婦人의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이 10.7퍼센트였으며(保健社會部, 1965), 1972년에 이미 30퍼센트였다(宋建鏞 外, 1974). 이는 다시 人工妊娠中絶이 合法化된 以後 1975년에는 39퍼센트로 增加하였고(朴丙台 外, 1978), 1978년에는 49퍼센트(林鐘權 外, 1989), 그리고 1987년에는 52퍼센트(文顯相 外, 1989)로 지속적인 증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62年の 政府家族計劃事業 實施 以來 避妊實踐率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人工妊娠中絶 經驗率도 함께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人工妊娠中絶이 出産力 低下에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洪文植 外, 1990).

그러나 人工妊娠中絶은 願하지 않은 妊娠을 正常出産으로 終結지우지 않

고 도중에서 手術로 종결시키는 出産忌避 수단이므로 철저한 避妊에 의하여 不願妊娠을 건전하게 豫防하므로써 이를 防止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避妊의 増加와 더불어 최근에는 人工妊娠中絶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過去보다 젊은층에서 보다 擴散되고 특히 一部地域의 資料이긴 하지만 病醫院에서 관찰된 人工임신중절의 1/3이 未婚女性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事實(洪文植 外, 1990)을 상기할때 人工妊娠中絶은 既婚女性 중심의 母性保護라는 차원 뿐만 아니라 婚姻與否와 관계없이 生殖機能에 갖추어진 모든 여성들의 肉體的, 精神的 건강과 社會的 건전성의 保全을 위해 보다 깊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人工妊娠中絶의 原因은 간단히 말해서 妊娠後의 胎兒나 母性 健康上 理由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願하지 않은 妊娠을 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願하지 않은 妊娠의 原因은 避妊을 실천했으나 失敗를 했기 때문이거나 임신을 願하지 않으면서도 具體的인 避妊方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前者의 경우는 보다 철저한 避妊管理로 예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後者の 경우에서 人工임신중절을 避妊에 준하는 경미한 出産防止 수단으로 잘못 인식하고, 이를 예사로 受容하는 女性이 많다면 무엇보다 이들을 올바르게 깨우쳐 주는 일이 중요하고, 避妊의 餘裕가 없이 이루어진 婚外情事나 強姦 내지 準強姦 등 불가피한 경우는 社會적으로 건전한 性道德의 伸張은 물론 특히 여성들의 주의환기에 間斷없는 家庭的, 社會的 關心과 努力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990年 트비리시 宣言(The Tbilisi Declaration)에서도 여성의 生殖健康 및 人工임신중절의 公衆保健上의 問題點과 피임에 의한 人工임신중절의 감소 및 임신중절에 관한 法的 影響에 대해 강조하고, 人工임신중절의 豫防을 위한 철저한 對策을 호소하고 있다(WHO, 1990).

出産力이 선진국 수준으로 거의 정착되고 있는 우리로서는 母性健康을 위

한 노력으로서의 인공임신중절의 防止에 대한 지금까지의 노력은 소홀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人工妊娠中絶의 推移를 밝혀 앞으로의 母子保健政策面에서 보다 정확한 視覺으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本研究의 意味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資料 및 分析方法

本研究에 이용한 자료는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이 全國 標本調査에 의해 실시한 「1991年度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資料 중에서 15-49歲 有配偶婦人 7,110名을 對象으로 人工妊娠中絶 및 出産力和 관련된 變數를 이용하여 分析하였다.

本研究에서는 첫째, 出産力和 人工妊娠中絶率의 變化推移를 검토하고, 둘째, 1970年 以後에 발생한 모든 妊娠 22,925件의 終結形態 및 이에 관련된 要因을 分析하였다. 셋째, 1975年 以後에 발생한 모든 人工妊娠中絶 6,558件에 대하여 人工妊娠中絶時 婦인들의 人口學的 特性 및 인공임신중절 前·後의 避妊實踐狀態를 관찰하고, 끝으로 人工妊娠中絶에 미치는 要因을 파악하기 위해 出産이 거의 진행된 30歲以上の 有配偶婦人 5,272名을 대상으로 回歸分析을 하였다.

3. 出産率 變動과 人工妊娠中絶率의 變動推移

가. 出産率 變動과 人工妊娠中絶

우리나라의 出産率 變動은 1962년부터의 政府家族計劃事業 도입과 더불어 1980年代 下半期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減少를 이룩하여 1984년에 이미 代置水準에 도달했고, 1987년에는 그보다 훨씬 낮은 1.6으로 낮아져 그 水準

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와같은 出産率의 減少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겪고 있는 현상은 아니고 대부분의 人口政策을 강조하고 있는 開發途上國에서 경험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다른 開發途上國보다 그 速度가 훨씬 빠르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60年代부터 1984년까지의 우리나라 出産力 變動狀況은 戰後 1947년부터 1960年代까지의 日本의 출산력 변동추이와 비슷한 樣相을 보이고 있다(Ogawa N., et al., 1983: The Population Problem Research Council, 1986). 出産率의 變動은 원래 社會, 經濟, 文化的 要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런 측면에서 急進的인 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이에 政府의 政策的 意志와 노력의 투입이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보다 積極的이고 有效한 때문이라 평가할 수 있다.

出産率이 낮아진다는 것은 全 可妊年齡層의 一定數의 女性가운데 年間 出産되는 아기의 絶對數가 줄어든다는 사실인데, 이러한 出産數의 變動은 직접적으로 妊娠의 數的 減少에 기여하는 避妊과 妊娠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임신이 出産으로 이어지지 않고 終結될 경우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出産調節政策에 의한 避妊普及의 지속적인 확산이 出産率 低下에 절대적 역할을 했음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少子女觀의 확산과 더불어 避妊普及이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避妊에 失敗하는 경우라든가 放任狀態이면서도 避妊을 아니하고 願하지 않는 妊娠을 한 경우의 많은 女性들이 이를 人工妊娠中絶로 종결시킨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은 出産率의 低下에 기여하는 直接的인 要因으로 크게 작용해 왔다. 避妊方法의 受容率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人工妊娠中絶率도 상당한 増加를 계속했고 人工妊娠中絶率이 出産力 低下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이 많은 研究結果에서 제시되고 있다(林鐘權 外, 1984).

日本의 경우 1945-1948年 사이에 인구의 急増現象이 나타났는데, 이는 韓

國人 등 戰後 150餘萬名의 외국인이 일본을 떠난데 반해 在外 日本人들이 더 많이 歸國하므로써 약 500萬名의 純人口增加를 기록했으며, 여기에 戰後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1947年과 1949年 사이에는 해마다 平均 270萬名의 出産을 기록하여 일본의 人口는 1945年의 7,200萬에서 1950년에는 무려 8,320萬으로 급증했다. 여기에서 식량, 주택부족 등 過剩人口 問題의 심각성이 이해되므로써 出産을 抑制해야겠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불과 2-3年の 戰後 베이비붐이 끝나고 出産率이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출산율의 下降은 아직 피임이 技術面에 있어서나 普及側面에서 발전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1948年 人工임신중절 合法化에 따른 人工妊娠中絶의 擴散이 그 主要 因으로 작용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JOICFP, 1981).

한편 避妊이 生活化되어 避妊實踐率이 높고 受容된 피임방법의 효과가 높을 경우 出産率 低下에 미치는 영향은 피임이 絶對的일 것이고 相對的으로 人工임신중절은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人工妊娠中絶 부인의 경험율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1960年代부터 계속 증가하여 1985년에 53퍼센트까지 올라갔으나, 그 이후는 增加趨勢가 멈추고 1991年에도 53퍼센트 수준으로 멈추어 있으며(孔世權 外, 1992), 日本의 경우도 人工임신중절이 성행했던 1940年代 後半부터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이 계속 상승하여 1960년경 부인의 40퍼센트까지 올라갔으나 1967년에는 32퍼센트로 떨어진 후 계속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은(韓聖鉉 外, 1987) 避妊效果에 의한 有配偶婦人들의 人工妊娠中絶 減少에서 비롯된 結果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有配偶 婦人들의 不妊施術受容 擴大와 더불어 점차 개선되는 避妊效果에 의한 人工妊娠中絶의 減少傾向이 1980年代부터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年齡別 特殊出産率 및 人工妊娠中絶率

年齡別 特殊出産率과 人工妊娠中絶率은 각각 年齡層의 變化 유형을 알아

보는데 큰 意味가 있는 것이다. 1980年代 後半까지 合計出産率은 지속적으로 低下되었지만 各 年齡層의 特殊出産率은 연령군에 따라 그 변화의 폭이 크고 작은 差異가 있거나 부분적으로는 반대로 增加하기도 하는 多樣性を 보여주는 데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 25歲以上の 各 年齡群에서는 1960年代以後부터 1987년까지 出産率이 떨어졌는데 比해 20-24歲群에서는 1976년까지는 급격한 減少를 보였다가 1984년까지는 다시 上昇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그以後는 급격히 減少하는 特異한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反面에 25-29歲群과 30-34歲群에서는 1987年보다 1990年에 지난 1984年 水準으로 다시 上昇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年齡別 出産率의 變化양상에 따라 合計出産率이 現水準에서 다소 變化할 수도 있을 것이다(表 1 参照).

이러한 年齡別 出産率의 變化양상과 비교하여 年齡別 人工妊娠中絶率의 變化樣相은 또 다른 特性을 나타내고 있다. 즉 <表 2>에서와 같이 人工妊娠中絶率은 30歲 以上에서는 1976년까지 急増現象을 지속하다가 1980年代에 와서는 反轉하여 계속 급격한 減少現象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29歲 以下の 젊은 연령층에서는 지속적인 增加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年齡別 特性은 특히 1980年代에 不妊施術의 보급확대로 斷産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30代以上 高年齡層의 婦人들이 不妊受容에 의해 人工임신중절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아직도 不妊受容率이 낮은 젊은 婦人層에서 避妊 失敗妊娠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不願妊娠이 人工임신중절 受容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아 人工妊娠中絶率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年齡別 人工妊娠中絶率의 변화는 앞으로의 避妊實踐 類型의 변화에 따라 계속 變化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989年以後 계속 줄어들고 있는 政府支援 不妊施術 物量普及에 따라 斷産을 희망하는 많은 부인들이 不妊受容보다는 一時的인 避妊方法을 사용하는 경향으로 변한다면 人工

表 1. 年度別 年齡別 出生率 : 1960-1990

연 령	1960 ¹⁾	1971 ¹⁾	1976 ¹⁾	1982 ¹⁾	1984 ¹⁾	1987 ²⁾	1990 ²⁾
전 국:							
15-19	37	6	10	12	7	3	3
20-24	283	188	147	161	162	104	62
25-29	330	341	275	245	187	168	188
30-34	257	234	142	94	52	39	50
35-39	196	124	49	23	8	6	7
40-44	80	41	18	3	1	3	1
45-49	14	3	1	-	-	-	-
TFR	6.0	4.7	3.2	2.7	2.1	1.6	1.6
시 부:							
15-19	22	3	5	6	8	1	1
20-24	223	166	163	137	155	92	54
25-29	316	316	258	229	183	165	184
30-34	250	196	120	87	53	40	52
35-39	184	91	36	9	5	4	6
40-44	81	29	11	4	-	4	-
45-49	-	3	3	-	1	-	-
TFR	5.4	4.0	2.8	2.4	2.0	1.5	1.5
군 부:							
15-19	48	9	16	25	4	9	9
20-24	291	211	173	217	182	156	115
25-29	354	363	278	286	200	177	201
30-34	308	266	173	110	48	35	41
35-39	237	114	54	29	17	13	12
40-44	115	49	26	3	2	3	3
45-49	-	4	-	-	-	-	-
TFR	6.7	5.2	3.6	3.3	2.3	2.0	1.9

資料: 1) 李奎植 外, “差異出生率과 避妊實踐率”, 韓國의 出生力 變動과 展望,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2) 孔世權 外, 韓國에서의 家族形成과 出生行態,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2.

表 2. 年度別 有配偶婦人(20-44歲)의 年齡別 人工妊娠中絶率

연 령	1960 ¹⁾	1971 ¹⁾	1976 ¹⁾	1982 ²⁾	1984 ³⁾	1987 ³⁾	1990 ³⁾
전 국:							
20-24	16	28	63	74	91	102	186
25-29	29	50	86	158	146	103	112
30-34	58	111	158	146	115	71	60
35-39	40	94	153	106	40	29	21
40-44	-	46	75	48	20	7	6
시 부:							
20-24	29	46	95	82	98	102	187
25-29	43	67	99	171	162	108	116
30-34	93	99	200	170	130	76	61
35-39	65	140	178	108	40	28	22
40-44	-	54	78	48	21	6	4
군 부:							
20-24	6	19	28	62	77	100	181
25-29	18	38	67	122	100	89	96
30-34	33	77	106	94	75	55	52
35-39	22	77	128	103	41	31	22
40-44	-	37	73	48	19	10	11

- 資料: 1) 韓聖鉉 外, “人工妊娠中絶의 變動推移와 展望”, 韓國의 出産力 變動과 展望,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2) 林鐘權, “韓國의 人工妊娠中絶實態 考察”, 人口保健論集, 제8권 제2호,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8.
 3) 孔世權 外, 前掲書, 1992.

임신중절을은 30代 以後의 年齡層에서도 증가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避妊類型의 變化가 長期的으로 확산된다면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와 함께 合計出産率의 上昇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政府 不妊普及物量의 감소에 대응하여 協會등 民間團體의 적극적인 활동과 醫療保險을 통한 자율적인 不妊受容 慣行이 일반화된다면 出産率의 再上昇이나 人工妊娠中絶率의 再上昇 등 逆作用에 대한 問題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 人工妊娠中絶率과 中絶實數의 變化

우리나라 女性의 人工妊娠中絶에 대한 全國의인 조사자료는 有配偶婦人에만 한한 것 뿐이다. 韓國保健社會研究院에 의해 每 3年마다 실시되고 있는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 資料가 유일한 전국적 조사로서 人工妊娠中絶에 관한 事項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人工妊娠中絶이 우리나라 全 女性 가운데서 몇 件이나 일어나고 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分析에서는 흔히 調査年度別로 人工임신중절률의 變化를 有配偶婦人에 있어서 合計人工妊娠中絶率 개념으로 年度別 人工妊娠中絶率의 上昇과 下降의 比較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이러한 有配偶 婦人의 合計人工妊娠中絶率의 變化는 有配偶 婦人의 人工妊娠中絶率의 실제 變化와는 큰 差異를 가질 수 있는 요소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의 이러한 方法의 比較는 정확치 못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5-19歲 또는 20-24歲의 젊은 年齡層에서 유배우부인의 人工임신중절률이 높아졌다면 合計人工妊娠中絶率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이 年齡群에서의 結婚率은 극히 낮기 때문에 合計出産率과 같은 概念으로는 人工妊娠中絶率이 높아졌다거나 낮아졌다고 해석하는 것은 適用 不當한 것이다. 따라서 本 稿에서는 年度別로 유배우부인의 年齡別 人工妊娠中絶率을 적용하여 各 年齡群別 人工妊娠中絶 實數를 산출하고 이의 總數를 比較하는 한편, 年度別 人工妊娠中絶 總數를 當 年度 總 有配偶婦人數로 나누어 1,000名當 人工妊娠中絶數를 제시하므로써 유배우 부인들에 의한 人工임신중절율의 實質的인 變化推移를 제시하였다.

〈表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0년부터 有配偶 婦人의 人工妊娠中絶 實數는 29萬餘件에서 1975년에는 51萬餘件, 1981년에는 59萬餘件으로 늘었다가 1984년에는 有配偶 婦人이 계속 增加하는 데도 불구하고 49萬餘件으로 크게

表 3. 年度別 有配偶婦人(20-44歲)의 人工妊娠中絶數 推定

연 령	여자 ¹⁾ 인구수	유배우율 ²⁾ (%)	유배우 부인수	인공임신 ³⁾ 추정인공 중절을 임신중절수	부인천명 당 I.A. 수
1970:					71.5
20-24	1,254,177	42.3	530,517	28	14,854
25-29	1,128,863	88.4	997,915	50	49,896
30-34	1,107,757	94.6	1,047,938	111	116,321
35-39	946,541	92.0	870,818	94	81,857
40-44	771,329	84.8	654,087	46	30,088
합 계			4,101,275		293,016
1975:					112.8
20-24	1,503,991	37.2	559,485	63	35,248
25-29	1,245,439	86.8	1,081,041	86	92,970
30-34	1,108,634	94.4	1,046,550	158	165,355
35-39	1,085,681	93.2	1,011,855	153	154,814
40-44	932,497	88.2	822,462	75	61,685
합 계			4,521,393		510,072
1981:					113.3
20-24	2,083,708	33.7	702,210	74	51,964
25-29	1,607,206	84.9	1,364,518	158	215,598
30-34	1,241,977	94.3	1,171,184	146	170,993
35-39	1,098,311	93.4	1,025,822	106	108,737
40-44	1,088,528	90.1	980,764	48	47,077
합 계			5,244,498		594,365

줄어들었고 다시 1990년에는 40萬餘件으로 계속 줄어들어 1980年代 以後에 人工妊娠中絶이 크게 減少되고 있는 추세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減少 趨勢를 有配偶婦人 1,000名當 年間 人工妊娠中絶 件數로 표시한 것을 보면 이러한 減少趨勢가 더욱 명확하다. 즉 1970年の 婦人 1,000名當 71.5件에서 1975년에는 112.8件으로 急増했다가 1981년에는 113.3件으로 거의 增加 現象이 멈추었고, 그 以後 1984년에는 89.1件, 1990년에는 다시 63.6件으로 1973年 人工妊娠中絶이 합법화되기 以前인 1971年の 71.5件보다도 훨씬 낮

表 3. 繼續

연 령	여자 ¹⁾ 인구수	유배우율 ²⁾ (%)	유배우 부인수	인공임신 ³⁾ 추정인공 중절률	임신중절수	부인천명 당 I. A. 수
1984:						89.1
20-24	2,128,638	27.8	591,761	91	53,850	
25-29	1,924,720	80.9	1,557,098	146	227,336	
30-34	1,396,598	93.3	1,303,026	115	149,848	
35-39	1,180,667	93.3	1,180,667	40	44,062	
40-44	1,107,894	90.4	1,001,536	20	20,031	
합 계			5,554,983		495,127	
1990:						63.6
20-24	2,083,470	19.2	400,026	186	74,405	
25-29	2,095,146	77.6	1,625,833	112	182,093	
30-34	2,007,325	92.5	1,856,776	60	111,407	
35-39	1,463,766	92.3	1,351,056	21	28,372	
40-44	1,219,208	90.4	1,102,164	6	6,613	
합 계			6,335,855		402,890	

資料: 1) 經濟企劃院, 1960-1985年 推計人口, 1988.12
 經濟企劃院, 1987 人口動態申告 結果 및 將來人口推移, 1989.10
 統計廳, 將來人口推移(1990-2021年), 1991.4
 2) 經濟企劃院, 1970,1980,1985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 1972,1982,
 1987.
 統計廳, 1990년 人口住宅總調査 2% 標本速報集計結果, 1991.8
 3) 孔世權 外, 前掲書, 1992.

은 水準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바람직한 減少 現象은 前述한 바와 같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婦人
 들이 不妊을 수용했고 避妊實踐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결과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 보다 效果의이고 완벽한 避妊實踐과 적기의 避
 妊受容 등에 의해 人工妊娠中絶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
 러한 가능성은 지속적인 避妊서비스 改善과 家庭, 學校, 社會에 이르는 모
 든 생활과정에서 生殖敎育과 性敎育, 및 避妊敎育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프
 로그램과 서비스의 向上이 수반되는 데서 實現될 수 있을 것이다.

라. 妊娠結果

出産率이 떨어지는 것은 避妊에 의한 妊娠의 절대수가 줄어드는 것과 발생된 妊娠이 出産까지 연결되는 비율이 줄어드는 두가지 요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人工妊娠中絶의 절대수나 中絶率 그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해서 실제 妊娠이 正常 出産으로 終結되는 比率이 반드시 높아진다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妊娠終結은 妊娠에서 出産에 이르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損耗가 생기느냐 하는데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人工妊娠中絶率은 1980年代 以後 크게 減少되어 왔음이 밝혀졌지만, 妊娠가운데 正常出産으로 이어지는 比率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즉 <表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0年代 前半에는 妊娠의 74퍼센트가 正常出産으로 이어졌으나 1985-1991년에는 妊娠의 절반밖에 안되는 51.2퍼센트만이 正常出産으로 終結되었을 뿐이다. 그동안 死産은 0.8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줄었고 自然流産은 6.2퍼센트에서 9.6퍼센트로 약간 높아졌을 뿐 대부분의 妊娠損耗는 人工妊娠中絶에 의하여 增加되어 왔다. 즉 1975-79년에는 30.8퍼센트, 1980-1984년에는 35.9퍼센트, 그리고 1985-1991년에는 39.0퍼

表 4. 妊娠年度別 妊娠結果

	(단위:%)			
임신결과	1970-74	1975-79	1980-84	1985-91*
총임신건수	3,999	5,692	6,465	6,380
(%)	(100.0)	(100.0)	(100.0)	(100.0)
정상출생	74.0	62.2	55.9	51.2
사산	0.8	0.6	0.6	0.3
자연유산	6.2	6.4	7.5	9.6
인공임신중절	19.0	30.8	35.9	39.0

* 현재 임신중인 389건 제외.

表 5. 妊娠年度別 妊娠順位別 妊娠結果

(단위: %)

임신결과	1970 - 1974					1975 - 1979				
	1	2	3	4	5+	1	2	3	4	5+
임신수	1,091	999	797	550	562	1,351	1,239	1,059	794	1,249
정상출생	88.5	82.4	72.7	62.6	43.6	84.3	76.7	63.7	48.3	31.6
사 산	0.9	0.8	0.5	0.7	0.9	0.8	0.6	0.2	0.8	0.6
자연유산	5.3	6.3	7.5	6.8	5.2	7.5	7.1	5.9	5.8	5.2
인공유산	5.2	10.4	19.2	29.8	50.4	7.3	15.6	30.1	45.1	62.7

임신결과	1980 - 1984					1985 - 1991*				
	1	2	3	4	5+	1	2	3	4	5+
임신수	1,624	1,517	1,199	850	1,275	1,693	1,639	1,302	827	919
정상출생	81.5	68.9	51.5	37.6	24.7	74.3	57.6	42.4	38.0	21.4
사 산	0.9	0.5	0.5	0.7	0.4	0.1	0.9	0.1	0.1	0.2
자연유산	8.4	9.9	7.1	5.4	5.3	10.8	10.3	8.7	7.8	8.9
인공유산	9.2	20.7	41.2	56.2	69.3	14.9	31.3	48.8	54.1	69.5

* 현재 임신중인 389건 제외.

센트로 계속 크게 늘어났다. 우리나라 婦人들의 出産力이 代置水準 以下이고, 避妊實踐이 生活化되어 선진국과 나란히 하는 80퍼센트 수준에 이르는 단순한 한 외형적인 수치만으로 家族計劃과 母子保健서비스가 선진화 단계로 向上되었다고 한다면 큰 誤謬임이 이러한 損耗現象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死産率의 減少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自然流産의 増加現象도 母子保健 측면에서 그 원인과 실상을 再檢討 해보아야 할 課題이고, 人工流産의 減少 그 자체에 안이한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總妊娠에서 人工妊娠中絶로 처리되는 比率이 오히려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既婚婦人들의

表 6. 妊娠 當時 婦人年齡別 正常出生에 대한 人工妊娠中絶 比

연 령	1970 - 1974			1975 - 1979		
	출생수	인공유산수	비	출생수	인공유산수	비
-24	353	28	0.08	254	54	0.21
25-29	1,675	306	0.18	1,838	429	0.23
30-34	899	402	0.45	1,240	849	0.68
35-39	27	24	0.89	204	413	2.02
40+	-	-	-	6	5	0.83
합 계	2,955	761	0.26	3,541	1,750	0.49

연 령	1980 - 1984			1985 - 1991		
	출생수	인공유산수	비	출생수	인공유산수	비
-24	134	35	0.26	45	29	0.64
25-29	1,911	571	0.30	1,267	558	0.44
30-34	1,304	1,048	0.80	1,674	1,175	0.70
35-39	247	523	2.12	246	482	1.96
40+	19	145	7.63	30	240	8.00
합 계	3,616	2,323	0.64	3,263	2,485	0.76

生殖觀과 健康意識 및 倫理的 측면의 건전한 育成이 절실히 요망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妊娠損耗 現象은 各 年代別로 比較한 <表 5>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한결같이 人工妊娠中絶로 終結된 比率이 妊娠回數에 따라서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5번째 이후의 妊娠인 경우 거의 70퍼센트가 人工妊娠中絶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現象은 대부분의 斷産을 目的으로 하는 婦人들의 避妊失敗에서 연유된 結果임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우기 妊娠當時의 婦人年齡에 따른 正常出産에 대한 人工妊娠中絶의 比

率을 보면 70年代 初盤에서 80年代 後半에 이르기까지 高齡層에서의 妊娠이 人工流産으로 끝난 比率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이 현저하고, 특히 1975年代 以後부터 35歲 以上の 年齡層에서의 妊娠은 出産보다 人工妊娠中絶이 두배를 넘고 40歲以上の 경우 1980-1984년에는 出産 19에 人工妊娠中絶 145件으로 7.63배나 되며, 1985-1991年에도 同 年齡層은 出産 30에 人工妊娠中絶 240으로 꼭 8倍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事實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指摘코자 하는 사항은 특히 高齡層에서 斷産을 원하면서도 원치않은 妊娠을 많이 하고 있으며, 그 처리방법으로 人工流産이란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40代 以上の 高齡層에서의 出産도 큰 부담이려니와 人工妊娠中絶을 한다는 것은 母性健康측면에서 큰 위험 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母子保健측면에서의 人工妊娠中絶 豫防을 위하여 願하지 않는 妊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避妊서비스의 철저한 管理와 指導 및 相談 敎育 등의 效率의 시행이 政府프로그램 내에서 더욱 발전되어야 하겠다는 절실한 要求가 강조되는 바이다.

4. 人工妊娠中絶과 避妊과의 關係

가. 避妊實踐 婦人の 人工妊娠中絶 經驗狀態

子女를 적게 갖겠다는 價值觀의 變化에 따라 出産을 調節하려는 개인적인 노력은 避妊實踐과 더불어 願하지 않는 妊娠을 人工妊娠中絶로 종결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避妊實踐率이 80퍼센트 水準이기 때문에 避妊에 대한 행위는 거의 一般化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人工妊娠中絶은 아직 盛行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出産을 더 이상 願치 않는다면 避妊을 완벽하게 하므로써 不願妊娠을 방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人工妊娠中絶은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은 論理的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個

人的 生殖行爲는 理論과 같이 그렇게 모두가 완벽한 避妊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婦人들이 避妊과 人工妊娠中絶의 경험을 함께 하고 있는 實狀이다.

<表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71년에는 避妊이나 人工妊娠中絶을 함께 경험한 婦人이 18.8퍼센트였고 避妊만의 經驗婦人(21.7%)과 人工妊娠中絶만을 경험한 婦人(7.0%)을 합하면 적어도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한 婦人이 47.5퍼센트인데 비해 1985년에는 적어도 한가지 이상을 經驗한 婦人이 85.9퍼센트, 그리고 1991년에는 91.2퍼센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現 避妊實踐率이 80퍼센트 水準인데서 전반적인 比率의 급증은 당연한 것이지만 문제는 1985년以後에는 모든 부인의 半以上이 人工임신중절과 피임을 함께 경험하였다는 사실에서 出産抑制의 개인적 의지에 비해 避妊普及 擴大라는 지난 30년에 가까운 政府家族計劃事業 수행과정에서 정확한 避妊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서비스가 부족했었다는 一面을 읽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避妊서비스의 質的 향상이 母子保健 次元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되어야 한다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 하겠다. 더우기 아직까지도 避妊을 實踐中인 婦人의 41.5퍼센트만이 人工妊娠中絶의 經驗이 없을뿐 58.5퍼센트의 부인이 人工임신중절을 경험했고, 30.3퍼센트의 부인이 反復經驗을 했으며,

表 7. 人工妊娠中絶 經驗 및 避妊實踐 狀態

(단위: %)

연도	표본수 (%)	피임실천 & 人工임신중절	피임실천 경험	인공임신 중절경험	무경험
1971	5,629 (100.0)	18.8	21.7	7.0	52.5
1985	8,012 (100.0)	50.1	30.9	4.9	14.1
1991	7,110 (100.0)	51.8	37.2	2.1	8.8

表 8. 年齢別 避妊實踐狀態別 人工妊娠中絶 経験 回数

(단위:%)

피임실천상태	표본수 (%)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			
		0	1	2	3+
전 체:	7,110 (100.0)	46.1	25.8	16.3	11.8
현실천	5,556 (100.0)	41.6	28.1	17.6	12.7
과거경험	775 (100.0)	43.7	24.5	17.7	14.1
무경험	779 (100.0)	80.4	10.7	6.2	2.7
30세미만:	1,838 (100.0)	62.3	24.8	9.8	3.1
현실천	1,069 (100.0)	54.3	30.6	11.1	4.0
과거경험	340 (100.0)	57.0	26.3	13.7	3.0
무경험	429 (100.0)	86.3	9.3	3.5	0.9
30세이상:	5,272 (100.0)	40.4	26.2	18.6	14.8
현실천	4,487 (100.0)	38.5	27.6	19.1	14.8
과거경험	435 (100.0)	33.5	23.1	20.7	22.7
무경험	350 (100.0)	73.2	12.5	9.4	4.9

3회 이상의 反復經驗 婦人도 12.7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다만 이러한 現 避妊實踐者의 인공임신중절 경험율이 1985년의 62.7퍼센트(韓聖鉉 外, 1987)에 비해서 4.2퍼센트 포인트 낮아졌음은 全般的인 인공임신중절율의 減少趨勢와 더불어 改善의 一面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나. 人工妊娠中絶 前後의 避妊樣相

1991년에 조사된 婦人가운데 1975年, 1980年, 1985年 및 1990년에 人工妊娠中絶을 經驗한 경우가 各各 284件, 410件, 416件, 383件으로서 이들에 대해 人工妊娠中絶 當時에 避妊을 사용했는지 與否를 분석한 結果가 <表 9>에 제시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당시에 避妊을 實踐하고 있었던 比率는 계속 증가하여 1975년에는 20.5퍼센트이던 것이 1980년에는 30.5퍼센트, 1985年

에는 35.5퍼센트, 그리고 1990년에는 41.1퍼센트로 1990년의 人工妊娠中絶 婦人の 當時 避妊實踐率は 1975년의 2배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공 임신중절 부인들의 中絶 當時 避妊 實踐率이 증가 한다는 사실은 避妊의 改善여지가 더욱 擴大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반대로 1975年 보다는 避妊을 전혀 하지 않은 부인들이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는 人工妊娠中絶 婦人

表 9. 人工妊娠中絶 年度別 當時 婦人年齡別 施術 直前 使用 避妊方法

(단위:%)

시술당시 부인연령	인공임신 중절건수(%)	비실천	불임 수술	자궁내 장치	먹는 피임약	기타
1975:						
계	284 (100.0)	79.5	-	2.5	4.9	13.1
-24	53 (100.0)	93.0	-	2.4	-	4.6
25-29	145 (100.0)	78.2	-	3.4	4.2	14.2
30-34	86 (100.0)	73.3	-	1.0	9.0	16.6
35+	- (-)	-	-	-	-	-
1980:						
계	410 (100.0)	69.5	1.2	1.9	7.1	20.2
-24	79 (100.0)	85.9	-	1.4	4.6	8.4
25-29	164 (100.0)	68.2	-	1.1	11.1	19.7
30-34	127 (100.0)	64.4	4.0	3.8	3.8	24.0
35+	39 (100.0)	58.8	-	-	6.6	34.6
1985:						
계	416 (100.0)	64.5	1.4	1.8	4.6	27.6
-24	74 (100.0)	79.6	-	-	3.9	16.5
25-29	197 (100.0)	59.0	1.5	2.5	6.3	30.6
30-34	83 (100.0)	61.9	1.6	3.4	1.5	31.7
35+	62 (100.0)	67.2	2.6	-	4.3	25.8
1990:						
계	383 (100.0)	58.9	1.8	3.2	5.7	30.4
-24	71 (100.0)	70.4	-	-	5.1	24.5
25-29	163 (100.0)	63.8	3.2	2.4	4.9	25.7
30-34	107 (100.0)	47.2	0.8	6.1	8.1	37.9
35+	42 (100.0)	50.6	2.0	3.9	3.7	39.7

들의 避妊意志는 보다 向上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表 9>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人工妊娠中絶 當時에 避妊을 사용한 양상은 특히 25歲 以後에서 高年齡層에 이룰수록 높고, 사용방법은 不妊手術, 子宮內裝置, 먹는避妊藥 보다는 대부분이 그 외의 其他 方法이었다는 점에서 效果的인 避妊方法의

表 10. 人工妊娠中絶 年度別 當時 婦人年齡別 施術 直後 使用 避妊方法

(단위: %)

시술당시 부인연령	인공임신 중절건수(%)	비실천	불임 수술	자궁내 장치	먹는 피임약	기타
1975:						
계	284 (100.0)	47.6	11.3	7.1	14.1	19.8
-24	53 (100.0)	64.7	4.1	3.7	9.9	17.6
25-29	145 (100.0)	48.9	9.8	10.5	15.3	15.4
30-34	86 (100.0)	34.9	18.4	3.4	14.6	28.6
35+	- (-)	-	-	-	-	-
1980:						
계	410 (100.0)	38.9	19.0	7.1	9.6	25.4
-24	79 (100.0)	58.9	8.3	6.3	6.4	20.1
25-29	164 (100.0)	35.5	16.7	9.3	13.8	24.7
30-34	127 (100.0)	34.7	27.3	4.7	6.3	26.9
35+	39 (100.0)	26.3	23.1	7.4	9.3	33.9
1985:						
계	413 (100.0)	31.2	24.6	9.1	7.2	27.9
-24	74 (100.0)	55.3	2.2	6.0	10.9	25.5
25-29	197 (100.0)	24.8	26.9	10.0	7.3	31.0
30-34	83 (100.0)	16.1	45.4	12.5	4.9	21.1
35+	59 (100.0)	43.1	16.2	5.4	5.5	29.8
1990:						
계	383 (100.0)	27.0	7.3	14.1	9.3	42.3
-24	71 (100.0)	33.5	1.4	7.9	20.0	37.1
25-29	163 (100.0)	26.5	9.6	13.2	7.1	43.6
30-34	107 (100.0)	25.8	7.3	21.2	6.0	39.8
35+	42 (100.0)	21.2	8.6	10.0	7.8	52.4

選擇 및 정확한 實踐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인공임신중절을 실시한 부인들의 施術直後 避妊受容與否와 수용한 避妊方法을 분석한 결과 <表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避妊을 전혀 受容하지 않은 比率이 1975년의 47.6퍼센트에서 1980년에는 38.9퍼센트, 1985년에는 31.2퍼센트, 그리고 1990년에는 27.0퍼센트로 최근에 이를수록 施術直後の 避妊受容率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受容한 避妊方法別 變化에서 특기할 사실은 子宮內裝置와 其他方法이 계속 증가한데 반해 不妊施術의 受容은 1985년까지 계속 增加하다가 1990년에는 급격한 減少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政府에서 1980年代에 不妊施術 普及擴大에 家族計劃事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던 政策的 意志와 그 結果에 의한 避妊實踐率의 急増 및 合計出産率의 代置水準以下 急落 등 일련의 획기적 人口現象 變化에 따라 1989년부터 不妊施術의 政府普及物量을 대폭 삭감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된 結果라고 볼 수 있다. 政府普及 不妊施術 物量의 점진적 縮小와 더불어 不妊施術의 醫療保險適用 등 自律的 機能에로의 事業方向 轉換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長期計劃上에 제시된 政府普及物量의 確保維持가 人工妊娠中絶率의 지속적인 減少 등 母子保健側面에서의 質的 서비스 維持에 박차를 가할 必要性이 절실한데 長期計劃上 제시된 內容과는 거리가 멀게도 不妊普及의 무리한 事業縮小 등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政府事業 內容으로 보아 앞으로의 人工妊娠中絶率의 改善에 새로운 問題가 야기될 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다는데 유념해야 할 것이다.

5. 人工妊娠中絶 決定에 미친 要因

人工妊娠中絶의 決定要因을 설명하기 위하여 段階別 回歸分析方法(step-wise regression method)에 의하여 구한 結果를 보면 <表 11>과 같다. 變數

들간의 多共線性(multicollinearity)의 존재를 피하고 추정된 回歸係數의 精度(precision)를 높이며, 또한 어떠한 變數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쉽게 식별하기 위하여 段階別 回歸方法을 사용하였으며 統計 패키지로는 SPSS를 사용하였다. 이 分析을 위하여 사용된 資料는 出産이 거의 진행된 30歲以上の 婦人 5,272名이며, 이에 이용된 獨立變數는 先行研究에서 人工妊娠中絶 및 出産力에 影響을 줄 수 있는 變數로서 주어진 資料內에서 이용 가능한 變數를 선택하였으나 調査의 성격상 人工妊娠中絶에 관한 分析을 目的으로 실시된 調査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要因分析에 制約이 있었으며, 變數에 포함된 內容은 다음과 같다.

가. 社會經濟的 變數

- | | |
|--------------------|--------------------|
| 1) 現居住地(假變數) | 2) 婦人 教育水準 |
| 3) 婦人 就業狀態(假變數) | 4) 理想子女數 |
| 5) 結婚直前 最長居住地(假變數) | 6) 結婚直後 最長居住地(假變數) |
| 7) 宗教(假變數) | 8) 月平均 生活費 |

나. 人口學的 變數

- | | |
|---------|---------|
| 1) 婦人年齡 | 2) 初婚年齡 |
|---------|---------|

다. 家族保健 變數

- | | |
|-------------------|----------|
| 1) 避妊實踐 經驗(假變數) | 2) 總妊娠回數 |
| 3) 不願妊娠 處理方法(假變數) | |

지금까지의 研究結果를 살펴보면 1971년에는 人工妊娠中絶에 가장 影響을

주는 要因으로 居住地, 所有物件數, 婦人 年齡, 男便의 職業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分析했으며, 1974年 資料의 分析에서는 避妊의 狀態, 家族規模觀, 婦人 教育水準, 생존아들수 등을 人工妊娠中絶의 決定要因으로 설명하고 있다(金善雄, 1981). 本 資料의 分析結果에서 人工妊娠中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要因은 總妊娠回數로 標準化 回歸係數가 0.8864의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그 다음은 婦人 年齡으로 0.1365의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기타 人口·社會學的 變數로 사용된 初婚年齡, 理想子女數, 教育程度, 結婚前後의 最長居住地, 避妊實踐狀態, 現居住地 그리고 不願妊娠에 대한 態度 등은 人工妊娠中絶 行態에 影響력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表 11. 人工妊娠中絶에 관한 回歸分析

독립변수	b	Beta	SE(b)
임신헌수	.6665***	.8864	.0071
결혼직후 최장거주지	.2802***	.0826	.0356
부인 연령	-.0386***	-.1365	.0027
이상자녀수	-.1732***	-.0847	.0177
초혼년령	.0340***	.0712	.0043
부인 교육수준	.0205***	.0436	.0046
불원임신에 대한 태도	-.1480***	-.0312	.0396
피임실천경험	-.0629***	-.0283	.0186
현거주지	.0976*	.0280	.0345
결혼직전 최장거주지	.0612*	.0183	.0295
Multiple R = 0.81554			
R ² = 0.66510			
Adjusted R ² = 0.66442			
N = 5,272			
b Significance Level			
*** 0.001			
** 0.01			
* 0.05			

특히 月平均 生活費, 婦人 就業經驗 그리고 宗教 등의 變數는 段階別 回歸 分析 過程에서 제거되어 有意的인 變數가 되지 못하였다.

6. 要約 및 結論

가. 要約

1) 出産率의 繼續的 低下와 더불어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은 급격한 上昇을 지속하다가 1970年代를 고비로 그 上昇勢가 鈍化되었고 合計出産率은 1988 年 以後 1.6水準에서, 그리고 人工妊娠中絶 經驗率은 1985年以後 53퍼센트 水準에서 각각 停滯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2) 年齡別 人工妊娠中絶率은 1980年代에 30歲 以上에서 급격한 減少現象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29歲 以下の 젊은층의 婦人에서는 지속적인 增加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3) 그러나 人工妊娠中絶의 全般的인 減少現象이 1980年代부터 현저하여 부인 1,000名當 年間 人工妊娠中絶數는 1981年 113.3件에서 1990년에는 63.6件으로 크게 줄었고, 人工妊娠中絶 絕對數도 1981年の 59萬餘件에서 1990년에는 40餘萬件으로 減少되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全體妊娠의 正常出産率은 1970年代 초반의 74퍼센트에서 1980年代 후반에는 51.2퍼센트로 줄어들어 人工妊娠中絶로 終結되는 妊娠損耗率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5) 이러한 妊娠損耗 現象은 妊娠回數가 많아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5번째 이후의 妊娠은 거의 70퍼센트가 人工妊娠中絶로 종결되고 있다.

6) 결과적으로 正常出産에 대한 人工妊娠中絶率의 比는 계속 상승하는 趨勢로서 1970年代 초반의 1:0.26에서 1980年代 후반에는 1:0.76 으로 크게 늘어났다.

7) 人工妊娠中絶 前に 避妊을 실시한 比率은 年齡이 높을수록 높았고, 施術 後の 避妊受容率은 최근에 이를수록 全般的으로 점점 높아지는 趨勢이다.

8) 人工妊娠中絶의 決定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段階別 回歸分析 結果 婦人의 總妊娠回數로서 標準化 回歸係數가 0.8864의 양의 관계를, 그 다음이 婦人의 年齡으로서 0.1365의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 教育, 就業, 居住地 등 社會·經濟的 變數는 人工妊娠中絶 行態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結論

1960年代에 政府家族計劃事業이 政策化된 이래 出産率의 低下와 더불어 避妊受容의 擴大에도 불구하고 人工妊娠中絶率이 계속 상승하다가 1980年代부터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1년에는 1970年 水準보다 낮아졌다. 이러한 減少 現象은 避妊受容의 擴散과 더불어 특히 全體 有配偶 婦人의 거의 折半에 가까운 婦人이 不妊施術을 受容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全體妊娠중에 人工妊娠中絶로 종결되는 比率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는 低出産 意志에 비해 避妊 無防備 狀態이거나 避妊을 失敗하는 婦人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40 歲 以上の 高齡層에서는 1985-1991년에 人工妊娠中絶數가 出産數의 8배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母子保健 側面에서 人工妊娠中絶 豫防을 위하여 보다 철저한 避妊서비스의 質的 向上이 요구된다. 특히 斷産을 원하는 婦人들의 不妊受容에 차질이 없도록 第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 計劃에 제시된 政府普及 物量의 支援은 確保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손쉬운 避妊與件下에서 안전하고 정확한 實踐만이 人工妊娠中絶 豫防의 捷徑이며, 이를 위하여 政府事業은 啓蒙教育 및 相談指導에 더욱 치중해야 한다. 동시에 民間部門에서의 參與를 더욱 活性化하도록 協會 등 有關團體에 대한 支援 및 協助를 強化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參考文獻

- 孔世權, 曹愛姐, 金勝權, 孫聖姬, 韓國에서의 家族形成과 出產行態,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2.
- 金善雄, “韓國既婚女性の 人工流産 決定要因 分析”, 韓國開發研究, 제3권 제1호, 韓國開發研究院, 1981.
- 經濟企劃院, 1960-1985年 推計人口, 1988.12.
- _____, 1970, 1980, 1985 人口 및 住宅센서스 報告書, 1972, 1982, 1987.
- _____, 1987 人口動態 申告結果 및 將來人口推移, 1989.10.
- 文顯相, 李任田, 吳英姬, 李相暎, 1988年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 調查,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89.
- 朴丙台, 崔炳睦, 權豪淵, 1976年 全國 出産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查, 家族計劃研究院, 1978.
- 保健社會部, 1965年度 全國 家族計劃實態調查 報告, 保健社會部, 1965.
- 宋建鏞, 韓聖鉉, 1973年 全國 家族計劃 및 出産力調查 綜合報告, 家族計劃研究院, 1974.
- 李奎植, 李任田, “差異出産力과 避妊實踐率”, 韓國의 出産力 變動과 展望,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 林鐘權, 宋泰珉, “韓國의 人工妊娠中絶實態 考察”, 人口保健論集, 제4권 제2호,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4.
- 林鐘權, 李相暎, 裊花玉, “韓國의 人工妊娠中絶實態 考察”, 人口保健論集, 제9권 제1호,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 崔仁鉉, 金玉景, 人工妊娠中絶이 出産力에 미치는 影響, 家族計劃研究院, 1981.
- 統計廳, 1990年 人口住宅調查 2퍼센트 標本集計結果, 1991.8.
- _____, 將來人口推移(1990-2021년), 1991.4.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5年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1985.
- 韓聖鉉, 趙南勳, “人工妊娠中絶의 變動推移와 展望”, 韓國의 出産力 變動과 展望,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洪文植, 李任田, 李相暎, 人工妊娠中絶 實態에 관한 研究,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0.

Ogawa, N. and R.W. Hodge, *Towards a Casual Model of Childbearing and Abortion Attitudes in Contemporary Japan*, ESCAP, Bangkok, 1983.

Japanese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Family Planning, *Basic Reading in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in Japan*, JOICFP, 1981.

The Population Problem Research Council, *Summary of Eighteenth National Survey on Family Planning*, The Minichi Newspaper, Tokyo, Japan, 1986.

United Nations, *Abortion Policies: A Global Review*, Volume 1, UN, New York, 1992.

World Health Organization, *From Abortion to Contraception*, WHO, Regional Office of Europe, Copenhagen, 1990.

World Health Organization, *Reproductive Health; a Key to a Brighter Future*, WHO, Geneva, Switzerland, 1992.

人口의 老齡化와 老人家口의 特性

孔世權*, 曹愛姐**, 金應錫*

1. 研究背景

血族間의 協力으로 生存活動이 가능하였던 傳統社會의 경우 血緣을 기초로 한 家族은 同高祖 八寸까지를 포함하기도 하였다(劉明基, 1977 ; 石大權, 1986). 그러나 최근 産業化와 함께 生存活動이 住居單位로 이루어지면서 家族은 “집”, 즉 家族家口(family household)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Sweet et al., 1987). 이처럼 家族의 範圍나 그 構成形態는 生活共同體의 意味로 정해질 수 있다. 즉 生存에 필요한 生産과 消費, 扶養과 被扶養間의 關係로 共同體를 이루면서 生活을 營爲하는 集團을 家族으로 본다면 本稿에서 論議하려는 60세 이상 老人이 속한 家族이나, 老人만으로 구성되는 家口의 特性은 扶養側面에서 주요한 意味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韓國社會는 今世紀에 이르러 급격한 産業化와 함께 人口의 老齡化, 個人役割의 多樣化, 그리고 家族의 分化가 이루어지면서 老人扶養 問題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出産·死亡率의 低下나 平均壽命의 延長이 人口構造의 變化에 영향을 미치면서 老人의 絶對數와 相對的 扶養比를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研究委員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責任研究員

增加시키고, 적은 子女數를 갖거나 또는 子女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과 함께 老人을 扶養해야 할 對象이 減少되고, 個人役割의 多樣화와 함께 主婦들까지 就業를 통한 社會活動 參與가 증가되며, 또한 就業形態의 多樣화와 核家族 選好現象이 家族分화를 촉진시키면서 父母子息間 分居形態가 늘어나 傳統的 老人의 家族扶養이 어렵게 되면서 지적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최근의 家族形態나 老人의 家族扶養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일까? 관련자료에 의하면 平均家口員數는 1960년 5.6명이 1991년 3.6명으로 감소했고, 전체 가구중 1世代 家族이 1960년 7.5퍼센트에 불과했지만 1991년에는 24.0퍼센트로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에 3世代 以上 家族은 28.5퍼센트가 11.3퍼센트로 감소하여 小家族 내지 核家族化 現象이 현저함을 엿볼 수 있다(孔世權 外, 1992). 또 結婚後 長男이 父母를 모시는 傳統的 扶養形態는 1960년 이전 結婚코호트에서는 약 3/4에 달했으나 1980년 이후 結婚코호트에서는 1/3로 감소해 최근에 이를 수록 長男도 社會經濟的 理由나 個人的 理由로 父母와 分居形態를 이루고 있으며, 父母들은 未婚子女와 같이 살거나 또는 父母들만의 獨立家口를 이루는 경우도 늘어나(金敏子 外, 1991) 최근의 老人扶養 形態는 가정형편에 따라서 多樣化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老人扶養은 傳統的 長男에 의한 家族扶養 體制로만 생각할 수 없고, 多角的인 側面에서 檢討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은 少子女觀 定着과 함께 아예 子女를 두지 않거나 아들이 없는 경우도 늘어나고, 또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父母를 모실 수 없는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父母들 역시 經濟活動이 가능할 경우 子女와의 同居를 꺼려 分居形態를 이루는 경우도 적지 않아 老後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老人扶養은 家族扶養 體制와 함께 社會扶養 體制의 竝行이 요구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재의 老人들은 어떤 狀況에 있고, 老人問題를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뚜렷한 方向定立이 未洽한 狀態에 있다고 하겠다. 다만 保健社會部の 老人福祉政策은 ① 國民들에게 敬老孝親 思想을 고취시키면서, ② 老人을 위한, 또는 老人에 의한 所得保障體制를 確立하고, 또 ③ 老人保護나 生活便宜를 위한 施設을 확충해 간다(姜允求, 1989)고 하지만 그러한 점만으로 老人福祉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이 論文이 老人福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論議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研究는 최근의 老人家口의 特性을 檢討하여 그러한 家口形態가 어떤 意味를 지니는지를 分析하려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그것은 韓國家族이 儒敎文化의 影響으로 家族中心의 老人扶養 體制를 이루고, 이러한 점이 産業化의 影響으로 다소간 混亂이 야기되기는 하였지만 그 본질마저 변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다. 즉 아무리 家族이 血緣을 기초로 한 共同體라 하더라도 成員間 扶養關係를 중심으로 한 紐帶와 協力이 없이는 存續될 수 없기 때문이며, 老人扶養은 이제까지 家族中心體制를 理想的인 것으로 여겨왔듯이 앞으로도 대부분 家族單位에서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않는다.

2. 研究資料 및 方法

本 研究는 1991년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이 실시한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資料를 기초로 한 것이다. 同 調査資料는 全國의 178개 標本調査區內의 전체가구(12,376가구)와 이들 가구내의 居住하는 15-49세 既婚婦人(7,607명)을 대상으로 調査한 것이다. 家口調査는 그 構成員인 家口員 및 家族員과 가구자체의 構造的 特性을 파악하도록 하였고 婦人調査는 조사대상 婦人들의 結婚 및 出産行態 등을 파악토록 한 것으로 이들 중 11,540家口(93.3%)와 7,462名(98.1%)의 既婚婦人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本 分析에서는 전체 家口員(41,133명)중 60세 이상 老人(3,432명)과 그들

이 속한 家口(2,691가구)를 중심으로 이들 老人의 個人 및 家口의 特性을 檢討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3. 分析結果

가. 人口의 老齡化

人間의 오랜 삶, 그리고 人間다운 삶을 위한 노력이 經濟開發이나 醫療技術로 이어지면서 그러한 結果가 人口의 老齡化를 촉진시키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것은 인간의 生存體系에서 특정문제가 해결되었을때 그 결과가 또 다른 問題를 야기시키는 相互 複合關係에 의한 것이다. 즉 饑饉과 疾病問題의 解決이 過剩人口現象을 초래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出産調節이 老齡化를 촉진시키고 있음은 人口轉換 現象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高齡者의 増加와 少産現象은 人口集團 内部의 扶養構造를 변화시키고 그에 따라 相對的 扶養比가 증가됨으로써 老人扶養 問題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表 1〉은 韓國에서 지난 30년간의 老齡化 指標의 變化와, 또 앞으로 30년 간에 變化될 老齡化 指標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60세 이상 老人數는 1960년에 약 150만명이 1990년에 약 330만명으로 지난 30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앞으로 30년후인 2020년에는 약 986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다시 약 3배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총인구중 60세 이상 老人人口率은 1960년에 약 6퍼센트가 1990년에 약 8퍼센트로, 그리고 2020년에는 약 20퍼센트를 점유하면서 같은 시기에 扶養比와 老化指數는 11.2와 14.7이 11.6과 29.8로, 그리고 30.2와 121.8로 변하여 人口의 老齡化는 지난 30년간의 急速한 産業化 만큼이나 앞으로도 急速히 進展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또한 平均壽命은 1960년 약 55세이던 것이 1990년에는 71세로, 그리고 2020년에는 다시 77세로 延長되고, 그간 出産調節로 婦人當 6명

表 1. 人口의 老齡化 指標 變化 : 1960-2020

지 표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노인수(천명)	1,492	1,705	2,268	3,300	4,984	6,826	9,861
노인인구율(%)	6.0	5.4	6.1	7.7	10.7	13.7	19.5
노인부양비 ¹⁾	11.2	10.3	10.1	11.6	15.6	20.5	30.2
노화지수 ²⁾	14.7	12.9	17.9	29.8	50.3	71.8	121.8
평균수명(세):							
전체	55.3	63.2	65.8	71.3	74.3	76.1	77.0
남자	53.0	59.8	62.7	67.4	71.3	73.8	74.9
여자	57.7	66.7	69.1	75.4	77.4	78.7	79.1
합계출산율	6.0	4.5	2.7	1.6	1.6	1.6	1.6

註: 1) 老人扶養比는 60歲 以上 人口/15-59歲 人口×100

2) 老化指數는 60歲 以上 人口/0-14歲 人口×100

資料: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年度別 人口 및 住宅센서스 報告, 1963, 1972, 1982.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第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 計劃 2次 試案, 總量部門: 人口分野計劃, 1991.

孔世權 外, 韓國에서의 家族形成과 出產行態,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2.

정도의 出產이 2명 이내로 감소하여 父母를 모셔야 하는 子女의 扶養負擔率도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老齡化는 무엇을 意味하는 것일까? 老齡化 指標의 變化를 단순한 人口指標의 變化로만 생각하고 자신과는 無關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오늘날 30세 이상의 人口는 앞으로 30년 후면 60세 이상이 될 것이 틀림없으며, 老後生活을 어떻게 영위해야 할지는 바로 자신들의 문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老人數의 增加나 扶養比 및 老化指數의 變化 그 자체의 問題뿐만 아니라, 老齡期에서 經驗하게 될 肉體的·精神的 또는 社會·經濟的 扶養問題를 變化된 社會環境과 家族體制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扶養體系를 한 人間이 生涯過程에

서 그때 그때 필요한 情緒的, 物質的 또는 기타 각종 서서비스를 家族이나 社會로부터의 交換關係(Caplan, 1974; Cobb, 1976; Berkman, 1984)로 생각할 때 이러한 關係는 社會構造 내지 家族形態, 그리고 價値觀의 變化에 따라 달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社會構造가 機能別로 多變化되고, 이에 따른 個人役割의 專門化 내지 多樣化가 小家族 내지 核家族化를 촉진시키며, 또 個人主義的 思考의 팽배로 傳統的 老人扶養形態를 답습하지 않으려 할 때 家庭內에서 老人扶養은 점차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老人扶養問題는 人口의 老齡化에서 뿐만 아니라 社會構造나 家族形態, 또 價値觀의 變化와 관련시켜 論議되어야 한다.

나. 老人特性의 變化

人間的 生涯週期는 대개 年齡을 基準으로 幼年期, 靑壯年期, 그리고 老年期로 區分하고, 이에 준하는 役割이 주어진다. 그러나 老年期는 學者에 따라 見解를 달리하지만 일반적으로 60세 또는 65세 이상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시기는 肉體的 또는 精神的 機能의 弱화로 社會役割까지 중단해야 하고, 家族이나 社會로 부터 保護를 요하게 된다(Riley et al., 1972). 그러나 平均壽命의 延長과 健康水準의 向上은 老年期에서도 個人別 健康狀態나 社會役割의 差異가 많아 단순히 年齡만으로 老人을 限定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老人들의 개인특성은 관심을 갖게되며 이는 <表 2>와 같이 60세 이상 老人의 人口學的 特性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먼저 60세 이상 老人의 農村居住率은 1960년에 약 83퍼센트가 1990년에 약 45퍼센트로 감소하면서 이제까지의 都少農老 現象이 도시에서도 老齡化가 이루어짐을 엿볼 수 있다. 이는 農村老人들이 都市로의 移住에서 보다 都市人口 자체의 老齡化로 인한 것이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産業化·都市化와 함께 農村人口중 젊은 층의 離農과 老齡層의 殘有로 都少農老 現象이

表 2. 60歲 以上 老人의 人口學的 特性

(단위: %)

인구학적 특성	남자				여자			
	1960	1970	1980	1990	1960	1970	1980	1990
농촌거주	83.0	75.4	64.0	47.0	82.3	71.1	58.9	43.8
70세 이상	32.8	30.9	30.5	33.4	37.4	38.7	40.5	41.2
중학교이상	-	8.2	13.9	29.2	-	1.1	2.4	6.4
독신율	23.1	19.7	15.3	13.1	66.5	70.6	68.3	65.1
취업율	-	41.2	50.1	52.8	-	23.1	24.5	28.0

資料: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같은 책, 1963, 1972, 1982.

_____, 1980 經濟活動人口年報, 1981.

統計廳, 1990 經濟活動人口年報, 1991.

비롯되었지만 이제는 都市人口중 30세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변하면서 老齡化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老人扶養은 주로 農村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앞으로는 都市에서도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60세 이상 老人중 70세 이상은 農村에, 70세 이하는 都市에 居住率이 높아 高齡現象은 農村에서 더 뚜렷함을 볼 수 있다.

老人들의 教育水準은 老齡人口가 점차 世代交替되면서 高學歷化되고 있다. 1970년 60세 이상 老人중 중학교 이상의 學歷은 男子老人이 8.2퍼센트, 女子老人은 1.1퍼센트에 불과했지만(孔世權 外, 1984), 1991년 조사에서는 男子老人 29.2퍼센트, 女子老人 6.4퍼센트로 증가했다. 물론 老人들의 教育水準은 男高女低現象이 뚜렷하지만 최근에 이를 수록 教育機會가 擴大됨에 따라 앞으로 老人들의 教育水準 向上과 性別差異의 緩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또 老人들의 配偶狀態는 平均壽命의 延長과 함께 有配偶率이 增加되어 1960년 60세 이상 남자의 獨身率은 23.1퍼센트, 여자의 獨身率은 66.5퍼센트였으나 1990년은 남자가 13.1퍼센트, 여자가 65.1퍼센트로

表 3. 60歲 以上 老人의 年齡別 性比 : 1960-2020

(단위:%)

연령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60-64	82.0	83.2	84.1	75.5	92.3	96.2	96.0
65-69	73.9	71.5	72.9	71.5	76.7	88.7	92.2
70-74	69.1	62.1	61.4	64.8	61.9	78.9	84.2
75-79	64.5	53.5	48.1	50.8	53.9	61.5	73.3
80+	56.8	44.3	33.8	35.0	37.2	40.9	52.4
전체	73.9	69.7	67.9	65.1	72.2	79.2	84.4

資料: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같은 책, 1963, 1972, 1982.
韓國保健社會研究院, 같은 책, 1991.

감소를 나타내 三苦중의 하나인 心理的 疎外나 孤獨感을 덜어주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그 외 60세 이상 老人의 就業率은 최근에 이를 수록 증가하여 老人 스스로의 自立生活은 물론 社會的 寄與度도 높아지고 있다.

60세 이상 老人의 年齡別 性比 및 獨身率 變化는 <表 3> 및 <表 4>와 같다. 老人性比는 性別 死亡率의 差異로 高齡일 수록 감소하고, 젊은 時期에

表 4. 60歲 以上 老人의 性別 年齡別 獨身率

(단위:%)

연령	남자				여자			
	1960	1970	1980	1990	1960	1970	1980	1990
60-64	13.4	10.9	8.3	7.3	53.8	57.1	53.5	48.0
65-69	20.5	17.1	12.7	10.0	64.6	68.7	65.0	60.9
70+	37.0	34.2	27.0	22.4	80.2	84.5	82.7	81.3
전체	23.1	19.7	15.3	13.1	66.5	70.6	68.3	65.1

資料: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같은 책, 1963, 1972, 1982.
統計廳, 1990 人口住宅 總調査 速報, 2% 標本抽出集計結果, 1991.8.

2次 世界大戰 및 6.25 動亂을 거친 현재의 60-70대는 남자의 死亡率이 높았던 관계로 性比가 낮지만 앞으로는 性別 死亡率 差異가 개선되면서 다소 상승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은 이제까지 男子老人의 獨身率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어 왔으나 女子老人의 獨身率에는 큰 변화가 없다. 즉 女子老人중 2/3이상이 配偶者의 死別로 獨身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男子老人은 配偶者와의 死別率도 낮지만 死別했다라도 再婚이 이루어져 약 13퍼센트만이 獨身을 유지하고 있다. 즉 男子老人중 再婚經驗率은 약 23퍼센트에 달하지만 女子老人은 약 6퍼센트에 불과하였다(林鐘權 外, 1985).

한편 性別 年齡別 教育水準 및 就業狀態는 낮은 年齡일 수록 高學歷化와 就業率의 增加를 엿볼 수 있다. 60-64세의 老人중 中學校 以上の 學歷은 남자가 39.4퍼센트, 여자는 8.1퍼센트로 高齡일 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이러한 性別差異는 65-69세,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도 뚜렷하다. 또 60-64세에서 就業中인 경우는 남자가 61.2퍼센트, 여자가 29.7퍼센트이며, 70세 이상에서

表 5. 60歲 以上 老人의 性別 年齡別 教育水準 및 就業狀態

(단위: %)

교육수준 및 취업상태	남자			여자		
	60-64	65-69	70+	60-64	65-69	70+
교육수준:						
무학	17.8	32.1	54.7	53.4	70.2	88.2
국민학교	42.8	42.5	26.3	38.5	23.6	9.9
중학교이상	39.4	25.4	19.0	8.1	6.2	1.9
취업상태:						
무직	37.5	51.4	70.3	24.3	36.2	62.7
가사/무급가족	1.3	1.3	1.6	46.0	45.2	28.8
취업중	61.2	47.3	28.1	29.7	18.6	8.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노인수)	(507)	(373)	(445)	(706)	(529)	(862)

도 남자가 就業中인 경우는 28.1퍼센트, 여자는 8.5퍼센트이다. 그러나 60-64세에서 職業이 없는 경우도 남자는 37.5퍼센트, 여자는 24.3퍼센트에 이르고 있어 이들 중 건강이 허락되는 경우 老人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요구될 수도 있다.

이처럼 老齡化가 진전되면서 老人들은 肉體的 健康의 衰退, 配偶者의 死亡, 經濟的 收入의 減少, 또는 社會나 家族으로부터의 孤立 등 여러가지 문제가 뒤따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드리며 대처해 가야 하는지에 있다(서혜경, 1987).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였을 때 老人들의 個人特性은 女子老人이 男子老人들보다 平均壽命이 길어 長壽하지만 教育水準이나 經濟的 收入이 낮아 外的 適應力이 약하고 또 獨身率은 높아 자녀에 대한 依存度가 높은 상태에 있다. 그러나 앞으로 教育 및 就業機會의 擴大로 男子老人 뿐만 아니라 女子老人도 다소간 外的 適應力이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高齡化에 따라서 老人問題는 女性老人問題에 비중이 커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다. 老人家口의 特性

韓國家族은 傳統的으로 長男이 父母를 모시고 次男以下는 結婚과 함께 分家하는 父系中心의 家族形態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産業化에 따라 就業形態가 多樣化되면서 父母子息間이나 婚前 兄弟間에도 職場이 다를 때는 같이 살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나 父母들 만이 살거나 또는 未婚子女들 만이 사는 生計中心의 住居形態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生計中心의 住居形態는 특정 血緣範疇를 기초로 家族間에 精神的 紐帶는 지속할 수 있지만 老人扶養에서 物質的 또는 肉體的 扶養이 어렵다는 점에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住居中心의 家族成員中 60세 이상 老人이 있는 경우를 老人家口로 지칭하고 이들 家口의 構造的 特性을 檢討하고자 한다.

전국적으로 60세 이상 老人이 있는 家口는 전체가구중 23.3퍼센트(2,691가구)를 차지하고, 이는 都市家口中 17.5퍼센트(1,491가구), 農村家口中 44.6퍼센트(1,200가구)이다. 老人家口の 世代構成은 1세대 家口가 33.5퍼센트, 2세대 家口가 25.9퍼센트, 그리고 3세대 이상 家口가 40.6퍼센트로 1세대 및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는 率은 전체가구의 1세대 및 3세대 以上 家口の 構成率인 24.0퍼센트 및 11.3퍼센트보다 높다. 지역별로는 老人世代만으로 구성되는 1세대 家口率은 都市 老人家口中 26.0퍼센트, 農村 老人家口中 42.7퍼센트로 農村의 경우 자녀들의 離農으로 老人만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높다.

表 6. 60歲 以上 老人이 있는 家口率 및 이들 老人家口の 特性

(단위: %)

특 성	전국	도시	농촌
노인이 있는 가구율:	23.3	17.5	44.6
노인가구의 세대구성:			
1세대	33.5	26.0	42.7
2세대	25.9	28.3	23.0
3세대이상	40.6	45.7	34.3
가족원과의 동거형태:			
전가족원이 동거	71.6	82.4	58.3
일부 가족원의 분거	28.4	17.6	41.7
현가구원수:			
1명	13.5	10.5	17.3
2명	24.9	19.9	31.2
3명	14.2	14.0	14.4
4명	11.3	12.7	9.5
5명이상	36.1	42.9	27.6
평균(명)	3.61	3.91	3.24
전 체:	100.0	100.0	100.0
(가구수)	(2,691)	(1,491)	(1,200)

表 7. 60歲 以上 老人의 世代構成別 家口主와의 關係

(단위:%)

가구주와의 관계	1세대	2세대	3세대+	전 체
전국(노인수):	(1,235)	(853)	(1,334)	(3,422)
가구주	71.3	52.4	13.1	43.9
배우자	27.1	12.9	4.0	14.6
부모	0.2	26.1	77.7	36.9
기타	1.4	8.6	5.2	4.6
시부(노인수):	(520)	(498)	(815)	(1,833)
가구주	72.7	56.4	12.8	41.6
배우자	25.4	28.7	2.9	11.9
부모	0.4	4.2	78.9	40.8
기타	1.5	10.7	5.4	5.7
군부(노인수):	(715)	(355)	(519)	(1,589)
가구주	70.1	46.5	14.1	46.5
배우자	28.5	13.8	5.4	17.7
부모	0.3	34.4	75.5	32.5
기타	1.1	5.3	5.0	3.3

따라서 전체 家族員이 함께 살고 있는지 또는 結婚으로 인한 정식 分家를 하지 않고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원은 없는지를 살펴 본 결과 全家族이 같이 사는 경우는 전체 老人家口中 71.6퍼센트였고, 이는 都市 老人家口中 82.4퍼센트, 農村 老人家口中 58.3퍼센트였다. 즉 都市 老人家口는 약 18퍼센트가 일부 家族과 分居形態를 이루고 있지만 農村 老人家口는 무려 약 42퍼센트가 일부 家族(주로 자녀들)과 分居形態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점은 家口員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즉 老人 혼자서 사는 老人獨身 家口는 전체 老人家口中 13.5퍼센트에 달하며, 이는 都市 老人家口가 10.5퍼센트인데 비해 農村 老人家口에서는 17.3퍼센트에 달한다. 또 전체 老人家口中 2인 家口는 약 1/4에 달하며, 이는 都市에서 19.9퍼센트, 農村에서 31.2퍼센트로 農村 老人家口는 老人獨身이나 老人夫婦 또는 老人과 기타 家口員 1인과 같

이 사는 2명 이하의 家口가 48.5퍼센트에 달하고 있다.

老人들의 家口主와의 關係를 世代別로 보면 노인자신이 家口主인 경우는 1世代에서 71.3퍼센트, 2世代에서는 52.4퍼센트, 그리고 3世代 以上에서는 13.1퍼센트를 구성한다. 또 家口主의 配偶者인 경우는 1世代에서 27.1퍼센트이며, 2世代에서는 12.9퍼센트, 그리고 3世代 以上에서는 4퍼센트에 불과하다. 즉 1世代중 노인자신이 家口主이면서 配偶者와 같이 사는 경우가 약 27퍼센트에 달하지만 3世代 以上인 家口는 配偶者 없이 子女들에게 扶養을 받는 상태가 약 4/5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地域別로는 都市老人보다 農村老人에서 世代別 有配偶率이 높고, 子女에 의한 扶養은 都市老人에서 높다. 즉 農村老人은 子女들이 離農한 狀態에서 都市老人보다 老人들이 家計를 운영하며 사는 경우가 다소 높음을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老人家口에서 老人 혼자서 사는 獨身家口는 364家口로 이들 獨身老人의 特性은 <表 8>과 같다. 同 表에서 男子老人이 혼자서 사는 경우는 10.4퍼센트에 불과하며, 女子老人이 혼자 사는 경우는 89.6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 老人중 70세 이상은 35퍼센트 수준이며, 中學校 以上の

表 8. 獨身老人의 地域別 特性

(단위: %)

노인특성	전국			도시			농촌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70세이상	35.3	34.9	34.9	31.9	28.8	29.6	38.1	39.0	38.9
중학교이상	17.3	3.5	4.9	29.8	5.8	8.4	7.3	1.8	2.3
유배우상태	9.3	1.7	2.5	10.1	0.7	1.7	8.7	2.5	3.1
취업율	59.6	36.3	38.5	45.0	14.8	18.1	71.4	52.3	54.2
분거가족이 없는 경우	66.5	82.8	81.0	80.2	85.8	85.2	55.4	80.3	77.8
(독신노인수)	(38)	(326)	(364)	(17)	(139)	(156)	(21)	(187)	(208)

學歷은 男子老人이 17퍼센트 수준인 반면 女子老人은 4퍼센트 수준으로 차이가 크다. 또 獨身老人은 약 98퍼센트가 配偶者가 없는 경우이며, 家族이 없는 老人도 81퍼센트에 달한다. 獨身老人의 就業率은 女子老人이 약 36퍼센트, 男子老人이 약 60퍼센트로 60세 이상의 전체 女子老人의 약 28퍼센트, 男子老人의 약 53퍼센트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老人이 있는 家口와 老人이 없는 家口의 住居形態 및 生活水準比較는 <表 9>와 같이 老人이 있는 家口중 자기집을 가진 경우는 76.8퍼센트인

表 9. 60歲 以上 老人이 있는 家口와 없는 家口의 住居 및 生活水準

(단위 : %)

주거형태 및 생활수준	전국		도시		농촌	
	노인이 없는가구	노인이 있는가구	노인이 없는가구	노인이 있는가구	노인이 없는가구	노인이 있는가구
주거형태:						
자가	46.1	76.8	40.2	66.5	68.7	89.6
전세	35.0	14.9	40.6	24.1	13.5	3.4
월세	16.5	6.2	17.8	8.0	11.5	4.0
기타	2.4	2.1	1.4	1.4	6.3	3.0
월평균생활비:						
30만원미만	19.3	38.3	16.2	27.6	31.2	51.6
30-50만원미만	30.9	27.8	29.0	27.2	38.1	28.6
50-70만원미만	23.4	15.4	24.9	18.8	17.8	11.3
70-100만원미만	14.7	9.8	16.2	13.1	8.9	5.6
100만원이상	11.7	8.7	13.7	13.3	4.0	2.9
이웃과의 생활비교:						
아주 잘 산다	0.3	0.8	0.1	0.2	1.1	1.5
비교적 잘 산다	4.5	7.4	2.9	4.8	10.8	10.6
보통이다	63.4	54.8	64.3	57.4	59.7	51.7
비교적 못 산다	26.3	25.3	27.0	27.1	23.7	23.1
아주 못 산다	5.5	11.7	5.7	10.5	4.7	13.1
(가구수)	(8,849)	(2,691)	(7,013)	(1,491)	(1,836)	(1,200)

데 비해 老人이 없는 家口중 자기집을 가진 경우는 46.1퍼센트이다. 즉 老人家口中 자기집이 없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23.2퍼센트이고, 이는 都市에서 33.5퍼센트, 農村에서 10.4퍼센트이다. 또 月平均 生活費는 50만원 미만인 老人이 있는 家口에서 약 2/3에 달하고 老人이 없는 家口에서는 약 1/2에 달해 老人이 있는 家口에서 零細性を 엿볼 수 있다. 月平均 生活費가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農村 老人家口에서 80.2퍼센트에 달하고 都市 老人家口에서는 54.8퍼센트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이웃과의 生活比較에서 “아주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老人이 있는 家口에서 11.7퍼센트인 반면 老人이 없는 家口에서는 5.5퍼센트였고, 都市 老人家口에서는 10.5퍼센트, 農村 老人家口에서는 13.1퍼센트였다. 또 “아주 잘 산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비교적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老人이 없는 家口에서 4.8퍼센트, 老人이 있는 家口에서 8.2퍼센트였고, 이러한 점은 都市 老人家口에서 5.0퍼센트, 農村 老人家口에서 12.1퍼센트였다.

4. 要約 및 結論

本稿에서는 1991년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資料를 기초로 韓國 老人家口の 構造的 特性을 살펴보았다. 먼저 韓國人口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出産·死亡率의 低下와 함께 平均壽命의 延長으로 人口構造가 변하면서 앞으로는 老齡化가 급속히 진전될 것을 의심치 않게 된다. 1960년 60세 이상 老人은 150만명으로 老人人口率은 약 6퍼센트에 불과했지만 1990년에는 330만명으로 증가하여 약 8퍼센트의 老人人口率을 보였고, 2020년에는 986만명으로 약 20퍼센트의 老人人口率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老齡指數는 1960년 14.7이 1990년 29.8로, 그리고 2020년은 121.8에 이르게 될 것이고, 老人扶養比는 같은 시기에 11.2에서 11.6으로, 그리고 30.2로

변하게 될 것이며, 平均壽命은 1960년에 약 55세가 1990년에는 약 71세로, 그리고 2020년에는 77세에 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과는 달리 合計 出生率은 人口代置水準 以下를 유지하면서 子女가 없거나, 아들이 없는 경우도 나타나 앞으로 子女에 의한 老人扶養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産業化·都市化로 農村人口중 젊은 層의 離農은 老齡層만 農村에 남게 함으로써 都少農老 樣相이 비롯되었지만 앞으로는 都市人口 자체가 老齡化되면서 老人問題는 農村에서 뿐만 아니라 都市에서도 심각성이 예상된다. 또 老人特性은 低學歷과 性別 死亡力 差異로 인한 높은 女性 獨身率에서 특징을 보인다. 최근 60세 이상 老人중 女子老人은 약 62퍼센트를 차지하며, 이들중 國民學校 以下の學歷은 약 94퍼센트, 그리고 獨身率은 약 65퍼센트에 이른다. 그러나 앞으로는 高齡化와 함께 70세 이상 老人率도 증가하고 高學歷化와 經濟活動參與率도 높아지며 平均壽命의 延長이 獨身率을 완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함께 최근의 老人家口는 都市(17.5%)보다 農村(44.6%)에서 높은 율을 보이며, 世代別 構成率은 1世代 家口가 33.5퍼센트, 2世代 以上 家口는 66.5퍼센트로 老人世代만으로 구성되는 1世代 構成率은 都市老人家口中 (26.0%)에서 보다는 農村老人家口中에서 차지하는 비율(42.7%)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全 家族員의 同居與否를 살펴보면 일부 家族員과 分居形態를 이루고 있는 老人家口 역시 農村에서 그 비율이 높으며, 이에 따른 老人獨身家口率도 農村의 老人家口中 17.3퍼센트나 된다. 또한 2인 家口는 31.2퍼센트로 老人家口中 老人獨身이나 老人夫婦만의 家口가 약 1/3에 달하고 있다. 또 이러한 老人家口는 零細性도 엿보이고 있어 子女에게 의존이 어려운 老人家口는 社會的 保護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즉 産業化가 生計爲主의 住居形態를 조장하면서 老齡層이 周邊化되는 점은 老人問題에서 주요관심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인간생활이 家族과의 關係를 갖는다는 점에

서 老人問題도 家族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老人問題 역시 老人이 家族과 어떤 關係를 유지하면서 생활하느냐가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結果的으로 韓國農村은 지난 30년간 급속한 産業化·都市化에서 젊은 층의 離農이 相對的 老人家口率을 높여왔고, 또 老人들 만이 農土를 지키면서 生計를 유지하는 형태가 늘어났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農村家口중 老人獨身家口나 老人單獨家口의 扶養體系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된다. 즉 老人獨身만으로 생활하거나 또는 老人夫婦만으로 생활하는 가구가 全體 老人家口중 약 1/3에 달하고 있음은 現在의 生活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生活에도 많은 問題가 뒤따르게 될 것으로 思料된다.

參考文獻

- 姜允求, “老人福祉政策의 推進方向”, 老人福祉政策의 方向設定을 위한 研究,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9.
- 金敏子, 孔世權, 曹愛姐, “結婚한 婦人의 姻父母와의 同居形態”, 保健社會論集, 제11권 제2호,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1.
- 孔世權, 柳好信, “韓國人口의 老齡化에 관한 考察”, 人口問題論集, 제25호, 人口問題研究所, 1984.
- 孔世權 外, 韓國 家族構造의 變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 _____ 外, 韓國 家族의 機能과 役割變化,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0.
- 孔世權, 曹愛姐, 金勝權, 孫聖姬, 韓國에서의 家族形成과 出產行態,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2.
- 劉明基, “門中の 形成過程에 관한 考察”, 韓國文化人類學, 1977.
- 이가옥, 권선진, 권중돈, 이원숙, 老人扶養에 관한 研究,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0.
- 林鐘權 外, 韓國 老人의 生活實態,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5.
- 서혜경, “노년여성과 남성의 내외 통제성 비교연구”, 韓國老年學 제10호, 韓國老年學會, 1990.
- 石大權, “忌祭祀의 規範과 慣行의 比較研究”, 人類學 研究, 1986.
-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60 人口 및 住宅센서스 報告, 1963.
- _____, 1970 人口 및 住宅센서스 報告, 1972.
- _____, 1980 人口 및 住宅센서스 報告, 1982.
- _____, 1980 經濟活動人口年報, 1981.
- 統計廳, 1990 經濟活動人口年報, 1991.
- _____, 1990 人口住宅 總調査 速報, 2% 標本抽出 集計結果, 1991. 8.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第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 計劃 2次 試案, 總量部門: 人口分野計劃, 1991.

- Berkman, L.F., "Assessing the Physical Health Effects of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Vol.5, 1984.
- Caplan, G., *Support System and Community Mental Health*, Behavioral Publications, New York, 1974.
- Cobb, S.,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38 No.5, 1976.
- Riley, M.W., Johnson M. and A. Foner, "A Sociology of Age Stratification", *Aging and Society*, Vol.3,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1972.
- Sweet, James A., Larry L. Bumpass, *American Families and Households*,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1987.

1992 全國出產調查 特別分析

1992년 12월 20일 인쇄

1992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지 달 현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전화 355-8003~7 (교환)

인쇄처 아진인쇄 (273-7223~4)
